세종지역학 기획총서 제3권

세종지역학센터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이규철, 한상헌, 이재민, 유정미, 배준영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목 차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4

Ⅰ. 훈민정음과 세종의 시대 _ 이규철 11

①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 금정희 34

Ⅱ. 한글의 추상, 추상도시 세종 _ 한상헌 39

②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 유경자 58

Ⅲ. '한글'이라는 옷을 입은 세종시 _ 이재민 63

③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 김순자 89

Ⅳ.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 탐구 _ 유정미 93

④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 김도영 123

Ⅴ. 한글 문헌을 활용한 세종시 한글 콘텐츠 구현 방안 _ 배준영 127

⑤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 이채론 158

주석 및 참고자료 160

책을 펴내며: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도시 속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콘텐츠로 구현하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 책은 2012년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을 품는 당위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세종시에서 왜 '한글'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글을 통해 그리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지에 관한 나름의 고찰을 담아냈다.

이 책은 세종지역학센터가 두 번째로 출간한 단행본이다.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 다루었던 『세종인물여행』을 포함하면 세종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다룬 세 번째 총서가 된다. 제1권인 『세종인물여행』, 제2권인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는 세종시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함으로써 문화적 소재의 확장을 견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욱이 지역학센터에서는 『세종인물여행』에 수록된 인물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 단순한 문화적 소재를 벗어나 에듀테인먼트에 기반한 콘텐츠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다양한 이야기들은 지역 작가의 손을 통해 희곡이라는 장르로 개발될 예정이며, 향후 연극이라는 공연예술로의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 시각예술 작가는 기차역에 숨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전시회를 예정하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 센터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이번 총서는 '한글'이다. 이 책이 발간될 무렵 세종시는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 글의 필자 또한 문화도시와 깊은 인연이 있는데, 문화도시 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글'을 선정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왜 세종시가 한글을 해야 해?"하는 물음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이자 문자체계인 '한글'을 왜 세종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궁금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의도를 알아챌 수 있다.

첫 번째, 세종시가 한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즉 세종대왕의 '묘'는 여주에 있고, '국립한글박물관'은 서울 용산구에 있으며, '세계문자박물관' 또한 인천에 있다. 더욱이 김해는 한글학자 허웅 선생 이야기를 활용한 '김해한글박물관'이, 울산은 최현배 선생 이야기를 활용한 '외솔기념관' 등 이와 관련한 공간형 콘텐츠가 있지만, 세종시는 그렇지 않다. 충주의 '우리한글박물관'처럼 민간에서의 노력 또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세종시라는 도시에서 한글을 활용해야 하는 당위와 관련한 의문이다. 두 번째, 한글은 우리나라의 문자 체계이자, 국가유산이다. 1962년 훈민정음해례본을 국보로 지정한 이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관리되고 있는 역사 유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신도시이긴 하나, 아직 행정수도로서 미완의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인구 40만도 채 되지 않는 도시가 어떻게 국가유산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의문이다. 다시 말해 세종시가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국가유산을 활용할 수 있냐는 호기심, 비아냥, 질투심 등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음을 알아챘다.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사실 위 질문에 대한 명징한 정답을 내리기에는 어렵겠지만, 최선의 범위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이는 지난 활동에서의

평가가 되기도 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지향점을 함의하고 있기도 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글이 가진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패션 및 공간 디자인 등에 활용하는 경향이 짙었다. 다시 말해 한글이 가진 심미성을 활용하여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한글이 가진 역사적 이야기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논법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다섯 개의 글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한글 반포할 때의 사회적 상황과 세종대왕에 관한 글이다. 문화유산으로서 한글이 가진 가치와 의미, 사회적 상황에 관해 역사학적 접근을 통해 집필하였다. 두 번째는 한글의 추상, 추상도시 세종에 관한 글이다. 한글을 하나의 추상 체계로 바라보고, 이것을 세종시라는 도시의 개념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치와 의미에 관해 툐아본 시도다. 세 번째는 그간 세종시에서 진행되었던 한글 관련한 정책적 실천을 시간적 순서로 살펴보았다. 이는 세종시가 한글을 사랑해야 하는 실무적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네 번째의 글은 도시브랜드로서 세종시의 디자인을 툐아보았다. 이를 위해 뉴욕(I♥NY)·베를린(Be Berlin)·암스테르담(I amsterdam)을 살펴보았으며, 세종시의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는 한글 문헌을 활용하여 한글 콘텐츠로 구현 방안을 고찰하였다. 한글 문헌을 활용하여 디자인, 스토리텔링, 국가유산 활용 사업 등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한글이 단순히 문자 체계이자 역사 유산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소재이자, 다채로운 빛깔을 품은 미디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리의 과정은 세종시가 한글로 그리는 새로운 미래에관한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 현대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더욱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다섯 개의 글이 지나치게 개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의 문자, 역사, 언어, 삶터와 사람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을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건설적이며 건강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 세종지역학 연구가 인식을 확산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세종지역학센터가 그리는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세종지역학센터장 **이 재 민**

I

훈민정음과 세종의 시대

이규철(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훈민정음과 세종의 시대

이 규 철 |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다시 세종과 훈민정음에 주목하는 이유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사인물, 세종은 32년간 재위하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중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은 단연 한글 창제이다. 세종이 조선만의 고유 문자 체계인 한글을 만들어낸 것은 고조선 이래 천 년 이상 외래 문자인 한자만을 사용해 오던 한반도 국가들의 역사에 있어 일대 혁명이었다. 나아가 한글은 개인이 창제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한국인이 모국어를 표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발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류사적 위상을 지닌 세종대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세종이 밝힌 바와 같이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반영이라는 전통적 설명을 비롯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이용해 백성을 교육하여 효율적 국가 통치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설명되었다. 또한 훈민정음에는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서의 목적, 한자음 통일 등의 조치를 통한 언어 체제 정비의 목적 등 다양한 세종의 의도들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뿐만 아니라, 15세기의 국제관계 속에서 선진문화의 지향과 독자 체제 확립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필요로 했다는 국외적 상황을 논한 설명도 제시되었다.[1)]

1443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의 형태로 처음 세상에 나타난 한글이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문자로 자리잡기까지, 그 지난한 역사는 발표 이래 현재까지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자연히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생산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다룬 많은 상업적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새로운 문자 창제를 추진하는 세종과 그에 반발하는 사대부 기득권층의 대립 속에서 한글이 완성되었다는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훈민정음 창제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서도 특기할 만한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었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그 의의를 강조하고자 노력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라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은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고자 하는 영웅 세종과 사대주의에 찌들어 이에 반대하는 기득권 사대부 집단의 대립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

역사 속의 모든 발명은 어느 한 시점에 오로지 천재적인 개인에게 의존하여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온 인류의 경험과 기술의 산물이었다. 또한 수많은 역사적 발명의 사례들은 모든 발명의 배경에 그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역사적 배경이 언제나 존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훈민정음을 그 창제를 배태한 시대적 배경과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창제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탐구하다 보면 그 중심에 한 가지 역설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 중엽의 조선에서는 한자의 위상이 이전의 한반도 국가들에서보다도 더욱 높았다는 것이다. 한자는 고조선 이래 천 년이 넘도록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공식 문자였으며 그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변하지 않았다. 관료·사대부라 불린 이들의 지위 유지 수단이었던 과거시험은 한자를 익히지 않으면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15세기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명분으로서의 사대(事大)를 중시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 본토를 지배하고 있던 명(明)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이었으므로 조선이 명과의 관계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조선 고유의 문자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한 천재적 개인의 위업이 아니라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동향과 조선이 가지고 있던 국제의식이 세종이라는 천재의 의지를 실현할 배경을 마련한 결과였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1443년 조선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던 시대적 배경을 15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훈민정음 창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역사적 작업에 부족하나마 일손을 보태고자 한다. 이 글의 또다른 목적은 훈민정음 창제 반대 과정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 글이 제시할 실제 역사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의 역사적 의의가 올바로 이해되는 대중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15세기 조선-명 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정세

1392년 건국한 조선은 사대(事大)의 명분을 강조하며 명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명은 고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심을 새로운 국가 조선에 대해서도 거두지 않았다. 명의 입장에서 조선은, 새로 건국되었다고 하나 중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 온 한반도 국가들의 역사를 계승한 만큼 이전에 존속한 고려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태조가 명의 고압적 태도를 무릅쓰고도 계속 사신들을 파견했지만 양국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명은 조선의 사신을 구금하거나 때려죽이는 일도 저질렀고, 새로 파견된 사신의 입국도 금지했다. 이러한 외교적 압박 속에서 조선은 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사신 파견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요동 정벌 같은 공격적 대명(對明) 정책을 준비했다.

경직된 조선-명 관계는 명 건문제(1398)와 조선 태종(1400)이 연이어 즉위하면서 15세기 초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건문제는 내전의 위험 때문에 조선의 도움이 필요했고, 태종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교적 입지를 굳혔다. 명의 내전이 실제로 발발하고(정난의 변/1399-1402), 그 결과 건문제를 대신해 영락제가 즉위했지만 태종은 적극적 외교를 통해 건문제와 영락제 모두에게 조선의 외교적 입지를 보장받는 데 성공했다. 이후 양국의 관계는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도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태종과 영락제의 재위 기간 동안 안정된 외교관계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과 명이 서로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야 외교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자 노력했지만, 조선과 명 모두 내부적으로는 상대국을 매우 불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은 명이 일본과 연합해서 침입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점은 명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명은 조선과 일본이 연합해서 자국을 침입하는 상황을 걱정했고, 일본 역시 조선-명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명이 조선을 선봉으로 자국을 공격해 오는 상황을 걱정했다. 이는 1419년 조선의 쓰시마 정벌 당시, 조선과 명이 함께 본토를 공격해 올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방 민족들에 대한 영락제의 공격적 대외정책이 실현되면서 조선-명 관계는 경직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1402년 영락제가 즉위한 이후 명은 여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여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이미 홍무제 재위기(1368-1398)부터 표출된 바 있었고, 당시 명은 여진인들을 포섭하는 조선의 조치에 외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렇듯 적극적인 명의 대(對)여진 정책은 영락제 즉위 이후 홍무제 시기보다 더욱 본격화되었다. 또한 명은 타타르(韃靼), 오이라트(瓦剌) 등의 몽골 세력과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명이 취한 외교정책의 여파는 요동은 물론 만주 지역까지 미치게 되었다.

영락제 시기(1402-1424) 몽골 동부 지역에서는 타타르부(韃靼部)가 여러 부족을 규합해 세력을 넓히면서 북원(北元)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힘을 키우고 있었다. 반면, 몽골 서북 지역에 기반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오이라트부(瓦剌部)는 원래 쿠빌라이 칸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북원을 멸망시킨 명에 대해서 타타르부와 달리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두 몽골 세력의 대립과 불화 상황은 영락제가 그들에 대한 적극적 이간책을 통해 몽골 세력의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락제는 황제가 되기 전부터 북원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뛰어난 군사 사령관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규모 친정(親征)을 통해 이들 몽골 세력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과 타타르·오이라트의 전쟁 양상은 영락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명은 몽골 세력의 회유를 위해 보냈던 사신이 타타르부의 지도자에 의해 처형되자 첫 번째 정벌을 시도했다. 1409년 10만의 병력을 동원했던 첫 번째 정벌은 실패했지만, 명은 이듬해 50만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해 다시 정벌에 나서 타타르부의 중심지였던 카라코룸(和林)을 함락했다. 더하여 명의 사신을 살해했던 인사들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타르부에 대한 명군의 대승은 오히려 오이라트부가 힘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고, 결국 오이라트의 군대가 명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영락제는 15년 동안 수십만의 병력과 20-30만 석에 이르는 군량미를 동원하면서 오이라트부와 타타르부에 대한 정벌을 거듭했다. 정벌 초기에 명군은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점차 전과가 감소하였고, 정벌 때마다 동원된 대규모 인원과 군량미는 결국 명을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 영락제 또한 1424년의 마지막 정벌에서 몽골의 유목천(楡木川)까지 들어갔다가 동사한다.2) 한 나라의 황제가 친정에 나섰다가 전장에서 전사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몽골 세력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영락제는 여진 세력들을 단순히 포섭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위소(衛所) 체제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는 명이 여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조선 역시 건국 초기부터 여진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북방 지역 진출을 통해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과 명이 여진 문제를 두고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세종 즉위 이후 조선-명-여진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교류 상황

요동의 봉주(鳳州)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건주위와 건주좌위의 여진들이 각각 압록강 일대였던 파저강과 아목하 지역으로 이주했던 시기는 세종 5년(1423, 영락 21년)이었다. 이들의 이주는 영락제의 몽골 정벌과 타타르부의 대응과 침입 등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봉주에서 안정된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여진의 유력 추장 양목답올(楊木答兀)과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도 두만강 일대로 이주했다. 후일 명의 홍희제와 선덕제가 양목답올 등을 포섭하자 이들이 약탈해 갔던 중국인 포로들을 돌려받는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3)]

영락제가 정벌 시행 도중에 사망한 이후, 그를 이어 즉위한 홍희제와 선덕제는 영락제와는 달리 외교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두 사람의 노력 속에서 이들의 재위기는 후대에 '인선(仁宣)의 치(治)'라고 평가받는 안정된 시기로 설명되었다. 대외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는 선덕제의 재위기였다. 우선 영락제 재위기 동안 전쟁을 거듭하며 계속 대립했던 타타르·오이라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힘썼다. 또한 공격 위주의 전략이 아니라 방어 위주의 전략을 채택하면서 정벌 등의 군사 행동을 가급적 자제했다. 이와 더불어 '정화출사(鄭和出使)'로 대표되는 대규모 해양원정도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과 경제 손실 등의 이유로 안남(安南) 경영을 그만두고 투입했던 인원과 자금 등을 모두 철수했다. 선덕제의 적극적 조치들을 통해 백성들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는 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는 명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4)]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은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북방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꾸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었다. 4군 6진으로 설명되는 성과는 단순하게 세종 재위기 동안의 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결과가 도출된 것은 물론 세종 재위기였지만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꾸준하게 북방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태조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북방한계선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바 있었다. 당시에는 압록강 일대는 물론 두만강 일대의 넓은 지역이 아직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조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북방한계선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것은 이후 조선의 북방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세종대 설치되었던 4군 6진은 조선 건국 직후부터 추진되었던 북방 정책 또는 영토 확장 정책의 성과로 설명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여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왔던 여진의 이만주(李滿住) 세력에 대한 두 차례의 정벌을 시행했다. 세종은 압록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전개하면서 조선의 군사력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런데 조선이 군사력을 동원해 여진 세력을 제압하는 방식의 외교 정책은 이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했던 명의 외교 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태종의 노력으로 조선-명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점점 쌓아 가는 상황이었음을 언급하였다. 태종과 영락제의 재위기 이후 조선과 명은 서로가 상대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외교적 행동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세종대에 이르러 양국의 관계는 분명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조선과 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조짐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조선과 명

은 각각 압록강 북변 일대와 두만강 북변 일대를 자신들의 주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지역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대 명에게 공험진 이남의 10처에 대한 귀속권을 인정받았던 조선과, 여진 추장 동맹가첩목아 및 이만주 등의 이주를 허락했던 명의 입장에서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이 압록강 일대의 건주위 여진을 공격하기 위해 두 차례나 출병했던 것이나 명에서 두만강 일대의 유력 여진 추장들을 포섭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상황들은 충돌의 조짐을 뒷받침 해준다.

조선과 명이 여진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정황은 이미 태종대부터 기록을 통해 나타난다. 영락제는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1403년 '건주위'를 설치했다. 조선이 건주위로 명명되는 지역의 여진 세력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놓고 명과 대립할 것이라는 점은 다음의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춘추관사 하윤, 지춘추관사 권근에게 명하여 사고를 열고 전조(前朝) 『예종실록』에서 예종조 시중 윤관(尹瓘)이 동여진(東女眞)을 공격하고 경계 위에 비석을 세웠던 일을 상고하게 했다. 황제가 왕가인(王可仁)을 여진에 보내어 건주위를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하여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5]

1404년, 태종은 신하들에게 고려 『예종실록』의 기록을 확인해 윤관 등이 동여진을 정벌했던 상황과 그가 세웠던 선춘령비(先春嶺碑)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다룬 실록의 기록에서는 태종의 지시 목적이 명의 건주위 설치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당시 태종은 즉위 이후부터 지극한 정성으로 명에 사대한다는 '지성사대(至誠事大)'를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및 국정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 지역에 대한 명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서로의 관심 지역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 분위기는 15세기 동안 조선과 명 사이의 여진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이어졌다.

조선의 여진 정벌(征伐)과 대명의식

조선과 명은 모두 압록강 및 두만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두 나라가 여진 지역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두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조선과 명 모두 여진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진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두 나라의 목표 역시 동일했다. 여진 지역의 유력 추장들은 조선과 명이라는 강한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건국 이후 100여 년 동안 10여 차례의 대외정벌을 시행했다. 실제로 출병했던 사례는 9건이지만, 출병에 대한 준비까지 모두 끝내고도 국내 반란 사건 때문에 취소되었던 사례를 포함하면 10번이 된다. 단순한 계산으로도 조선은 15세기의 100년 동안 평균 10년에 한 차례 대외정벌을 시행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평균 10년에 한 번이라는 수치만 놓고 본다면 정벌과 정벌 사이의 기간이 제법 멀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사에서 15세기 조선만큼 지속적인 정벌을 시행했던 시기는 없었다. 더욱이 정벌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적어도 15세기 동안은 항상 정벌의 준비와 시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갔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이라는 빈도로 외부 출병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태종의 여진 정벌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세종 재위기 동안에는 출병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세종대 시행되었던 여진 정벌의 대성공은 이후 조선 국왕들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만 조선의 대외정벌 정책은 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이 정벌을 통해 여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수록 명 조정은 조선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갔다. 이는 훗날 세조 재위기에 이르러서 조선과 명이 여진 문제를 두고 보다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불씨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대외정벌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여진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명에 양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대 여진 정벌에 대한 논의 과정 및 출병 전후로 나타났던 조정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던 대명의식의 구체적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쟁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명에 대한 의식의 실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조선 전기의 국왕들은 사대라는 명분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중에서도 세종은 사대의 중요성을 특별하게 강조했던 국왕 중 한 명이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여진 정벌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대명분이나 황제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조선의 정책 방향에 맞춰 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특히 여진 정벌 이후 명에서 조선과 건주위 여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파견했던 사신단을 이전과 달리 박대했던 사건에서도 당시 조선이 가졌던 대명의식의 실제를 엿볼 수 있다. 조선의 국왕과 신료가 가지고 있던 양면적 대명의식이 여진 정벌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세종에게 있어, 사대명분은 조선과 명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보여줌으로써 국왕에 대한 신료들의 충성을 담보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대명분이 조선의 국익이나 국왕의 권위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세종은 언제든지 이를 무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는 사대명분이 조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7] 그러한 상황은 세종이 여진 정벌을 시행하기 전 명 황제에게 허락을 구하는 형식의 외교문서를 보냈던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때 명이 조선의 출병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세종은 개의치 않고 계획에 따라 정벌을 준비해 시행했다. 세종은 심지어 명 황제가 보내온 칙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이 주도했던 정벌 시행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여진 정벌의 시행을 반대하는 신하들의 논리를

제압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세종은 스스로 강조했던 사대의 가치를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노련한 정치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이 명에 사신을 보내 여진 출병에 대한 동의를 구했던 것은 사실 최악의 외교적 상황을 피하려는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세종은 명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진 세력에 대한 정벌을 계획해서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1433년(세종 15) 조선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군사 1만 5천 명을 동원해 7개의 부대로 나누어 여진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을 단행해서 크게 승리했다. 정벌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최윤덕(崔潤德)은 정벌의 과정과 승전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했다.[8] 최윤덕이 보고했던 전과는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정벌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후에도 조선은 성종 재위기까지 여진에 대한 정벌을 5차례나 더 시행했지만 1433년 정벌 수준의 전과를 얻지는 못했다. '제1차 파저강 여진 정벌'이라 불리는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세종은 명에 사신을 파견해 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9] 그런데 이때 조선이 명에 보낸 문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정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전에 명에 보냈던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저강 일대 여진의 활동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이 모조리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11년 전에 있었던 건주위 여진의 소규모 침략 사실까지 제시하며 출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벌 결과를 알리는 사신이 가져간 문건에는 조선이 여진을 공격해 크게 승리했고 많은 전과를 얻었다는 사실 전체가 포함하지 않았다. 단지 조선의 출병이 있었다는 정도의 취지만 문건에 적혀 있을 뿐이었다. 이는 세종이 정벌의 구체적 성과를 명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0]

세종의 양면적 대명의식은 정벌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진 정벌에 반대했던 신하들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명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건주위란 명칭은 여진 스스로가 붙였던 명칭이 아니라 명에서 지정한 것이었으므로, 건주위는 명의 행정구역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정벌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이러한 건주위에 대한 출병이 명의 영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벌 예정 지역의 유력 추장 이만주는 명의 관직을 받았기에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의 지적은 사대명분을 특별하게 강조했던 세종에게 매우 날카로운 반대 논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종은 반대 의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정벌 시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명에서 조선의 출병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11)]

세종은 여진 지역 출병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명에게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물론 만약 외교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대응 논리와 방법 등을 생각해 두고 있었다. 대외정벌이라는 국가적 사업에서, 세종은 명에 대한 사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 평소 사대명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스로도 이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던 세종은 정벌과 같은 대외정책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는 전쟁을 통해 세종 등이 가지고 있었던 대명의식의 구체적 모습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드러낸다.[12)]

15세기 동북아시아 정세와 훈민정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15세기의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반까지, 동북아시아는 원-명이라는 거대 제국의 교체와 고려-조선이라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왕조의 교체를 동시에 경험했다. 이렇듯 혼란한 상황 속에서 대규모 전쟁과 반란 등이 계속되었으며, 왕조 교체 과정에서 통제력의 공백이 생긴 지역에서는 여러 군벌들 사이의 다툼도 계속 발생했다. 모든 국가 및 세력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명, 고려-조선의 교체나 군벌들 간의 싸움은 동북아시아 세계 전체에 지속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1450~1460년대까지 조선은 물론 명과 일본, 여진까지도 동북아시아 전체가 관련되는 대규모 전쟁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1443년 조선이 독자적 문자 체계를 개발한 것은 이처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조선이 당면한 국제적 역학관계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 세종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한 것은 독자적 문자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라고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세종 개인의 신념이나 조선 내부적인 요인도 훈민정음의 탄생에 대한 배경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당대의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 또한 새로운 문자 창제에 대한 세종의 고민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15세기 조선은 여진 문제를 둘러싼 명과의 외교적 대립 상황 속에서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위상을 가진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교 대상들에게도 적용되는 정책 방향을 확립하였다. 세종대에 발생한 새로운 문자 체계의 창조 및 사용은 그러한 조선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책의 일환이었다.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 체계의 개발과 확립은 조선이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자 하는 국가의 형태, 곧 중국 중심의 외교적 세계관 내에 존재하는 동시에 중국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세력이라는 국가적 정체성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훈민정음의 개발과 제작은 한국사에서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롭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의 창조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및 국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용한 도구의 탄생이었다.

훈민정음 창제 반대의 진상

이 장에서는 앞에서 주지한 대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세종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과거의 대중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내러티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사대주의에 찌든 집현전 부제학(集賢殿 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의 사대부들이 훈민정음 창제라는 세종의 위업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했다는 설명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최만리는 세종대 관료 중 가장 억울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대부분 최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온 데 반해, 실제의 최만리는 세자 교육에 어울리는 인재로 평가받을 만큼 성실한 인물이었다. 집현전 부제학으로 재직하면서 훈민정음 제작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렸던 것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최만리가 훈민정음 제작 반대 상소를 올렸던 데는 당시 집현전이 세종의 자문기관 역할뿐만 아니라 언론의 기능 또한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오늘날 언론의 임무와 마찬가지로, 당시 집현전의 임무 또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국정이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만리는 집현전 부제학으로 재직하는 동안 훈민정음 제작뿐 아니라 다른 세종의 정책에도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실상 정상적인 임무 수행일 뿐이었다. 최만리가 세종의 다른 정책에 비해 유달리 훈민정음 제작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증명한다.

사실, 세종과 최만리로 대표되는 훈민정음 창제 관련 논의 사료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사료들을 살펴보면 세종과 최만리 등의 토론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당시 국왕 세종이 압도적 권위로 최만리 등을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실제 토론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사료에서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사대부들의 조직적 반대 모습을 찾기 어렵다. 제작 반대는 일부 관리들의 의견이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세종의 권위에 제압되었다. 무엇보다 세종 재위기 동안 상징적 위치에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황희(黃喜), 조말생(趙末生), 김종서(金宗瑞) 등 대표적 신하들의 반대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결론적으로 세종이 주도했던 새로운 문자 창제 과정에 대한 사대부들의 격렬한 반대가 실제보다 크게 과장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져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중들의 반응에 흥망이 좌우되는 역사영화나 역사드라마 등 상업콘텐츠에서, 새로운 문자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극적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지만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서 흥미를 위해 연출된 내용들이 실제 역사로 알려지는 것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선포 및 반대 상소의 내용, 세종과 신하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당시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자 한다.

훈민정음 제작 과정에 대한 기록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세종 25년(1443)이다. 이 기록에서는 임금이 직접 언문(諺文) 28자를 제작했다는 내용과 옛 전자(篆字)를 모방했으며,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을 합쳐 글자가 이루어진다는 기본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했다.[13] 이 내용을 통해 '훈민정음'과 '언문'이라는 명칭 및 새로운 문자 창제 과정에서 세종의 역할, 초성·중성·종성이 합쳐져 글자가 이루어진다는 핵심 원리 등이 소개되었다.

다음 해 2월, 세종은 세자를 비롯한 대군들과 집현전 관리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을 이용한 번역 작업을 지시하였다. 세종은 집현전 교리(集賢殿 校理) 최항(崔恒), 집현전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 집현전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돈녕부 주부(敦寧府 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언문으로 『운회(韻會)』의 번역을 지

시했다. 또한 세자와 진양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에게 번역 작업을 관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을 자신에게 아뢰도록 지시했다. 여기에 더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거듭 상을 내리고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했다.[14] 이때의 기록에서 언급된 『운회』는 원(元)의 황공소(黃公紹)가 편집했던 『고금운회(古今韻會)』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에서는 세종 16년(1434) 신인손(辛引孫)이 주도하여 원의 웅충(熊忠)이 요점을 열거[擧要]하고 주석을 첨가해 30권으로 편성해서 발간했던 운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를 따로 간행한 바 있었다.[15]

세종이 훈민정음을 활용한 번역 사업을 대군과 집현전 관원들에게 맡겼던 것은 순간적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 대형 사업을 갑작스럽게 결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사업 참여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최소한 집현전 소속의 일부 관원들은 번역 사업 개시 이전에 훈민정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최만리 등이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은 바로 이때의 『운회』 번역 작업 지시가 내려진 지 4일 후였다. 사실 최만리와 함께 연명 상소했던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기록에 세종이 의금부(義禁府)에 하옥시켰던 관리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어 이들이 누구였는지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다.[16]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와 이에 대한 세종의 반응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조 기사에 기록된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에서는 사대(事大)에 관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하의 국가들 가운데 중국과 다른 독자적 문자가 있는 곳은 모두 이적(夷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선의 문자를 따로 만드는 것은 중화(中華)를 버리고 이적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문명의 큰 흠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선 사대부들의 과도한 사대주의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왕인 태종뿐만 아니라 세종 본인이 대명 사대의식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고, 특히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한다는 '지성사대(至誠事大)'를 자주 언급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물론 태종과 세종 모두 정벌 등의 전쟁 행위를 비롯한 실제 외교 활동에서는 사대명분을 준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일반적 상황에서의 외교 활동이나 국정 운영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적이 없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최만리 등이 어떠한 이유로 훈민정음 제작 반대에 사대의식을 언급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에서 다음으로 지적했던 내용은, 언문[한글]을 사용하면 관리들이 오로지 그것만 습득하고 실제 학문에 필요한 문자[한자]를 익히지 않아서 서로가 사용하는 문자 때문에 문과에 급제한 관원과 잡과 등을 통해 관직을 가지게 된 관원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만약 언문을 배우는 것만으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된다면 후진들은 스물일곱 자의 언문만 익혀도 입신양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니 고생스럽게 한자를 배워 성리학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또한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에 불과하므로 학문에 방해될 뿐 아니라 정치에도 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최만리 등은 아무리 반복해서 생각해도 언문의 올바른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에서 한자가 가지고 있었던 범용성과 위상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였다. 그중에는 훗날 문종으로 즉위하는 세자가 언문 관련 업무에 힘을 쏟는다면 학업상의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정치하는 도리에도 유익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17] 이와 같은 상소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 최만리 등은 훈민정음 제작과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당시의 사대부 관리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자 창제에 대한 반대 논리로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대 상소는 세종의 매우 강력한 반박에 부딪혔다. 세종은 우선 언문 곧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예전 설총(薛聰)이 이두를 제작했던 뜻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는 최만리 등의 상소에서 설총이 이두를 제작했던 뜻을 옳다고 하면서도 현재 임금의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반박이었다. 또한 신하들이 운서(韻書)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아니라면 누가 운서를 바로잡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훈민정음 제작을 새롭고 기이한 기예로 표현한 것이나 국왕과 세자가 직접 주도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18)]

이렇듯 매우 간단하고 명쾌한 내용의 반박을 통해, 세종은 자신이 주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세종의 통치 스타일이 직접 반영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인자하고 자상한 이미지와 달리, 군주로서의 세종은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직접 주도하는 통치 방식을 유지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을 통해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 다수의 정책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했으며, 거의 모든 신하들이 반대하던 정벌 시행이나 내불당(內佛堂) 설치 문제 등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다. 당연히 세종은 최만리 등 일부 신하들의 반대 의견 정도로 이미 결심했던 훈민정음 창제와 활용이라는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다. 더욱이 최만리의 상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미 훈민정음 담당 관리의 교육이 시작되었고, 활자 제작 등의 지시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사용한 번역 작업을 일부 신하들의 반대로 중지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반응이 매우 강한 형태로 나타나자 최만리 등은 더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이 상소를 올린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19)] 하지만 세종은 최만리 등의 추가 설명을 받아들

이지 않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세종은 김문(金汶)이 언문 제작에 동의했다가 반대 상소에 이름을 올렸던 점과 정창손(鄭昌孫)이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자질 여하에 따라 충신·효자·열녀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말들이 어찌 선비의 도리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겠냐며, 그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비들이라고까지 강하게 비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종은 반대 상소 관련자들을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하옥시켰다가 다음 날 풀어줬다. 정창손은 파직되었고, 김문은 의금부의 국문을 통해 임금에게 말을 바꾸어 아뢴 이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20)]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최만리 등이 올렸던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반응은 논리적 반박을 동원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통해 그들의 반발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특히 세종은 최만리 등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를 올린 집현전 관리들뿐만 아니라, 상소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던 김문·정창손까지 처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신하들이 훈민정음 창제나 관련 작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계속 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세종이 재위 기간 동안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강하게 반응했던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 사업 진행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세종과 최만리에 대한 후대의 오해와 진실

실제로, 최만리 등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가 의금부 하옥으로 끝난 이후 훈민정음에 대한 더 이상의 반대 의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주지하였듯 훈민정음에 대한 실무자 교육 및 활자 제작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종의 의도는 명확했다. 다른 정책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반대 의견 자체를 억누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세종이, 훈민정음에

관한 반대 의견에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자신이 창제한 문자에 대한 그의 애정과 활용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느껴진다.

또한 이는 이미 설명하였듯이 국왕으로서 세종의 권위가 매우 강력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사실 조선 건국 이후 세조 재위기(1455-1468)까지 국왕들의 권위는 이후의 국왕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왕에게 강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했던 15세기 조선의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태조-태종-세종-세조가 가졌던 상징성과 능력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특히 세종이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종은 부친 태종에게서 통치의 정당성과 정책 방향을 물려받았고, 아들 문종과 세조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 시점에서 그의 통치 기간은 26년이나 되었고 이는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조선에서 세종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없었다. 반대 상소에 참여했던 정창손이 비록 원로 대신이긴 했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정창손보다 정치적 입지가 약했던 최만리 등의 정치적 영향력은 언급할 것도 못 된다. 더욱이 최만리·정창손 등을 제외한 다른 관료나 사대부들의 반대 의견 표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혹자는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강경한 대처가 향후 신하들의 의견 개진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정치체제에서는 국왕이 아무리 강경한 반응을 하더라도 신료들이 반대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였다. 오히려 국왕이 신하들을 의금부에 하옥시키는 등의 조치를 했을 경우 신료들이 언로(言路)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등의 논리를 제시하며 새로운 반대 상소가 이어지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훈민정음 반대 사건에서는 최만리 등이 의금부에 하옥된 이후 다른 신료들의 훈민정음 반대 의견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신하들이 국왕 세종의 뜻을 인정했던 상황을 드러내는 동시에, 훈민정음 창제가 당시 신료들에게 있어 조직적·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해야 할 성질의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 소수 관료들이 훈민정음 창제·활용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렸고, 그 내용이 조선시대의 시각에서도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만리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대부들을 모아 세종이 주도한 훈민정음 창제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는 것은 후대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만들어진 인식이며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제의 최만리는 전형적인 학자형 관료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세종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들 중 한 명이었다. 세종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집현전을 다시 설치하며[21] 세종 2년(1420) 3월 집현전에 소속된 관원의 수를 정하고 실제 일할 사람들을 배치했는데, 이때 최만리는 박사(博士)로 임명되었다.[22] 최만리는 집현전 설치 때 함께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던 인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세종 9년(1427) 최만리는 세자 조현(朝見)에 서장관 겸 검찰관(書狀官 兼 檢察官)으로 정인지(鄭麟趾)·김종서(金宗瑞)와 함께 임명되었다. 당시 그의 관직은 집현전 응교(應敎)로 되어 있다.[23] 그리고 세종 9년부터는 세자 시강(侍講)을 맡으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24] 세자를 명에 보낼 때 정인지·김종서 등의 중신과 함께 언급되었던 것에서 이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13년(1431) 기록에서 최만리가 세자를 시종(侍從)한 것이 오래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25] 또한 조선에 파견된 명 사신에게 세자가 선물을 줄 때 최만리가 그것을 전달했던 기록도 자주 보인다.[26] 세종 17년(1435)까지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을 맡았던 최만리는 다음 해에는 집현전 직제학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가[27] 세종 20년(1438) 집현전 부제학에 제수되었다.[28] 다음 해 6월 최만리는 잠시 강원도 관찰사(江原道 觀察使)로 임명되며 집현전을 떠났으나,[29] 1년 후에 다시 집현전 부제학으로 임명되었다.[30]

세종이 최만리에게 집현전 업무와 세자의 보좌 업무를 주로 맡겼으며, 그가 두 업무를 제법 오랫동안 수행했던 사실은 최만리의 성실성과 그에 대한 세종의 신뢰를 보여준다. 또한 세종이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

를 1년간 강원도 관찰사로 파견한 이후 다시 종전의 직위에 임명했다는 사실은, 그가 집현전에서 가졌던 역할과 위상을 세종이 파악하고 인정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또한 즉위 이후 세자의 시학을 선발하면서 박중림(朴仲林)과 최만리의 사례를 언급했다.[31] 세조 역시 세자를 보좌하던 관원에게 세종대 최만리와 박중림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본받아 일할 것을 강조했다.[32] 최만리는 세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대표적 인물로 후대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최만리가 세종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던 인물이었다면 세자의 스승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후대에도 세자 시학의 대표 인물로 계속 언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만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최만리의 이미지가 세종에게 반대하는 신료로 굳어진 데는 훈민정음 반대 상소 사건으로 의금부에 하옥된 뒤 그가 보인 행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루 동안 의금부에 하옥되었던 최만리는 바로 다음날 풀려나 복직되었지만,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 여생을 보내다가 세종 27년(1445) 생을 마감했다. 집현전 부제학으로서 언론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던 자신이 비록 단 하루 동안이었지만 의금부에 하옥까지 되었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최만리가 세종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세종의 새로운 문자 제작이라는 위업을 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역사를 매우 과장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그 자체로도 인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훌륭한 업적이므로,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최만리를 비롯한 관련 인물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필요는 없다. 추후 훈민정음 창제를 배경으로 창작물을 제작할 예정인 대중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은, 최만리를 실제 역사에서의 모습 그대로 묘사하더라도 한글 창제라는 위업의 의미와 상징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훈민정음 탄생의 역사적 의의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사인물 중 한 명인 세종은 재위기 동안 남긴 업적들 중 훈민정음의 창제를 통해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다. 이는 현대까지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의 출발점이 되었다.

1443년 탄생한 훈민정음이 오늘날의 한글로 이어지는 과정은 현대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생산되어 전해져 왔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다룬 기존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자주적인 세종과 사대주의에 찌든 사대부들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문자가 완성되었다는 신화를 창조하고 반복해 왔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는 세종의 신뢰를 받으며 각종 중임을 맡았던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세종에게 무조건 반대하는 신하처럼 오해되기도 했다. 최만리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대중문화 콘텐츠 창작자들도 세종과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신화적 설명에서 탈피하여 실제 역사상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 시대 훈민정음 창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전통적 설명은 훈민정음 본문에 남긴 세종의 언급을 따라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반영이 새로운 문자 창제였다고 파악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통해 백성을 교화·교육시켜 통치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도 설명되었다. 이와 함께, 훈민정음에는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한자음 통일 등 언어 체제 정비의 목적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설명들에 더하여, 조선이 15세기 국제관계 속에서 대내외에 선전할 독자적 체제 확립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결국 훈민정음의 탄생과 보급이 당시 조선의 정치·사회적 시대상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지역 작가 작품①

금정희

대전에서 태어나 충남대학교에서 도자공예를 배웠고,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도올갤러리(서울 인사동)에서 첫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최근에 14번째 개인전을 박연미술관(세종)에서 선보였다. 금정희의 작업은 발물레작업부터 시작하여 옹기와 분청사기의 결합, 의인화된 동물형상을 해체하고 은유적으로 재조립 하였다. 이후 설치작업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예술가는 시대에 순응하기보다 기존의 관념과 틀에서 벗어나 저항정신을 갖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여한다. 작가는 현재 세종시에서 금수동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세종시지회장을 맡고 있다.



〈공유결합〉, 2024

원고지 형태와 문자기호를 통해 언어의 전달성과 기록된 문자사회성을 구조주의 언어학 관점에서 재구성 하였다. 텍스트는 단지 문자만 말하는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남겨진 기억과 상처를 포함하고 역사성과 시간성을 띄고 있는 넓은 개념이다



〈메모리〉, 2025

세종의 한글 창제 원리 천 .지 .인.과 애민정신을 대형붓의 형태에 담아 설치하였다.
배움의 차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불평등한 사회를 붓의 높낮이로 표현하였고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수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믿음을 형상화 하였다.

II

한글의 추상, 추상도시 세종[33)]

한상헌(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글의 추상, 추상도시 세종

한 상 헌 |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현실을 바꾸는 추상의 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의 포부에 비춰볼 때, '추상도시 세종'이라는 지칭이 어쩌면 많은 이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넌 너무 추상적이야,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등등의 표현처럼 우리 일상에서 '추상'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 그리 칭찬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을 마주할 때 '추상'은 쓸데없이 어려운 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흔하다.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o)의 추상화를 보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내 조카도 이렇게는 그리겠다" 하며 피식 웃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았던가? 제법 문화예술에 취미가 생겼다 하더라도 바넷 뉴먼(Barrnett Newman)이나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이우환(Lee Ufan)의 작품이 수백억 원에 경매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접하면 어렵지만 따로 공부해서라도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추상'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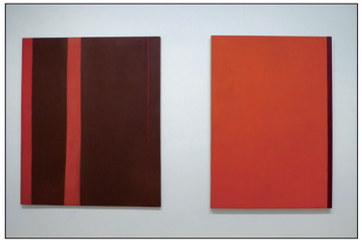


그림 1. 바넷 뉴먼 〈아담/이브〉
(런던 테이트모던 소장)



그림 2. 이우환 〈L'exposition Dansaekhwa〉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하지만 어렵고 쓸데없는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추상'이라는 단어가 녹록하지 않다. 추상의 영단어인 'abstraction' 어원은 라틴어 'abstractus(떨어져 있는)', 'abstrahere(끌어내다, 분리하다, 떼어내다, 전환하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14세기 후반 문법에서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지 않는 명사를 특정화하는 것에 대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34] '抽(뽑을 추)'와 '象(모양 상)'이 결합한 한자어 '抽象'은 '모양에서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는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개념을 뭔가 하나의 형태로 기호로 표현해내는 것"[35]이라고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표현의 과정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고도의 지적 행위이다'. 철학자 김영민에 따르면 현실을 알기 위해 구체성이 불가피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필요하고, 개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추상의 단계라면서 철학의 본질적 요소로 추상을 강조한다.

> 개념은 관절이나 마디처럼 인간의 사유가 조리 있게 서게 하고, 또 깊고 먼 데까지 정확히 도달하도록 돕는다. …(중략)…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상의 단계가 요구된다. …(중략)… 구체성을 얼마간 떼어버리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철학의 본령인 셈이다. '추상적'이라는 표현에는 항상 얼마간의 오명이 붙어있긴 하지만, 오명의 근거는 오직 수행상의 부작용일 뿐이며 '추상화'는 인간의 정신이 성취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초월적 도약인 것이다.[36]

심지어 철학뿐만 아니라 순수과학의 영역에서도 '추상'은 과학적 이론화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국내 과학자 장하석은 과학사와 같은 구체적 연구에서도 이야기를 제대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추상적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근대 과학혁명의 시기에 윌리엄 톰슨(William Thomson), 앙리 르뇨(Henri Regnault)가 온도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론을 도출하고 개념을 조작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개념의 조작화, 이론의 정당화에 미치는 추상의 중요성을 설명한다.[37]

일본의 공학자이자 미스테리 작가인 모리 히로시(森博嗣)도 추상이 "사물의 본질에 주목하기, 즉 구체적인 정보를 잘라냄으로써 무엇이 본질인지를 쉽게 파악하고, 다른 것들에도 공통하는 일반적 개념을 만들어내기 쉽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38] 그는 특히 '상상'이나 '가정', '호기심' 등 인간만이 가능한 능력들도 추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상적 사고의 과정과 결과물들이 현실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추상적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객관성'이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널리 응용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추상적 사고는 자유로운 발상으로 선택지를 확대하고, 보다 적절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39]

삶을 위한 추상, 도시 건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시의 건설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을 추상화하는 각고의 노력이었다. 많은 건축가와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어떤 형태의 건축이든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집짓기는 당연히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고대 로마의 다세대주택 형식인 인술라(insula)도, 우리나라의 담양 소쇄원을 비롯한 동서양의 고택에서도 자연

에 기대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심지어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는 랜드마크((Landmark)조차도 그 지역이 살기 좋은 곳, 적어도 신의 축복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건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건축의 꿈은 결국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고양하는 도시 건설의 열망으로 확장된다.



그림 3. 고대 로마의 인술라 상상도



그림 4. 담양 소쇄원의 광풍각 전경

건축의 추상은 추상이 표현하는 개념과 철학의 차이에 따라 여러 논쟁과 융합을 촉발하면서 다채롭게 변주되었다. 19세기 말 유럽 근대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오토 바그너(Otto Wagner)를 비롯한 비엔나 학파를 중심으로 건축가들은 유토피아적 도시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20세기 초중반 건축의 역사에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는 극적인 대비로 유명하다. 인도 찬디가르(Chandigarh) 설계 등 미래형 신도시 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의 사명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사회적 혁명을 견인하는 것이라는 포부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주저인 『건축을 향하여』에서 현대산업사회와 도시화가 직면한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되는 상품처럼 주택도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실용적인 건축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40]



그림 5. 르 코르뷔지에
〈Cité Radieuse by Le Corbusier(1960)〉



그림 6.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낙수장(Fallingwater, 1935)〉

아마도 르 코르뷔지에가 주장한 현대적 기능 도시의 극단적 구현체는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일 것이다.[41] 비슷한 시기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연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 인간이 좀 더 겸손한 형태로 자연에 조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을 주창한다. 일견 서로 대비되는 듯하지만, 두 거장은 모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해답을 건축으로 추상하였고 구체적 현실의 요구를 면밀히 살폈다.

혁신의 추상 체계 한글

현실과 대상을 파악하고 개념을 구현하는 추상의 체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자 체계이다.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추상 체계는 부호화(encoding)와 해독(decoding)의 과정을 수반한다. 이때 기호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기호를 읽어내는 사람이 같이 공통적인 체계(code)를 같이 공유해야만 된다는 점에서 여러 복잡한 사회적 위계와 문제들이 발생한다. 문자라는 추상 체계를 발명하기 이전에도 인류는 그림과 같은 시각 매체를 사용하였지만, 이야기를 전승하면서 청각이나 미각 등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해 왔다.

하지만 3천여 년 전 문자를 발명하면서 인류는 문자의 해독이 가능한 집단과 이에 예속되는 집단으로 계급화된다. 동아시아의 문명권도 소수

의 한자 해독자와 다수의 비(非)해독자 간에 극복할 수 없는 비대칭이 지속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의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해 유럽 문명의 우위를 가져왔다. 대중들이 제각각의 언어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민족-국가 의식이 생겨나고, 과학혁명과 지리상의 발견을 촉진했으며, 면죄부의 보급에 대한 반발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일찍이 목판 인쇄술과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가장 고도화된 문자 체계 '정음(正音)'을 창안했음에도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지 못한 우리 역사는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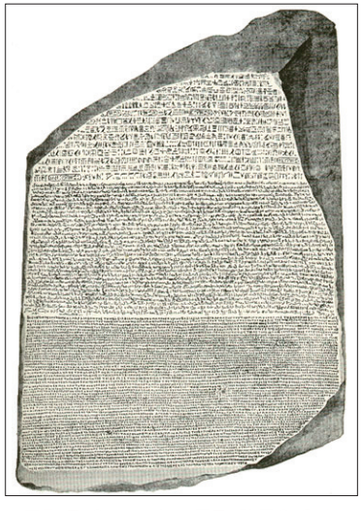


그림 7.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 '로제타 스톤'



그림 8. 중세 유럽의 '면죄부' (웨스트민스터, 1498)

한글의 우수성을 논할 때는 몇 가지 개념상의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한글'과 '한국어'의 구분이다. 당연한 차이로 여길 수 있겠지만 일상적 대화에서는 의외로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한글날 특집 기획으로 편성되는 미디어콘텐츠들에서도 '한국어의 우수성'을 자랑스레 강조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개념을 소통하는 체계로서 별다른 위계를 지니지는 않는다. 찬탄은 어

디까지나 이러한 우리말을 아름답게 추상화한 한글의 우수성에 국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로 역사적 회고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서양 인쇄술의 발달을 떠올리며 "왜 우리는 우수한 인쇄술을 먼저 발명하였고, 우수한 문자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음에도 이를 발전시키지 못했을까"라는 자조어린 물음이다. 타이포그래피 연구자 유지원은 '글자('글씨'와 '활자'를 포함한다)', '글자체계', '글자체'가 빚어내는 사회적·역사적 풍경을 짚어내는 가운데, '직지'로 대표되는 인쇄술과 '훈민정음'을 구별하여 물음에 답한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근대의 출입문으로 유럽을 이끌었던 것에 비해 우리 직지가 사회를 전환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선 기술적으로 활자를 이루는 물리적 방식이 달라 내구성이 취약했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표음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유럽 언어와는 달리 표의문자에 기반한 한자 문화권에 속했다는 점이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조선의 지배층은 정보를 독점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출판과 배포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한자는 한국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어서 인쇄술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기에는 원천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하나의 글자가 각각의 개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한자마다 대응되는 활자를 갖춘다는 것은 상공업이 미진했던 조선으로서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훈민정음 창제는 이러한 난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혁명적 추상 체계였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밝힌 해례본에는 '지식의 민주화'를 통해 근대 사회를 열고자 하는 "타이포그래피의 근대 정신"이 오롯이 드러난다.[42]

하지만 아쉽게도 조선 중기 전란과 그에 따른 사회적 고착화 속에서 훈민정음은 주류가 되지 못하고 부수적 전달체계로 간주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숭고한 노력이다. '한글 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내세울 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선어학회, 한글학회의 활동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글은 문자 체계 그 자체로도 혁신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글을 문자 체계라는 시각적 장치로 바라볼 때, 기호학에서 사용되는 "에크리튀르(écriture)", 곧 '쓰여진 언어 체계'로 볼 때도 한글은 기존의 에크리튀르와 혁신적으로 다르다.[43] 노마 히데키(野間秀樹)에 따르면 한글은 혁신을 넘어 혁명적인 에크리튀르 체계이고, 앎의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게슈탈트(Gestalt)[44]의 혁명을 이룬다. 음절 내부에 존재하는 단위를 추출해서 음소와 음절을 표현하는 한글의 독창성은 일본인인 노마 히데키도 일본의 문자 체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탄복한다.

한글은 무궁무진한 미디어적 정보 전달 효과성도 갖추고 있다. 여러 종류의 휴대전화 자판 배열 가운데 한글의 자음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는 '나랏글' 자판과 한글의 모음 제자 원리에 착안했다는 '천지인' 자판 등 저마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자 전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잘 느끼듯이 ICT 분야에서 한글의 탁월한 효용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정보를 전달해 주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 그만큼 한글이 난립하면 다른 문자들보다 더 피곤함을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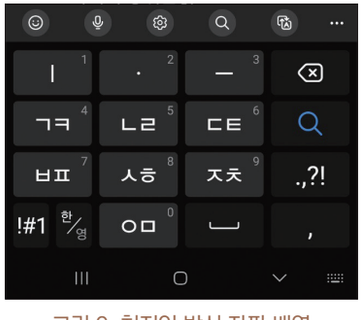


그림 9. 천지인 방식 자판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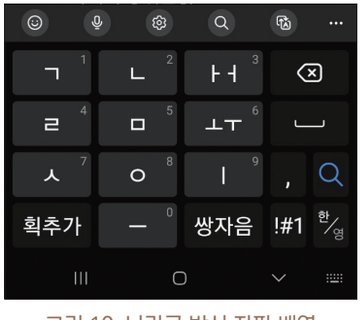


그림 10. 나랏글 방식 자판 배열

한글이 지닌 형태적 특징은 디자인 영역과 접목될 때 풍부한 가능성을 발휘한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탄생하기 전 동아시아 문명의 책들을

장식한 한자 체계에서, 책에 '쓰인' 한자들은 붓의 움직임을 상정한다. 붓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자 체계가 그려지기 때문에 붓이 오가는 선의 움직임이 결정적이며, 모든 글자와 관련된 디자인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한글이 보여주는 압축적 조합의 형태는 기존에 주류이던 붓의 형태, 붓의 선 방식에 균열을 가한다. 한글 창제 당시에 최만리가 극구 반대했던 것은 기존 체계의 무너짐에 대한 우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론적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위기의 발로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붓의 형태를 거부하는 듯이 보이던 한글은 현대 사회에서 붓선의 형태를 다시 가져온다. 일례로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궁서체는 원래 한자에서 사용되던 글꼴을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한글은 다른 형태의 문자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글 창제 과정이나 한글의 우수성을 신화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민족주의와 결부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문자의 우수성이 곧 문자 사용자들의 우수성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라 자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세계에 보편적으로 남아 있는 언어 체계 중에서 한글이 가장 최신의 문자 체계이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빌려와 유명해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경구처럼, 최신의 문자 체계였던 한글도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Phags-pa, 八思巴文字)를 비롯해 이전까지 인류가 이룩한 문자 체계를 두루 참조할 특권이 있었다는 점을 겸손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한글 창제의 과정과 결과는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문자 체계를 집대성하고 반영하여 최신의 성과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창안했다는 점에서 인류 공동의 빛나는 성취로 받아들여져야 한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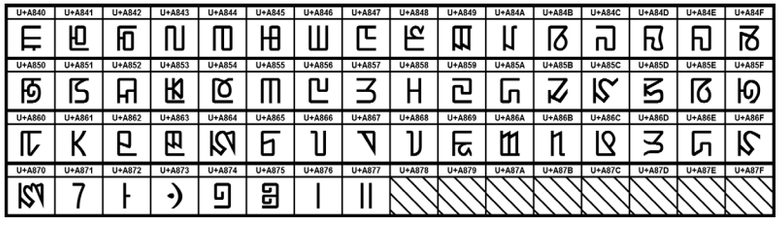


그림 11. 파스파 문자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은 현재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로 귀결된다. 이전까지 이두나 향찰도 있었고,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많은 시도를 했지만 완벽하게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의 소리를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한글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는 점에서 세종대왕의 독보적 업적인 동시에, 한글 이전의 문자 체계들을 받아들이고 집대성한 자랑스러운 포용성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의 창제 과정이 담고 있는 사회적 혁신성은 세종시가 도시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혁신성, 특질성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문자의 역사를 통괄하는 포용성, 현재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두루 통용할 수 있는 포용성, 이것이 훈민(訓民)과 정음(正音)의 가치이다. 이러한 포용적 위민(爲民), 애민(愛民), 여민(與民)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는 한글 창제의 절실한 노력은 현대 한국 사회의 극심한 지역 불평등 해결이라는 절실한 열망과 맞닿는다.

한글과 세종시를 관통하는 추상의 가치

경제학자 장하준이 극찬한 SF소설 『모털 엔진』에서는 자원이 극심히 부족한 가상의 미래 사회를 상상한다. 이 사회에서는 빌딩 형태의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극도로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를 덮치고 자원을 약탈해야 한다.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약육강식의 도시 세계는 마치 현재의 한국 사회를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수도권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지방과 군소 도시들은 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고착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어두운 전망을 미래에 드리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세종시의 건설이다.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았다.



그림 12. 소설 〈모털엔진〉의 그래픽 이미지

'행복도시(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계획 자체가 기존 한국의 어떤 도시계획보다도 더 큰 추상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이런 추상성은 다른 신도시를 만들어낼 때도 종종 담기는 특성이지만, 세종시는 신도시 하나가 아니라 수도 이전에 비등한 결과를 내려는 거대한 목적을 추상하고 있다. 세종시 도시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등장하는 '스마트시티' 등의 표현은 '행복도시'에 맞는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표현하면서 세종시가 갖는 추상성을 잘 나타낸다.

세종이라는 지역은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여겨지고 있지만, 본래 이 지역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있고, 이전의 역사적 전통도 그들과 함께 모두 세종시로 편입되었다. 세종시라는 새로운

도시 체계는 원래의 다른 도시들을 규합하여 단일화한, 매우 인위적이고 추상적인 설정 체계이다.



그림 13.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

정부는 당위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를 추상적으로 설계하고, 충남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를 끌어들여서 인위적으로 공간을 조합하였다. 도시의 기능을 상정하고 추상적으로 설계된 도시들은 흔히 다른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급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원주민과 새로이 이주한 사회 구성원 간에 정서적 공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필요해진다. 서울시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확장된 고양시나 성남시, 용인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최근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나,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되어 소위 '마창진'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창원학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 할 수 있다.[46]

세종시의 독특한 점은 이를 위해 세종대왕의 통치 이념을 가져와 '세종시'라는 도시명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도시 명칭으로 삼은 것은 세계사에서도 드문 사례로, 인물과 도시가 혼동되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인물의 이름이 도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세종시의 추상적 특성은 가장 고도화된 추상적 문자 체계인 한글의 가치와 맞닿는다. 세종의 지역 정체성을 한글로 풀어낼 수 있을까? 세종대왕의 업적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이 한글 창제이기 때문에 세종시도 한글도시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47]

세종시가 한글과 직접적인 역사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도시 정체성의 한 요소로서 세종시가 한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종시는 도시 곳곳에 한글 거리를 조성하고 아예 한글을 형상화한 건물을 건립하는가 하면 한글을 주제로 문화도시에 선정되는 등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인접한 대전에서 '과학'을 도시 정체성의 주요 요소로 설정하였지만 '과학도시'를 넘어 '과학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과제이듯, 세종시는 한글을 도시 정체성의 주요 요소로 삼아 '한글문화도시'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과학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품고 지식의 구조와 체계를 이루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한글은 제작 과정의 합리성과 수용성에 더해 심미성도 갖추고 있으며, 기호로서의 특성으로 지식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과학문화도시 대전'과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은 묘하게 연결된다. 물론 두 도시의 정체성에는 유사점과 함께 분명한 차이도 존재한다. 대전에서는 '1993 대전엑스포'의 기억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반면 아직 세종에서는 한글 관련 행사를 매개로 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과학문화는 교육·생활·여가의 세 영역을 아우를 수 있지만, 한글문화는 교육(지식전달, 지식표현, 기록)과 놀이(예술표현, 관광자원) 두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직 문화의 치유력이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

정책 추진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새로이 조성된 세종시의 현재 도시 규모와 추상적 개념으로 도시를 설계한 특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하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한글이 지닌 형태적 독특함과 디자인의 확장성을 도시의 특성으로 부각하고, 도시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 과정이 보여주는, 한글이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혁신적 가치를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에 녹여내려는 굳은 의지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의 지역학 연구에서 한글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추상 도시'로 불리는 데 손색이 없는 세종시의 특징은 향후 정교한 모델링을 거친다면 도시의 여러 형태와 속성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방식의 전례가 될 수 있다. 추상도시로서 세종시의 특성은 여러 현안과 사회문제가 엉켜있는 다른 도시의 미래에 대해 대안적 분석 틀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추상 도시의 함정

그러나 추상도시라는 명제에 매몰되는 것은 한편으로 위험성을 내포한다. 현실적 융통성과 거리가 먼 탓에 복잡하게 발생하는 도시문제들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48] 추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숙제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가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추상하다 보니 20km/h 속도제한도 빈번하고, 비상시 주·정차도 힘들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이 그 한 사례이다. 또한 행복도시 지역에는 현대식 빌딩과 고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반면, 주거 용도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빌라 등의 비율이 낮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골목을 찾기 어렵다. '수직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서 이는 직장의 이동성이 높은

청년세대의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 작용한다.[49]

신도시를 건설할 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야심차게 설계했어도 미국 네바다주와 같이 결국은 난개발로 이어지는 스프롤 현상(Urban Sprawl)이 나타나는가 하면, 새로운 도시가 탄생할 때마다 결국 아파트단지로 점철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되기도 한다.[50] 현대 도시에서 유행하는 고층 모듈 구조는 "상자들의 도시"라는 표현처럼 천편일률적인 도시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한다.[51]



그림 14. 미국 콜로라도 주 외곽의 스프롤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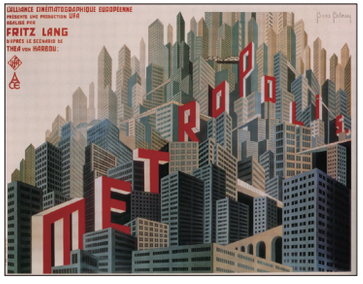


그림 15. 프리츠 랑의 영화 〈메트로폴리스〉 포스터

이미 백 년 전에 프리츠 랑(Fritz Lang)의 영화 〈메트로폴리스(1927)〉에서는 추상도시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한 바 있다. 하이테크 양식의 고층 건물을 비롯해 현대 도시에서 자랑하는 건축물들에 대해 현대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정크스페이스(Junk Space)"로 치부하며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 정크스페이스는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인류의 절반은 생산으로 오염되고, 나머지 절반은 소비로 오염된다. 제3세계의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버스, 공장,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오염물질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정크스페이스가 생산해내는 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크스페이스는 정치적이다. 그것은 안락과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비판적 능력을 제거함으로써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52]

최근 도시간 경쟁력이 중요시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표방하는 도시 계획들에는 '첨단 도시' '스마트도시' '압축도시' '친환경 도시' '15분 도시' 같은 현란한 수사들이 넘친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들은 풍요로운 삶이라는 목적을 추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는 특히 도시 미래상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많고 추상적 용어들이 집약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구체적 현실과 유리되는 공허한 수사는 효용을 잃는다. 아름다운 추상이 현실적 돌발변수에 부딪혀 무기력해지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세종시가 수평적인 도시, 효율성 높은 편리한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를 지향하면서 정부세종청사는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53] 항간에서는 15개 동이 거대하게 이어진 건물 옥상에서 단축마라톤 경기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렸다. 하지만 어느 시민이 정부청사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하자 오히려 보안이 강화되고 시민의 건물 통행은 제약되었다. 세종시가 한글 도시라는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금강보행교에 '이응다리'라는 별칭을 붙였지만 뭔가 어색하고, 한글 도시답게 아파트단지마다 '○○마을'이라 명명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세종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는 각 단지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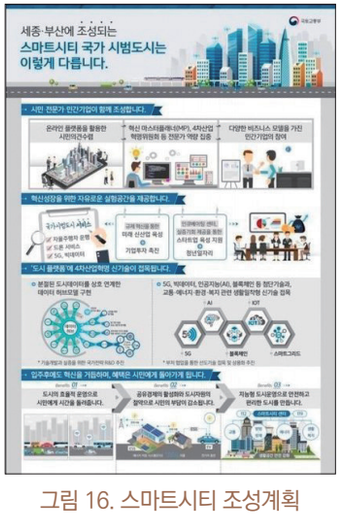


그림 16.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그림 17. 정부세종청사 조감도



그림 18. 세종시 경관 관리방안: 대중교통중심도로

구체적 현실을 잊지 않는 추상 도시 세종을 위하여

그렇다면 세종시가 추상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일까? 구체적 방안에 앞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또는 살고 싶은) 사람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추상을 현실로 구현하려는 확고한 철학이 우선이다. 추상화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현실의 구체성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문제, 커뮤니티 활성화가 해법이다.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Eric Klinenberg)는 언뜻 사소해 보이는 도시 공간 내의 물리적 설계가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유대를 만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여러 흥미로운 사례연구를 통해 보여준다. 추상적이고 숭고한 가치 기준에 따라 도시를 설계하더라도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편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는 도시 인프라들도 있다. 클라이넨버그가 중요성을 줄곧 일깨우는 핵심 인프라는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마을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슬럼가는 범죄율이 급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체의 회복력도 높아졌다. 사회적 자본을 싹틔우고 성장시키는 사회적 인프라들은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비록 이런 장소들이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도서관처럼 사람들이 꾸준히 모이고 교류하는 매개체가 생기면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높아진다.[54]

국내에서도 세종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에서 최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카페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외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커뮤니티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흔쾌히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개개인의 수험공부를 위한 '칸막이 공공독서실'의 형태는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서관을 매개로 함께 모이고 함께 배우며 불평등과 고립을 넘는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도서관이 '이스라엘식 떠드는 도서관'[55]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서관만이 모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에코뮤지엄'이든[56] 공공도서관이든 지역 구성원의 연결망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공공 인프라 조성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국내 용인시의 사립공공도서관을 표방하는 〈느티나무 도서관〉은 지역공동체 소통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모범적 모델로 꼽힌다.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주요 장소로 기능하기 위하여 도서 대출 서비스를 지양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강제하지 않는다. 독서동아리와 메이커스, 마을포럼 활동까지 진행한다, "경쟁적인 입시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등의 구호가 담긴 서비스 헌장은 이 도서관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도시 자체가 지역 구성원의 일상 속 커뮤니티 거점이라는 관점은 미디어로서의 도시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57] 도시는 지역 주민 간의 미디어, 지역 주민과 환경조건 간의 미디어 역할을 하고 따뜻한 생명력이 숨 쉬는, 흐르고 스며 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58]

미래지향적 도시 세종시는 특히나 이러한 정책적 인식이 시급하다. 세종시에 대해 '재미 없는 도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도시'라는 표현을 흔히 들을 수 있다.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대도시가 급증하던 때,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외형적 도시계획에만 집중해 신도시를 만들어봐야 결국에는 그냥 무미건조하고 황폐화될 뿐이라고 비판한다.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은 도시가 작동하는 내용에 주목하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두고 다양한 용도가 자연스럽게 혼합되도록 인내하면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도록 해야 한다. 그냥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한다고 도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도시는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성과 쇠락을 반복하는 유기체와 같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59]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의 도발적 문제 제기도 들어보자, 우리는 흔히 도시의 문제들에 집착해 부정적 측면만을 바라보고 도시를 탈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다. 하지만 빈곤과 불결, 범죄, 반환경적인 듯이 보이는 여러 도시 문제들도 도시를 이루는 한 축이고, 도시의 발전을 향하도록 하는 역설적 요소들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60] 물론 모두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세종시로서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 너무 반듯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계획된 추상성이 경화(硬化)되지 않도록, 도시에는 사람들이 흘러야 한다. 자연스럽게 즐거운 도시가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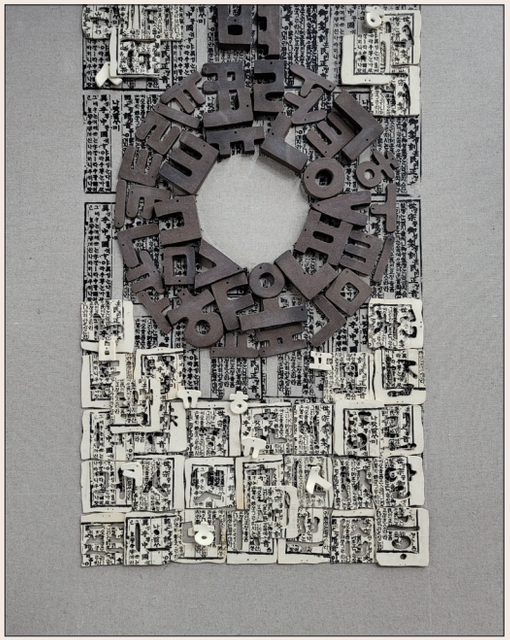
세종시라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구성원과 잠재적 구성원에게 개방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형적 미래도시만의 공허한 '교환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의 구체성에 기반한 '사용가치'를 단단히 견지해야 한다.[61] 함께 살아가는 사회, 다양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도시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개방성과 다중성에 기초한 '도시 만들기의 연대'를 향하는 도시의 윤리가 필요하다.[62]

문자 그대로의 '행복도시'를 실현하고 '미래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단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거리에 한글 조형물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시가 도시의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철학을 보여줄 때, 이는 곧 한글의 혁신성과 위민 정신을 구현하는 '추상도시 세종'의 본질에 다가갈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진정한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지역 작가 작품②

유경자

40여년간 도자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적형태의 도자 및 도자로 만든 조형물과 설치, 도자회화 등 매체를 통한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16번의 개인전과 400여회에 그룹전을 하였으며 제12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과 대전미술공로상을 수상하였고 2009.지학사 국정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었다.또한 세종시주관의 한글문화 특별기획전에 최고점을 받았으며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선정작가가 되어 12월 학고재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ㆁ: 사라진 별〉, 2025

소리 없는 자음이자, 한글의 시작과 끝에 존재하는 공(空)의 자음 옛이응(ㆁ).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빛나는 존재로 남아 있는 옛이응을 이 작품은 별로 시각화하여 표현했다. 이와 함께 한글 고서체를 전시하여 표현함으로써 조형적 언어의 역사성과 우리 인간의 기억, 존재 등을 연결했다.



〈한글, 빛으로〉, 2022

본 작업은 한글의 독창성과 조형적 아름다움을 도자기 매체를 통해 시각화한 설치 작품이다. 한글이 지닌 구조적 미감과 고유한 리듬을 형태와 질감으로 풀어내어, 우리 문자 고유의 가치가 세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도자기라는 물성이 지닌 시간성과 깊이를 바탕으로, 한글이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움직임과 가능성을 공간 안에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III

‘한글’이라는 옷을 입은 세종시

이재민(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센터장)

'한글'이라는 옷을 입은 세종시

이 재 민 |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센터장

세종시, 한글을 입는다고?

세종시가 처음에 한글을 활용하여 도시 정체성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의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세종시가 그간 언급했던 '행정수도', '스마트시티' 등 행정적·기술적 용어가 아닌 우리 역사의 찬란한 무형 유산이자 문자 체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물음표가 뒤따랐을 것이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여주, 외솔 최현배 선생의 서사를 활용한 울산과 비교했을 때 세종시는 한글을 상징할 수 있는 자원이 크게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갸우뚱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가 한글을 기념하고, 사랑하며, 이를 활용한 문화도시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많은 이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세종시가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활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스마트시티 등은 국가 단위에서의 행정적인 소임이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키워드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한글을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쌓고,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점은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더욱 여유롭고 심리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세종시는 2030년을 목표로 현재에도 건설 중인 도시라는 점에서 도시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기에 이 같은 과정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세종시가 지역 차원에서 한글이라는 우리의 문자 체계이자 역사 유산을 입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세종시가 한글이라는 옷을 입기 위한 당위성은 무엇이며, 이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시가 한글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엮어가고, 연계해 가면서 옷으로 만드는지, 문화콘텐츠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시도는 세종시가 한글을 활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글문화 도시가 가져야 할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있다.

지역이 입는 다양한 빛깔의 '옷'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역'은 단순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빛깔의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지역은 다양한 빛깔을 내뿜는 옷을 입고, 지역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삶을 즐기고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우리의 시도는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구현하고,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63]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개념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 형태의 거주 공간과 '농·산·어촌'의 형태를 더욱 공고화한 우리의 전통사회가 분리되면서 등장했다. 산업화 이후 도시 공간은 회색빛 아파트가 가득한 주거 양식으로 재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가 함의했던 문화적 특수성이 점차 옅어져 획일화된 아파트 및 빌딩 경관을 발생시켰다. 한편 농·산·어촌 형태의 전통사회는 지속되는 인구 유출로 인해 빈집이 등장했고, 공장이 무절제하게 유입됨으로써 불량한 경관이 조성되었다. 이를 통해 전통사회는 공허함·쓸쓸함이 가득한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산업화 이후 20세기 후반 세계화·국제화라는 말이 등장하였고, 교통·통신 기술의 지속적 발전은 스마트 기술 산업의 핵심이 되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이처럼 스마트 기술의 역량은 세계의 지역을 더욱 촘촘히 연결하였고, 이러한 연결망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초연결사회를 구현하였다. 초연결사회는 세상 만물이 촘촘히 연결되어 긴밀히 소통하는 사회를 일컬으며, 사물과 사람이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사회를 이른다.[64] 이처럼 초연결사회의 등장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윤택함·편리함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 권력에 의해 중소도시가 잠식되는 결과 또한 나타났다. 즉 지역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은 점차 옅어지고, 많은 도시가 비슷한 경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국제화의 폭풍 속에서 등장한 초연결사회는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적 획일화·몰개성화를 양산하였고, 모든 지역이 똑같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졌으며, 지방이 소멸한다는 주장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그의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일본 내 896개 지역이 사라진다고 언급하였고, 출생률이 낮은 도쿄를 중심으로 극점사회가 형성되어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65] 이 보고서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던 우리나라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로 202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고, 그의 이론이 실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지역이 함의하는 문화적 특수성, 즉 최근 지역이 입는 다양한 빛깔의 '옷'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옷'은 단순히 지역이 가진 자원이 아니라, 여기에 창의적 가공을 거친 문화콘텐츠를 가리킨다. 이처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실용적인 가치와 의미를 포함

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자긍심·만족감·소속감 등 심리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고, 장소마케팅과 같은 기법을 통해 도시 브랜딩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콘텐츠를 담는 그릇, '지역'

요즘 어딜 가더라도 콘텐츠 세상이다. '내용물' 또는 '알맹이'를 의미하는 이 말은 사실 영어식 표현으로는 틀린 표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2002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족하면서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상황에서 먼저 문화콘텐츠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과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콘텐츠는 1990년대 후반 제조업의 위기와 함께 서비스 산업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 등장하여 주목받게 되었다. 1999년 한류가 등장하고, 확산하면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문화가 국가 기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학계에서의 반응 또한 흥미롭다. 1990년대 후반 문학·사학·철학을 이르러, 이른바 '문사철' 학문은 대중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기민함과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인문학의 위기가 현실이 될 즈음 인문 가치에 기반한 '콘텐츠'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인식되면서 '문화콘텐츠학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는 문화콘텐츠 학과가 만들어지고, 학계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모임인 학회가 구성되면서 이와 관련한 개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화콘텐츠가 무엇이냐에 관한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간의 논의를 통해 이는 이야기를 가공하고, 매체와 결합한 결과물[66]이라는 정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로 미루어볼 때, 지역의 문화콘텐츠, 즉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의 이야기를 가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이야기를 가공해 낸

콘텐츠를 지역문화콘텐츠로 간주했을 때, 이는 지역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콘텐츠를 하나의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은 '지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를 담는 그릇으로써 '지역'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함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은 우리 삶의 터로서, 주민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이들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 소멸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콘텐츠, '지역'을 만나는 방법

콘텐츠, 사실 영역이 매우 넓고 광범위하다. 대중문화·문화예술·디지털기술 등의 복합적인 분야에서부터 출판·광고·관광·교육 등 우리의 일상 자체가 콘텐츠로 여겨질 정도로 그 범위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콘텐츠로 여겨지고 있지만,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 '지역'일 경우에는 두 가지의 양태, 즉 '재현'과 '창조'라는 방법을 통해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재현과 창조는 문화자원을 가공하는 범위를 이르며, 이는 스토리텔링의 적용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재현'의 양상은 과거 지역이 가진 자원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즉 지역 내 역사를 머금고 있는 자원을 기반하지만, 이의 현대적이며 창의적인 기법의 적용을 통해 자원이 가진 이야기를 조금 더 친근하면서도 혁신적인 내용으로 생성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창조'의 양상은 지역이 가진 이야기에 기반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을 이른다. 즉 이 과정은 지역의 기획자와 주민이 새로운 문화적 소재를 적용하고, 이들의 소통과 수용력에 구현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 내 역사 문화자원이 산재한 경우 '재현'의 양상으로 콘텐츠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 안동, 공주, 경주 등은 지역에 기반한 유·불교의 문화 자산, 놀이·의례 등 무형 문화 자산, 많은 한옥과 재실 등 유무형의 역사 자산이 즐비하다. 즉 이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되, ICT 등 디지털 기술 및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법 등을 적용해서 구현해 낸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현'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현대적이며 창의적 기법이 적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창조'의 과정은 지역 내 역사 문화자원이 부족한 경우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지역이 역사에 기반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옥천, 홍성, 칠곡, 진안, 완주 등은 공동체 활동의 선진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도시로서 이 도시에서는 주민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성을 그려내고 있는 지역이다. 이 도시가 그리고 있는 공동체성은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로 나아가면서, 이와 결합한 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창조의 과정은 지역 축제에서 잘 나타난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언급되고 있는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지역의 자원과 무관한 축제다. 함평에서는 나비가 주요한 자원이 아니며, 화천의 산천어 또한 마찬가지다. 즉 축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창조했던 대표 사례다.

한글로 수놓는 세종

이처럼 지역에서 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흥미롭지만, 매우 어렵다. 다양한 과정을 통해 콘텐츠가 구현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의 심리적 공감이 결여된 경우에는 도태되며,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한국 사회에서의 대부분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이 머금는 전통 문화유산, 생업의 자원, 저명한 출신 인물, 입지 특성 등을 활용하여 '재현'의 과정을 통해 구현되고 있지만, 사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67]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 양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을 주목할 수 있겠다. 특히 세종시처럼 새롭게 조성되는 신생 도시의 경우에는 '재현'의 과정보다는 '창조'의 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한글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콘텐츠를 창조하고자 하는 시도를 톺아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세종시가 한글을 왜 활용하고,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세종'이라는 단어가 이 지역의 이름으로 부여되는 순간 한글을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관한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처럼 이름 부르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세종시가 한글이라는 옷을 입는 과정을 총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첫째, 도시 지명이 세종으로 부여되면서 과거 연기군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 자원에 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는 단초를 마련한 시기를 '세종시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한글의 인식' 단계로 분류하고자 한다. 둘째, 한글 문화도시로서 추진 주체를 조직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를 '한글 브랜딩을 위한 체계화' 단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셋째,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면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구현하는 과정을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를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기반 강화' 단계로 명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 세종시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한글의 인식

충청남도 연기군(청원군 부용면 일부,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 일부 포함)으로 불리었던 지역은 2012년부터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이 지역은 '세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순간부터 세종대왕과 그의 업적에 관한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명은 주로 단순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역사·생태·생업 등을 함의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때로는 이를 넘어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권력관계를 재현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이다.[68] 이처럼 어떤 지역의 지명을 부여하여 부르는 호명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고 불리는 대상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69] 특히 지명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이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70]

2012년 이후 이 지역은 '세종'으로 불리고 있지만, 과거에는 연기·공주·청원 등으로 불리면서 그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름으로서 '세종'이 부여되었다. '세종'은 역사 속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의 묘호(廟號)를 의미하며, '세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순간부터 이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문화콘텐츠로서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먼저 이 지역이 '세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도시명칭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명칭 2,163개의 명칭 중에서 20개를 추렸다.[71] 이 중에서 국민의 선호도를 이해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 '한울·금강·세종'이라는 명칭이 상위 후보로 선정되었다.[72] 이후 2차 선호도를 진행하였는데, 이 결과 '한울'이 1위(47.6%), '금강'이 2위(29.4%), '세종'이 3위(23.0%)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통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울의 '한'은 고유어로러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울'을 울타리라는 뜻에서 마을·도시를 가리킨다는 의미로, '한울'이라고 했을 때 서울과 대비되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었고, 더욱이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었다. 그러나 알파벳 표기 시 스페인 등 라틴계 언어권에서 'H' 발음이 두음으로 나올 때, 발음이 어렵다는 언어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한울'은 사전적 의미로 천도교의 본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특정 종교를 연상시켜 지명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충청의 젖줄이자 대표적인 자연 자원인 '금강'이 2등을 차지하였다. 금강은 특정 종교를 가리키지도 않고, 외래어로서 발음도 어렵지 않았으며, 충청의 지역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지명을 가리킬 때 이름만 쓰는 경우가 많다. 가령 '나는 대전에 간다'라고 하지, '대전시'에 간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금강이라고 했을 때, 금강에 갔다 온다고 한다면 지시적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은 서천·청주·부여·세종을 아우르는 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이 선택되었으며, 이 시기가 새로운 도시의 이름으로서 세종이라는 지명이 부여되는 순간이다. 새로운 도시 지명으로서 '세종'은 외국인들 누구나 부르기 쉽고, 쓰기도 좋으며, 누구에게나 친근한 용어이다. 더욱이 '세종'은 우리나라 제일 성군의 묘호에서 연유하며, 한문으로도 '世宗'이라고 표기가 가능하고, 영어 발음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이름이라는 장점이 있다.[73] 따라서 위원회는 후보 명칭 3개 중 장단점에 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모에서 '세종'을 제안한 30명의 제안서 가운데 내용이 가장 우수한 장효정 씨(청주)가 1등 상을 받았다.

〈참고자료 4〉 최우수작 도시명칭 제안서

(제안자 : 장효정, 충북대, 22세)

도 시 명 칭	세종(世宗)도시	접수번호	1538
제 안 배 경	세종대왕의 치적은 우리민족의 역대 지도자 중에서 최고라고 손꼽히고 있으며 세종대왕을 떠올리면 자연히 조선을 떠올리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도시적인 이미지가 아닌 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영토확장과 국력신장으로 대외로 뻗어나가는 이미지와 안전성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며 한글 창제, 과학 진흥, 음악 정리 등으로 문화와 첨단 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전과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조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종도시를 제안하게 되었다.		

◇ 지리적 특성
충남 연기 · 공주는 국토의 '중심' 에 있다. 왕 자체가 한 나라의 '중심' 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산은 왕의 왕관의 이미지와도 비슷하다.

◇ 역사성
세종대왕이 연기군 전의면의 '전의초수' 를 드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연기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왕의 물 축제' 를 열었다. 공주시 장기면에는 세종 대 4군 6진을 개척한 김종서의 무덤이 있다.

◇ 상징성
세종대왕 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의 현재의 영토를 구축했다.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독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세종대왕 하면 한반도 전체를 떠올리게 되며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변혁과 발전을 떠올리게 된다.

◇ 대중성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친근하다.

◇ 국제성
한자문화권에서 '世宗' 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세상의 으뜸 도시라고 해석 된다. 유네스코의 세종대왕상이나 한글의 우수성으로 국제적으로 세종대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 도시특성
백성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같이 내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함을 드날리는 도시를 의미한다.

※ 200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그림 19. 최우수작 도시명칭 제안서

사실 과거의 연기군은 놀랍게도 세종대왕과 기이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 내 이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와 유적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전의면에 소재한 전의초수는 처음으로 세종대왕의 눈병을 고친 '왕의 물'로서 이는 세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세종은 피부병, 비만, 당뇨, 안질(눈병) 등의 병을 얻을 만큼 건강하지는 못했으나, 특히 책 보기를 좋아하는 세종의 기질상 유독 눈병, 즉 안질에 괴로워했다. 이에 세종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온천수로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더욱 심화하기만 하였다. 그

런데 세종지역의 전의면에 효험이 나 있는 초수(椒水)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종은 이 물을 떠서 서울로 가져오고자 했다. 자신이 직접 행차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었으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의 고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에 세종은 이 물을 서울로 떠 오게 하였고, 이 물을 마시며, 세수를 하니 눈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세종시 전의면에서는 매년 가을 '왕의 물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4일 신해 2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김조(金銚)와 경기 정역찰방(京畿程驛察訪) 이백견(李伯堅)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가는 내섬시윤(內贍寺尹) 김흔지(金佷之)의 말을 듣고, 이어 그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을 살펴본 뒤에 초수(椒水)를 올려보내는 일을 흔지(佷之)와 함께 곡진(曲盡)하게 조처하라.

1. 전의(全義)의 초수(椒水)는 각 역의 잘 달리는 말 두 필씩을 선택하여 초수를 실어 보내는 일에 전용(專用)하고 다른 일에 쓰지 말 것.
1. 초수에는 부지런하고 근신하며 사리를 알 만한 자 2인을 선택하여 감고(監考)로 정하고, 몸이 건장(健壯)한 자 3인을 선정(選定)하여 칭호를 압직(押直)이라고 하고, 매일 감고 1인과 압직 1인이 윤번(輪番)으로 지키게 하되, 관(官)에서 아침저녁의 식사를 제공할 것.
1. 연도(沿途)의 각 역에서는 초수(椒水)를 압직(押直)하고 운송하는 자 3인을 선정할 것.
1. 전항(前項)의 초수를 운송할 때에 각 역에서는 말 두 필과 압직(押直) 3인이 윤차로 입직하고, 서로 휴식하면서 차례로 돌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
1. 전의의 초수는 입번(入番)한 감고가 매일 해질녘에 초수를 사기그릇에 넣고 기운이 새지 않도록 하여 봉함하고 서명(署名)한 뒤에, 그때의 시각과 이를 실은 역마의 이름을 적어서 압직인에게주고, 압직인은 다음 역의 압직인에게 전한다. 이렇게 급히 체송(遞送)하여 하룻밤 사이에 서울에 도착하여 바치게 하라. 만일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찰방과 역승(驛丞)을 그때 즉시 처벌할 것.
1. 초수 운송을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찰방·역승등을 경솔하게 검거하지 말 것.
1. 지금 보내는 사복시(司僕寺)의 말 여덟 필은 각 역의 빈한(貧寒)한 역자(驛子)에게 나누어 주어 초수를 운송하게 하라." 하였다.[74]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0. 전의면 왕의 물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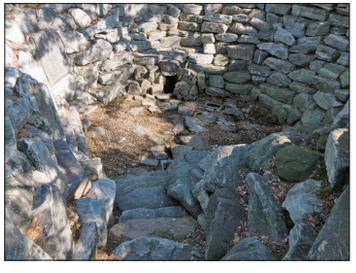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1. 전의 왕의물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2. 전의면 관정리 전의초수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3. 전의면 관정리 전의초수 내부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4. 전의시장 주변 벽화(1)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5. 전의시장 주변 벽화(2)

두 번째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고려말 장수 임난수(林蘭秀)를 대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이다. 임난수는 원래 문신이지만, 고려말 탐라 정벌 때 세운 공으로 인해 장군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원명 교체기 새롭게 들어온 명나

라는 고려와 화약(和約)을 체결하면서 제주도의 말 300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의 목호들은 반발하여 주민 300여 명을 살해하는 등 난을 일으켰으며, 이에 고려의 조정은 최영을 사령관으로 하고, 임난수를 비장(裨將)으로 하는 군대를 출정시켜 이들을 소탕하였다. 임난수는 이 전투에서 왼팔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적을 소탕하는 용맹함을 보였으며,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조선이 건국된 후, '신하로서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면서 조선에 충성하지 않고 과거의 연기군 양화리(오늘날 세종시 세종동)로 낙향하여 연기군 부안 임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대나무처럼 꼿꼿한 그의 절의를 기특하게 여겨 불천위를 하사함으로써 그를 치하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세종대왕과 동갑내기이자, 정종의 10번째 아들인 덕천군 이후생의 인생이다. 덕천군은 금강변 삼기촌에 머무를 당시 백성들에게는 소탈하여 많은 인기가 있었으며, 그들의 고민을 청취하고 굶주림까지 해결하는 등 백성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고민했던 왕자다. 그의 군호인 덕천군도 '덕'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덕성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그를 제향하는 덕천군 사우는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하며,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문화재자료 제6호로 지정되었다. 본래 연기군 방축리에 있었으나, 1739년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며, 이후생의 묘소 또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서문 밖에 있었던 것을 1974년 현재 사당이 있는 문중 묘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후생의 모든 것들이 세종시 안에 잠들게 되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6. 덕천군 사우 전경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7. 덕천군 사우

네 번째 이야기로는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대표적인 신하들인 박팽년, 성삼문, 김종서의 흔적을 들 수 있다. 사실 세종시에 이 세 사람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야기 또는 유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다. 박팽년이 세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조부인 박안생의 묘소를 세종시 전동면에 쓰게 되면서인데, 박팽년이 여묘살이를 했다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할아버지가 전의면에 잠들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성삼문은 그의 사당이 금남면 달전리에 있으며, 이는 2012년 12월 세종시 문화재자료 1호로 지정되었다. 사당이 위치한 달전마을은 창녕성씨 집성촌으로 성삼문의 당숙인 성희가 자리 잡은 곳으로, 성삼문의 신주를 홍성에서 옮겨와 매년 6월 7일 밤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종서는 현재 세종시 장군면에 묻혀있다. 그의 묘에 시신이 온전히 매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김종서의 애마가 장군의 다리 한쪽을 물고 고향까지 달렸다는 설, 장군의 시신 대신 의복을 묻었다는 설 등이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장군묘역의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사 테마 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이외에도 세종대왕 재임 시 궤장(机杖)과 어필을 받은 효자 이정간의 이야기가 세종시 금남면에 피어나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8. 박안생 묘소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29. 문절사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30. 김종서 장군 묘역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와 유적들은 이 지역이 '세종'이라고 불리는 순간, 새롭게 인식되는 문화적 소재이며,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 콘텐츠가 창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 '세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세종시는 문화콘텐츠의 문화적 소재로서 세종대왕 및 주변 인물의 삶과 이야기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세종시의 주민자치 기구인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인 '한글'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콘텐츠를 구현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행정기관에서는 논의하여 이를 수용하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자발성에서 기인한 문화 정책적인 움직임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 한글 브랜딩을 위한 체계화

세종시는 도시 지명으로서 '세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레 세종대왕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의 최대 업적인 '한글'을 활용하고자 하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 즉 이를 통해 '한글'이라는 자원에 관한 인식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 단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구성하면서 행정적인 시스템을 정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에서는 2014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개정을 통해 제도적 조건을 완비하였다. 이 조례는 목적(1조)에서부터 시장의 책무(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5조), 그리고 자문위원회라 할 수 있는 한글사랑위원회(5조의3) 등과 함께 한글날 기념행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세종시는 한글사랑도시라는 문화콘텐츠를 안정적인 체계 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규범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행정의 뼈대를 구축하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한글사랑도시를 조성하고 한글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3. “한글사랑도시”란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한글 사랑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중 1조, 3조》

세종시는 한글사랑 지원조례 외에 다양한 분야의 조례에서도 한글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 축제의 이름을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 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시각 장애인에게도 한글에 관한 인식 확산을 기대하고자 하였다.

제3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 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한글사용 원칙)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이름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외국 문자로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념행사) 시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 · 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다음으로 세종시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을 위한 전담 조직인 ‘한글진흥담당’을 신설하였다. 이 담당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에 속해 있었으며, 한글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당시 한글진흥담당에서는 한글도시로서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과 『한글사랑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 연구에서는 5개년 계획 로드맵 수립을 위한 핵심가치와 비전, 목표와 추진방향·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 도시 세종’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지역 자원의 활용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류와 소통, 시민 중심의 한글사랑 도시의 조성을 기본가치로 설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글 진흥 사업은 2023년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다시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다가, 2025년 3월 한글문화도시과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한글문화도시과는 한글과 관련한 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면서 한글문화정책팀·한글문화진흥팀·한글문화기반팀으로 구성하였다. '한글문화정책팀'은 국립 한글문화 글로벌센터 추진과 한글사랑 5개년 계획 등 중장기적인 뼈대 구축을 담당하며, '한글문화진흥팀'은 국제 한글 비엔날레와 한글문화 특별기획전,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 시민 소통을 담보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한글문화기반팀'은 한글을 활용한 상징물로서 한글사랑거리 및 한글 놀이터 등의 조성을 담당한다. 더욱이 세종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이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도 '한글문화도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한글문화라는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세종'이라는 지명을 통해 한글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생겨났고, 세종시는 이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세종시는 한글을 활용한 문화예술 및 공간형 등 콘텐츠를 구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글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쌓아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콘텐츠의 생산을 통해 보다 쉽게 한글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종시는 한글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을 쌓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세종시는 지역문화콘텐츠로서 한글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건축물 및 테마 거리 등 공간형 콘텐츠를 조성하고, 메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시민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한글의 심미적 가치를 활용한 건축물 및 테마 거리 등과 같은 공간형 콘텐츠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형 콘텐츠는 공간을 통해 혹은 공간 속에서의 향유 및 교류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이 다양한 내용물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하는 콘텐츠를 가리킨다.[75] 세종시에서는 한글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한글의 상징을 활용하여 건축물 및 테마 거리 등의 공간형 콘텐츠를 조성하고 있다. 즉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청 등 공공기관 건축물의 디자인으로서 한글을 활용하여 구현함으로써 한글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세종의 자음 'ㅅ, ㅈ'을 형상화하여 건축물로 구현하였으며, 보람동 광역복지센터는 외부 벽면에 한글의 자음을 벽면에 나열함으로써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세종시청 야외주차장도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과 함께 '훈민정음'의 일부 내용을 보도블록·벤치 등에 디자인으로 적용함으로써 한글을 활용한 공간형 콘텐츠를 구현하고 있다.



그림 31. 보람동 광역복지지원센터



그림 32. 세종시청 전정 내 보도블록

그리고 2023년 세종시는 한솔동 훈민길·정음길에 한글의 이야기를 적용한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하였다. 최근 지역의 마을·거리(골목)·시장과 같은 일상 공간이 다양한 정책적 실천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단순히 시민들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공간 스토리텔링 기법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76] 한글을 활용한 테마 거리인 한글사랑거리도 한솔동 훈민길·정음길의 공간에 한글이라는 스토리를 더해 구현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세종글꽃체를 활용하여 간판을 정비하고 조형물을 조성하는 등 '한글'이라는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이미 2021년 정책연구를 통해 이 거리의 비전과 방향 등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글사랑거리의 비전을 '세종시 문화플랫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 구현의 단초'로 삼고자 하였다. 즉 한글사랑거리의 조성은 세종시의 문화적 정체성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솔동 내 훈민길·정음길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세종시에 펼쳐진 세종대왕의 흔적과 자원을 이야기 소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글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안하였다.[77] 한글사랑거리 내 상점에는 한글 사랑 간판으로 교체하였으며, 조형물과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에게는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다.



그림 33. 한글사랑거리



그림 34. 한글사랑거리 내 상징물

다음으로 금강이 흘러가는 세종시청 부근에 큰 원형 다리가 있다. 한글의 이응을 닮았다고 하여 '이응다리'라 하는 이 다리는 폭 12~30m, 연장 1,65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국내 최초 복층 일면 강관트러스트 교로 건설되었다. 이 다리는 독창적인 교량 디자인으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 여가 공간으로서 기능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더욱이 이응다리는 2023년 로컬 100, 밤밤곡곡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세종시가 개최한 '세종빛축제'의 무대가 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응다리의 모습은 세종시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상징하여 새로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세종시청 4층에는 한글 – 시민 – 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가 있다. 2021년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종시는 시청 4층에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를 조성하였다. 이곳은 한글 자료 전시 공간, 한글문화 향유 공간, 출판문화 체험 공간을 갖춘 한글과 책 중심의 복합여가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는 다양한 공론장 등의 행사를 이곳에서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편하게 한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35. 이응다리 야경(1)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36. 이응다리 야경(2)

다음으로 세종시는 세종축제와 같은 시 단위 메가 이벤트에서 한글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세종축제는 매년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글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개최하는 세종시의 대표 축제로서 매년 10월 9일 한글날부터 3일간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축제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플래시몹에서부터 다양한 예술 공연까지 한글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시민 인식 강화를 기대하고자 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37. 세종축제 (1)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그림 38. 세종축제 (2)

한글을 활용한 문화예술은 축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 지역의 예술가들은 한글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통한 결과물을 생산하였다. 한글을 활용한 뮤지컬, 합창 등 공연에서부터 세종시 지역 작가들의 전시 콘텐츠를 비롯하여 한글박물관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예술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에게 한글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는 그간 한글과 관련한 예술적 실천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1. 세종시 관내 한글 관련 예술 행사(2018-2024)

공연	2018	뮤지컬「한글꽃내리고」
	2020	기획공연「세종대왕이 꿈꾸던 여민락」
	2021	기획공연「별 헤는 밤 빼앗긴 들에서 꽃처럼 침묵을 깨다」
	2022	뮤지컬「세종, 1446」
	2023	창작오페라「나랏말ᄊᆞ미」
		국립합창단「훈민정음」
전시	2019	「문자예술」
	2021	「한글 꽃이 피었습니다」
		「한글, 점으로부터의 빛」
		「세종대왕과 음악, 여민락」
	2022	「우리글 온누리를 비추다」
		「우리글과 함께하는 세계문자서예전」
	2023	「읽을 수 있는 그림」- 개인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성삼문 문화예술 집현전 깃발축제」-한시문집 한글번안 전시
		「K, 이륙하다」- 그룹 기획전
		「훈민정음 기림 시 새김전」- 626돌 기념
		「뜻 밖의 한글」- 재단 한글 기획공모전
	2024	「한글, 예술을 입다」- 재단 기획전
		「나랏말싸美」- 세종미협 특별전
		「세종, 용비어천」- 세종예술제
		「각양각색」-한글과 전각 (세종전각연구회)
		「열두달 나르샤」- 캘리마실 회원전
		「세종대왕 탄생 627돌 기념 33.99」전

축제·이벤트	교육	「찾아가는 문화학교」,「다문화 한글교육」,「한글, 예술을 만나다」,「인문주간-세종스마트시티와 한글문화」,「한글날 주시경 서거110주년 기념 특강」
	경연대회	「번개춤사위」,「한글노래」
	공모전	「우리말 간판」,「상징문구」,「한글디자인」
	체험	「한글골든벨」,「한글놀이터」

한글과 관련한 교육콘텐츠의 구현과 실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다. 세종시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16시-18시에 진행된 '세종시·한글'이라는 주제의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였다. 총 8명의 전문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복합도시의 건설 등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부터 세계 속의 한글과 한글사랑 도시 등 지역적 현안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이 같은 교육콘텐츠를 향유함으로써 한글도시로서 지역 문화콘텐츠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었다.

표 2. 정책아카데미 강연자 및 내용

일자(회차)	강연자(소속)	강의 제목
08.17. (244차)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흐름과 발전방향
08.24. (245차)	윤정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의미
08.31. (246차)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전략
09.07. (247차)	홍성국 (국회의원)	수축사회와 미래도시 세종
09.14. (248차)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	도시의 삶에 나무를 심다
09.28. (249차)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한글사랑도시 세종
10.05. (250차)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세계 속의 한글
10.12. (251차)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쓰기

※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참조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는 국가 단위 행사인 한글날 기념 경축식을 진행함으로써 한글사랑도시로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시민 인식의 확산을 꾀하고자 하였다. 2021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행사가 세종시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한글날 경축식이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575돌을 기념하는 한글날 경축식이 세종시에서 열리는 것은 많은 함의를 가지게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 경축식은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 세종시청 4층 중정 등의 공간에서 사전녹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축식 영상은 한글날인 10월 9일 오전 10시 전국에 송출되었다. 특히 이 경축식의 국민의례 행사에는 충녕어린이집 원아, 세종시문해교육센터 세종글꽃서당 어르신 수강생, 한글사랑 동아리 소속 청소년·청년들, 세종시 한글사랑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여 한글사랑도시 세종시의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도모하였다.

(넷) 대한민국문화도시로의 선정

세종시는 도시 출범 이후 문화적 정체성을 실천하기 위한 소재이자 매개로서 '한글'을 활용하였고, 시 차원에서의 이 같은 문화적 실천은 2024년 12월 대한민국문화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낳았다. 대한민국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문화창조력의 강화 및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이르며, 이에 선정이 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그간 꾸준히 공모를 준비해 왔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준비한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이제는 어엿한 한글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쌓고, 효율적으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글을 활용한 세종시 문화도시의 사업 비전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며, 핵심 가치로는 '이음·가꿈·채움'을 선정하였다. 이들 핵심 가치는 한글이 가진 '자주·애민·실용'의 가치에서 기인한다. 먼저 '이음'의 가치는 한글로 세상을 잇고, 한글 사랑을 연대하며, 이를 통해 한글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채움'의 가치는 한글로 지역을 채워 세종시를 한글문화 산업의 요람으로 구현함으로써 한글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꿈'의 가치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읍면동 지역이 한글을 활용한 도시 가꾸기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세종시 내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한글문화의 세계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세종시의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은 '이음·가꿈·채움'을 통해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먼저 '이음'과 관련한 사업에는 한글을 활용한 국제 교류 등이며, '한글국제비엔날레·한글문화 특별기획전·한글진흥 국제문화교류·한글·세종대왕 연계 관광 프로그램·한글시민예술가 양성·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채움'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세종시라는 도시를 캔버스로 활용하고, 도시 속 콘텐츠를 한글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로, '한글콘텐츠 개발·세종대왕 나신 날·한글날 기념행사·한글예술인 마을' 등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꿈'과 관련한 사업은 한글로 도시를 가꾸고 문화적 정체성의 세계화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한글사랑 여민락 아카데미·찾아가는 한글 문화 향유 활동 지원·찾아가는 세종 한글 컬처로드·한글상상 문화거리·한글문화 상설전시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실 세종시 이전 울산광역시, 여주시 등이 한글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쌓고, 브랜딩을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종시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적 실천에 비하면 이들 지자체의 한글 활용 사업은 매우 약소한 수준이다. 더욱이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한글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심층적이라 할 수 있다.

한글, 세종의 미래가 된다.

이 글은 세종시 도시 출범 이후 한글을 활용한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과정을 정책적·실무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즉 세종시가 도시 출범 이후 한글이라는 빛깔의 옷을 어떻게 입기 시작했으며, 그 다양한 색채들이 어떤 사업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들이 다양한 빛깔의 옷을 입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문화자원은 새로운 시각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기도 하고, 설령 지역에 전승되는 문화자원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구현해 내기도 한다. 이처럼 세종시는 한글을 활용하여 다양한 빛깔을 창출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깝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결코 한글과 무관하지 않다. 세종시라는 도시 지명은 세종대왕에서 연유하고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알튀세르가 얘기했듯이 이데올로기적 호명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종시 차원에서도 한글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일찌감치 구축하였다. 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토대를 구축하였고, 한글 전담 부서를 두어 효율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세종시의 예술가들은 한글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자 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실천은 세종시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한글을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세종시의 노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한글문화수도로서 세종시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세종시에서의 한글은 우수한 국가유산이자 문자 기호일 뿐 아니라, 지역 콘텐츠의 문화적 소재이자 새로운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다. 세종시는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주요한 자원이자 미래 유산의 주요한 동력으로서 한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이에 관한 지속적인 문화적 실천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한다면 명실상부한 한글문화수도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지역 작가 작품③

김 순 자

김순자(b.1973)는 국립한밭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였다. 〈캘리그래피 디자인하다〉(청암아트홀, 세종. 2018), 〈한글〉(세종보갤러리, 세종, 2024) 등 5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세종한글멋글씨협회 단체장으로 〈나태주의 시와 함께 하는 멋글씨전 '스며듦'〉(박연문화관, 세종, 2024), 〈세종시 문학인들과 함께 하는 멋글씨전 '어우러지다'〉 (갤러리힐, 세종, 2025) 등을 주최하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조치원 문화정원 샘, 2025〉 등 여러 단체와 협업 전시를 진행하였다. 〈세종지역화페 '여민전'〉(캘리그래피 디자인, 2019) 등 다수 브랜드 이미지 제작과 오스트리아 빈 등 국내외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작품은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글이 흐른다〉, 2019

"한글이 흐른다"는 세종시 한글마을의 뜻과 유래를 바탕으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캘리그래피 작품이다. 한글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깊은 염원을 담고 있으며, 문자 이상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품은 한글의 흐름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사라진 자음〉, 2022

잊혀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는 소리들,한글의 기본 자음 14자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자음들 — 반시옷(ㅿ), 옛이응(ㆁ), 여린히읗(ㆆ), 아래아(·) — 을 함께 담아내어 한글의 잊힌 아름다움과 역사적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캘리그래피 작품입니다. 역사와 감성을 되새기며,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말의 뿌리로 존재하는 자음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IV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 탐구

유정미(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 탐구 - CI 디자인, 슬로건을 중심으로

유 정 미 |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

서론

도시브랜드는 도시를 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도시가 지닌 자연환경과 역사적 맥락을 감안하여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며 사람들은 지구촌 곳곳으로 이동하며 각 도시의 개성과 차이점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각 도시는 다투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며 매력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도시브랜드는 외부 방문객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각 도시는 심벌마크와 로고, 슬로건으로 이미지화하기에 앞서, 시민의 감수성과 미적 취향을 고려하고 이로부터 도시의 매력 포인트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도시명을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이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택으로 도시브랜드의 로고를 한글 자음 'ㅅ'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슬로건 역시 초기에는 '세상을 이롭게'로 정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2023년에는 이를 '세종이 미래다'로 바꾸는 등 도시 브랜딩에 힘을 쏟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변화 과정에 유념하면서 세종시의 도시브랜드 디자인이 한글 창제 정신의 핵심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는 분석하려 한다. 그 기준은 필자가 한글 창제의 기본 철학이라고 규정한 세 요소, 즉 정체성과 공감

성, 단순성이 디자인 언어로 구현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아울러 도시브랜드의 원조로서 이제는 고전이 된 뉴욕의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통해 세종시 도시브랜드의 방향성을 찾으려 한다. 뉴욕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경제 불황으로 높은 범죄율과 실업률에 시달리는 '문제 도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뉴욕주는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펼쳤다. 그 결과 I♥NY이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개발하며 이미지 반전에 성공했다. 필자는 도시브랜드의 교과서가 된 뉴욕의 디자인을 세종시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연구 사례로 삼았다.

이 연구가 세종시의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이를 통해 세종시가 그 이름에 걸맞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글 디자인

세종시는 그 이름에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도시브랜드의 디자인 모티브로 한글 자음 'ㅅ'을 사용한 것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글 창제 정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근본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글이 지닌 여러 특징 가운데 특별히 한글의 창제 과정에서 돋보이는 디자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한글의 디자인적인 특성과 창제 철학을 동시에 파악해야만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 디자인의 특성

한글은 1443년(세종 25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국어 표기 체계이다. 훈민정음[78]이라는 이름으로 고안된 한글은 단지 문자로만 한정할 수 없는 창작물이다. 한글은 일반적인 디자인 작업이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디자인은 '기획-자료조사-문제 분석과 해결-디자인'의 과정을 거친다. 한글은 이런 과정을 그대로 거쳐 만들어졌고 '훈민정음해례본'이라는 해설서를 통해 작업의 의도와 경위 그리고 철학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매뉴얼 북을 펴내는 것과 같다. 그 안에는 한글의 창제 과정에 따른 디자인 철학과 가치를 상세히 담고 있다.

한글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디자인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당대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그걸 해결하려는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이로써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세상에 태어났다.

한글 디자인의 의미와 가치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명확히 모른 채 오랜 시간을 두고 다듬어져 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글은 이들과 완전히 다르다. 세계 380여 개 문자 중에서 한글만이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일, 창제 동기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한글은 일정 기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와 연구를 거쳐 만들어 낸 문자이다. 그러므로 한글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문자일 뿐 아니라 그 의도가 분명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79] 특히 한글은 사람의 목소리를 디자인한 창작물이며 한국 고유의 디자인 철학을 담고 있기에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을 디자인된 문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로는 문자의 창작 의도를 상세히 밝힌 '훈민정음해례본'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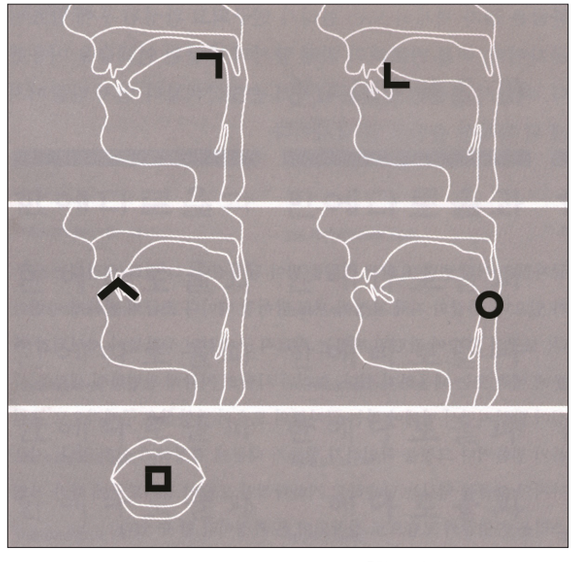
※ 국보,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39 한글 창제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해례본』

훈민정음해례본에 담긴 철학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새로운 글자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도록 했다. 이 해설서의 제목이 『훈민정음』[80](그림 39)으로 1446년(세종 28)에 완성되었다. 정인지가 쓴 서문의 내용은 『훈민정음』의 '해례'를 집필하게 된 경위, 한자와 이두 사용의 불편함과 새 문자 창제의 동기와 필요성, 세종이 창제한 새 문자의 특징과 장점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81]있다.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에 (대하여) 달라, 한문 글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가엾은) 백성이 하소연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글자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라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로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82]'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글 창제의 기본 정신이 '다름(異)'과 '백성을 가엾게 여김'과 '쉬움'에 두고 있다[83]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조금 풀어서 정리하면 '다름'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뜻이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백성을 가엾게 여김'은 공감의 자세로 상대의 불편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쉬움'은 단순하고 간결해야 얻을 수 있다. 이로써 한글은 정체성과 공감성, 단순성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만들어 낸 창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 『한글 디자인 교과서』, 2009

그림 40. 발성기관을 본뜬 자음의 기본 다섯 글자(ㄱ, ㄴ, ㅅ, ㅇ, ㅁ)

한글의 창제 정신

이제 한글 창제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며 그 정신의 근원을 파악해 보자.

해례편의 제자해에는 한글 제작에 관한 방법론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사상은 동양철학인 역학이다. 한글 창제를 위한 연구 자료를 중국의 음운학과 송학으로 삼고 음양오행설과 태극설 등을 중심 철학으로 두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을 태극·음양·오행(만물을 생성하는 다

섯 가지 원소, 즉 水, 火, 木, 金, 土)으로 파악하고 이를 한글의 제자 원리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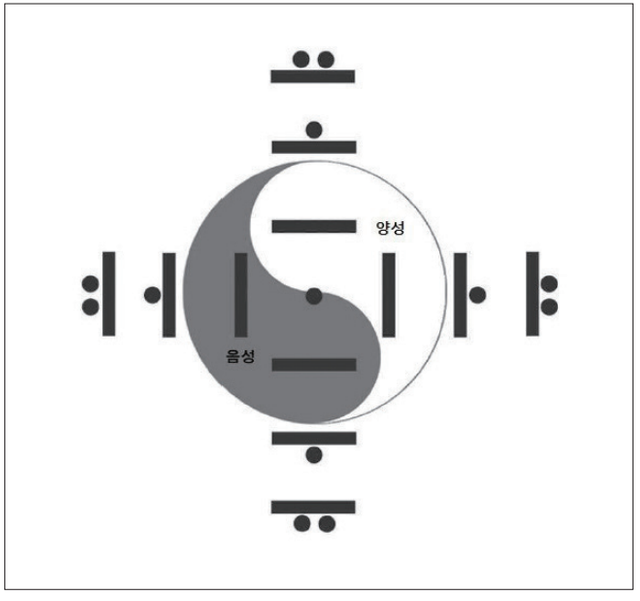
자음인 초성 17자는 다섯 글자를 기본으로 삼고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정하여 각각 조음 위치와 방법에 따라 형상화하여 만들었다.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혓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입술소리 ㅁ은 입 모양을, 잇소리 ㅅ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84] 형태를 만들었다(그림 40).



※「훈민정음에 담긴 디자인 철학의 현대성」, 2010

그림 41. 가획 원리를 통한 자음 형태의 확장

나머지 12글자들은 기본인 다섯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획을 더하는 원리로 삼았다. ㅋ은 ㄱ에서 획을 더하고 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ㅁ에서 ㅂ, ㅂ에서 ㅍ을 제작하였다. ㅅ은 ㅈ, ㅈ에서 ㅊ, ㅇ에서 ㆆ, ㆆ에서 ㅎ으로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획을 더하는 원리다. 다만 ㆁ 만은 다른데, ㆁ은 ㄱ에다 획을 더해 만든 글자가 아니다. 반혓소리 ㄹ과 반잇소리 ㅿ 도 혀와 이의 모양을 본뜨긴 했으나 그 바탕으로 삼은 기본 글자를 달리하여 획을 더한 뜻은 없다고[85] 했다(그림 41).



※「훈민정음에 담긴 디자인 철학의 현대성」, 2010

그림 42. 음양 원리에 따른 모음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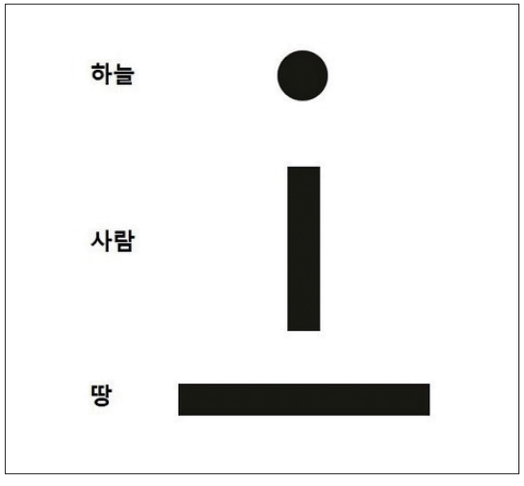
다음에 중성(모음) 11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형상화하여 '• ㅡ ㅣ(천지인)'을 기본 자소로 정하였다. 천지인의 구성으로 우주가 형성되었듯이 모음 또한 그 우주를 반영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내는 소리로서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子)시에 열린 것처럼 맨 먼저 정했다. ㅡ는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내는 소리로서 깊지도 얕지도 않아 땅이 축(丑)시에 열린 것과 같이 두 번째 정했다. ㅣ소리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내는 소리로서 음이 얕으니 사람이 인(寅)시에 생겨남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글자는 음양의 원리에 따라 밝은 소리는 점을 줄기 위나 오른쪽에, 어두운 소리는 아래나 왼쪽에 붙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86](그림 42)

이렇듯 한글은 태극과 팔괘 등 동양철학인 음양오행 사상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한글의 조형적 특징

한글은 글자의 형태 면에서 몇 가지 조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음의 형태는 사람의 말소리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음의 기본 다섯 글자가 말소리를 내는 위치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ㄱ은 어금니 소리, ㄴ은 혓소리, ㅁ은 입술소리, ㅅ은 잇소리 그리고 ㅇ은 목구멍소리에 해당한다.



※「훈민정음에 담긴 디자인 철학의 현대성」, 2010

그림 43. 모음은 천지인 삼재(三才)에 바탕을 두고 그 형태를 만들었다.

둘째, 모음은 자연의 이치와 연결되어 있다. 모음은 자연에서 추출하여 개념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천지인'을 기본 자소로 삼아서 하늘은 점으로 땅은 수평선으로 그리고 사람은 수직선으로 표시하였다.[87](그림 43) 이는 창제 이념을 글자의 형태 안에 함축해 놓은 것이다.

셋째, 한글은 확장하기 쉬운 간결한 형태와 기하학적인 글자꼴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글자 형태를 먼저 정하고 이후 파생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음은 'ㄱ, ㄴ, ㅁ, ㅅ, ㅇ' 다섯 낱자를 기본 글자로 택한 후 소리의 청탁 원칙에 따라 확장해 나갔다. 이는 글자의 모양을 매우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강점이 되었다. 모음은 천지인(•, ㅡ, ㅣ) 세 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이후 음양 원리에 따라 나머지 글자를 추가하였다.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형태와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각 낱자가 조음 위치나 자연의 모습을 본뜨므로 형태가 간결해진 것이다. 한글은 점, 선, 사선, 동그라미 등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조형요소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창제 당시 한글 꼴은 단순 간결한 직선과 사선, 정원(正圓), 직각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줄기의 굵기가 일정하고, 부리나 맺음은 변화 없이 단순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다[88](그림 44).



※「훈민정음에 담긴 디자인 철학의 현대성」, 2010

그림 44. 한글의 글꼴은 점, 선, 사각형, 동그라미, 삼각형 등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와 구조를 지녔다. 위는 자음을 단순화하면 세 가지 요소로 분류되고, 아래는 모음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이로써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간결한 글자 체제 중 하나가 되었다. 매우 적은 숫자의 낱글자로 수많은 의미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현재 한글이 사용하는 낱자는 14개의 자음,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적은 글자 수로도 더하고 합치는 체계적인 원리로 인해 그 표현 방식이 무궁무진한 글자로 꼽힌다.

이상으로 한글의 창제 철학을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훈민정음해례본의 서문에서 한글 창제의 동기로 거론한 정체성과 공감성, 단순성이란 기본 정신이 한글의 글꼴로 그대로 이어져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글자 형태를 특징으로 얻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제 한글의 창제 철학을 도시 정체성으로 선택한 세종시의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정부 정책으로 탄생한 도시다. 초기 목표인 수도 이전은 실행되지 못했으나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정부세종청사를 갖추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었다. 더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이기도 하다. 2012년 6월 31일 기존의 행정구역이던 충남 연기군을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국민 공모를 통해 '도시 명'을 선정하여 세종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에 세종시는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 자음 'ㅅ'을 모티브로 한 심벌디자인(그림 45)을 선보였다.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서 도시브랜드 디자인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그림 45. 세종시의 심벌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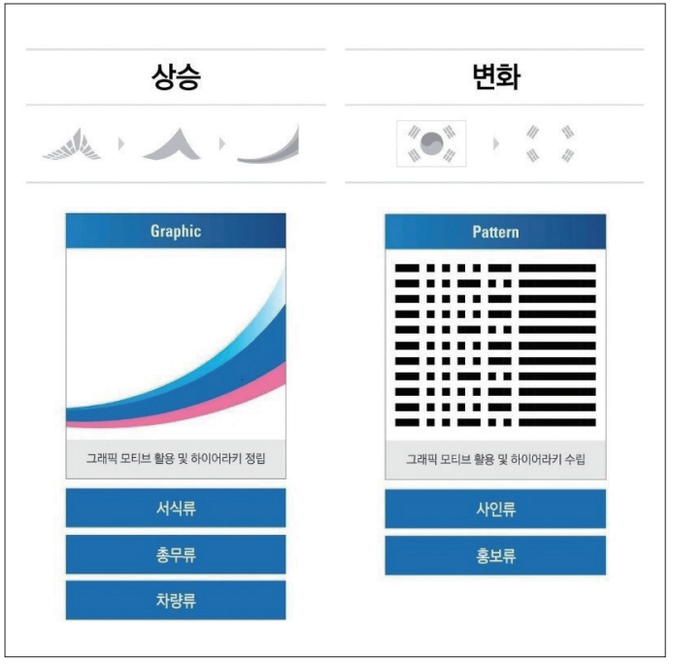
세종시 도시브랜드의 특징

세종시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한 후, 디자인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ㅅ'을 우리나라 전통 주거 형태인 기와로 형상화해 최적의 환경에서 시작되는 스마트한 도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우리나라의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전을 담았다.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결합한 형태로 표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강조하였다. 조화와 균형, 생성과 발전을 의미하는 건곤감리처럼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하늘을 향한 처마 선은 세계에 모범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로 완성하였다.[89]"

도시 이름에 맞게 한글 자음 'ㅅ'을 채택한 건 무난한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ㅅ'자를 곧바로 전통 한옥의 기와지붕으로 전환하여 ㅅ-세종시-기와지붕(집현전?)이라는 연결 고리를 설정한 것은 개념 전개의 필연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이런 지적 또한 현시점에서는 부질없는 일이니, 최종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이 한글 창제 정신의 간결함과 기하학적인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는 짚어볼 일이다.

세종시가 개발한 심벌마크는 기와를 형상화한 한글 자음 'ㅅ'을 수평으로 펼쳐지는 한글 로고 위에 얹었다. 그 결과 2층 구조가 되어 복잡하고 상단이 무거워 보인다. 게다가 'ㅅ' 자는 건곤감리 4괘를 결합해 처마 형태로 만든 것인데 처마의 날렵함을 강조하려고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여 입체감을 주었지만, 그 결과 한글이 지닌 단순성은 사라지고 번잡한 요소로 인해 과잉 디자인이 되고 말았다.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덴티티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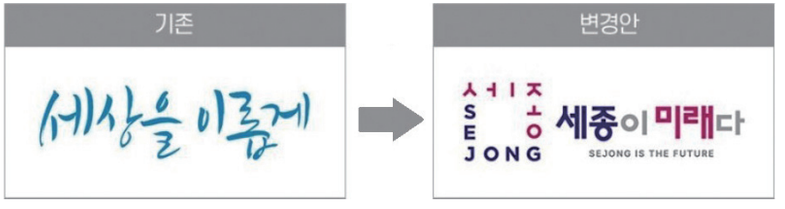
그림 46.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에서 서식류와 사인류 등 응용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 도시브랜드 응용 디자인

서식류와 사인류 등 응용 디자인(그림 46)은 심벌마크를 기본으로 삼아 도시의 상징 색상과 브랜드 요소를 재해석한 것이다. 이는 도시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기본이 되는 심벌디자인을 복잡하게 구성한 결과, 응용 디자인 역시 복잡하고 산만하게 전개되고 있다. 응용 디자인의 그래픽 모티브는 한글 자음 'ㅅ' 대신 태극의 건곤감리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펼쳐 나갔다. 그 결과 한글 창제의 기본이 되는 간결성보다는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 아울러 응용 디자인은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는 여러 유형의 서식에 쓰이기 때문에, 가변적 적용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초기에 심벌디자인 콘셉트를 제대로 잡았더라면 이런 복잡한 그래픽으로 응용 디자인이 확장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메인이 되는 심벌디자인의 콘셉트를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그림 47. 출범 10년을 맞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새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했다.

세종시 브랜드 슬로건

세종시는 2013년에 도시브랜드를 처음 만들면서 브랜드 슬로건을 '세상을 이롭게'로 선정하였다(그림 47 왼쪽). 이에 대해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행정수도임을 나타내며, 어감에서 세종대왕을 연상하여 세종시만의 차별적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용이하다. 기존 지자체 슬로건과 차별화된 표현으로 참신함을 전달하고, 특별자치시로서 위상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세상을 이롭게'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정신과도 연결되며 세종시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차별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결과물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서체의 획이 약하고 가독성이 떨어져 선명한 인상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흘려 쓴 서체가 자의적으로 느껴져 공공 슬로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도 세종시의 첫 브랜드 슬로건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도시 출범 10년을 맞은 세종시는 2023년 1월에 새 브랜드 슬로건으로 '세종이 미래다'를 제정, 발표했다(그림 47 오른쪽).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의미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미래와 가장 가까운 도시임을 강조한다. 지능형 도시, 국가 시범도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정치·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의 위상을 표현한다."라고 밝혔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한번 제정하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축적된 브랜드 슬로건은 내부 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출범한 지 10년 된 세종시가 새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과 통합을 이루고 외부인에게 도시 이미지를 강화할지 주목되는 측면이다.

세종시 브랜드 슬로건의 디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어볼 지점이 있다.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지 10년 된 도시가 왜 다시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워야 하는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그 도시의 철학과 정체성을 표명하는 도구인데 시민들의 일상 속에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새로 변경하는 건 다소 이른 결정이 아니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뉴욕의 브랜드 슬로건 I♥NY은 46년 만에 리브랜딩했다. 그것도 전면적인 변경이 아닌, 기존의 디자인을 '다듬는' 수준의 리브랜딩인데도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를 세종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과 비교해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 새로 제정한 슬로건 디자인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그림 48. 세종시에서 새로 제정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새로 제정된 세종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그림48). 슬로건이 한글 구호인 '세종이 미래다'이므로 한글 서체에서 산세리프체를 사용해 표현하였다. 색상은 메인이 되는 구호 여섯 글자를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해 디자인했다. 세 가지 색상은 진파랑(PANTONE Violet C), 진자주(PANTONE 227 C) 그리고 회색(PANTONE Cool Grey9 C)이다. 여섯 글자인 슬로건을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해 각기 다르게 디자인한 대목은 그리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이는 통합적으로 읽히지 않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면이 있다. 슬로건은 짧은 어구이므로 기억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략한 슬로건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나누면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로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

서체 크기도 제각기 다르게 디자인한 것도 문제다. 짧은 슬로건을 두고 서체와 색상이 제각각이면 이미지는 파편화되고 메시지는 허공에 흩어진다. 간결하고 짧은 어구로 전달하는 슬로건은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기억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된다.

다음은 왼쪽에 네모 형태로 놓인 요소를 살펴보자. 메인이 되는 '세종이 미래다' 슬로건에서 한글 '세종'과 알파벳 'SEJONG'을 차용해 ㅁ자 형태로 구성해 놓았다. 이 요소의 정확한 역할과 용도에 의문이 든다. 심벌마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여겨지는데 슬로건 디자인에서는 불필요한 요소

로 보인다. 메인 슬로건 디자인도 산만하고 분절적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요소까지 덧붙이니 디자인은 힘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슬로건은 '구호'로서 발화자의 정체성을 내외부로 발신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I♥NY처럼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이 더 강력한 힘을 얻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이런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디자인적인 측면을 좀 더 살펴보면 한글 '세종'은 알파벳 'SEJONG'과 형태를 맞추느라 첫 글자 '세'는 가로로, 두 번째 글자 '종'은 세로로 놓아 글자라기보다 장식적인 요소로 보인다. 여기에 로마자와 같이 구성하려니 자간도 강제로 넓힌 탓에, 문자적 의미를 잃고 낱글자의 나열처럼 되어 버렸다. 이는 한글의 특성을 해치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이 수평과 수직 양방향으로 합쳐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 조합형이다. 로마자는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단어가 되는 나열형이다. 조합 방식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문자를 무리해서 결합해 놓으니 한글 자간은 강제로 넓혀지고 영문은 좌표를 잃어 조화로움이 깨지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도시브랜드 캠페인으로 꼽히는 미국 뉴욕의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을 살펴보도록 하자.

뉴욕 도시 브랜드 디자인

뉴욕이 처음부터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한 건 아니었다. 1970년대는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혼란과 곤경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그 여파로 뉴욕은 경기 침체와 적자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해고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악명 높은 범죄와 파업으로 80만 명의 시민이 뉴욕을 떠나고 있었다. 한마디로 찾고 싶지 않은 도시의 이미지였다. 1975년 뉴욕주의 상무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디자인은 뉴욕의 토박이 디자이너 밀턴 글레이저(Milton Glaser 1929-2020)가 맡기로 했다. 글레이저는 이 캠페인에 프로보노(Pro Bono), 공익을 위한 무료봉사로 참여했다.



※ Wikimedia Commons

그림 49. 1977년에 만들어진 '아이 러브 뉴욕(I♥NY)' 로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기획한 캠페인

1970년대는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뉴욕시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로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었으며 해고로 인한 실직자들이 30만 명에 이르고 늘어나는 범죄와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적 도시'였다.[90]

뉴욕주 상무국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기획했다.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캠페인 기획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외부 방문객이 늘어나는 관광 활성화라고 생각했다. 이 캠페인을 대행할 광고 회사로 '웰 리치 앤드 그린(Wells Rich and Greene)'사

가 선정되었다. 광고 회사는 뉴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뉴욕 시민들이 겉으로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뉴욕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광고 회사는 이를 디자이너 밀턴 글레이저에게 설명하고 공공 캠페인에 필요한 그래픽 작업을 의뢰했다. 뉴욕의 실체가 아닌 정서적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91)]

이렇게 해서 1977년 아이 러브 뉴욕(I♥NY)(그림 49) 로고가 탄생했다. 애초엔 한두 달 진행할 캠페인 기간에 사용하려던 것이었는데 예상을 깬 폭발적인 반응에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 캠페인은 뉴욕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뉴요커라는 자부심과 공동체적 소속감을 불어넣으며, 전문가가 주도해서 상징물을 표현하는 1세대 도시브랜드의 대표 사례로 자리잡았다.[92)]

시민들은 I♥NY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돌아다녔다. 티셔츠만이 아니라 머그잔과 열쇠고리 등 각종 기념품에 로고를 새겨 넣었다. 시민들이 그대로 걸어 다니는 '홍보맨'이 되었다. 관광객들도 덩달아 열광하며 기념품을 자국으로 가져가면서 이 슬로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로써 이 로고는 뉴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뉴욕시 이미지를 단번에 '사랑스러운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잘 만든 로고 디자인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으며 뉴욕의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뉴욕 시민의 브랜드에서 세계인의 브랜드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시작됐지만, I♥NY은 뉴욕 시민의 도시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뉴욕은 문제 도시에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로 변모했다. 뉴욕은 40년 넘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이 디자인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지만 뉴욕은 세계의 수도가 되었다.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했듯이 뉴욕주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지 않았다.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않고 누구나 활용해 상품으로 팔게 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티셔츠, 컵, 모자 등 다양한 문화상품(그림 50)으로 매년 3,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뉴욕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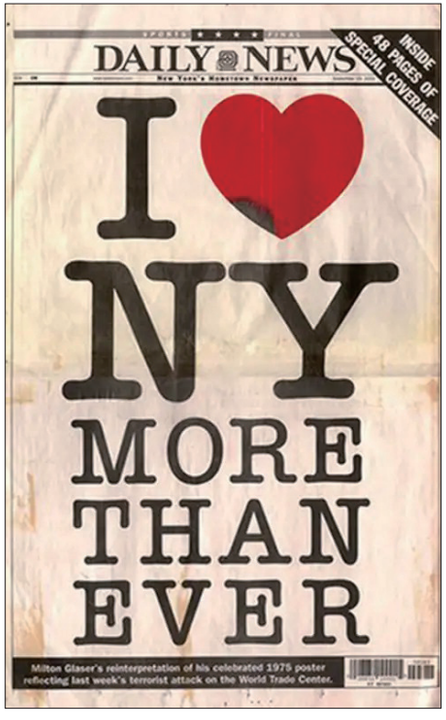
아이 러브 뉴욕 모어 댄 에버



※ https://www.jungle.co.kr/magazine/24186

그림 50. '아이 러브 뉴욕' 로고를 활용한 티셔츠와 머그컵

2001년 9월 11일 뉴욕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테러 현장이 되었다. 이때 밀턴 글레이저는 I♥NY을 다시 디자인한다. 빨간색 하트의 왼쪽 아랫부분에 검게 불탄 자국을 넣은 「아이 러브 뉴욕 모어 댄 에버(I♥NY More Than Ever)」(그림 51)를 선보였다. 이 포스터는 시민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으며 뉴욕 거리 곳곳에 수백만 부가 붙었다.



ⓒ 밀턴 글레이저

그림 51. 2001년 9월 19일 일간지 「데일리 뉴스」 1면에 실린 '아이 러브 뉴욕 모어 댄 에버 (I♥NY More Than Ever)' 포스터

이 포스터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More Than Ever'라는 문구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트의 왼쪽 아래에 놓인 검게 그을린 자국 때문이었다. 그것은 세계무역센터가 위치한 서남단의 표식이었으며 테러로 얼룩진 상처와 고통의 상징이었다. 포스터를 통해 글레이저가 뉴욕 시민들에게 건네려는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상처 입은 뉴욕을 더 사랑한다.'는 위로의 메시지였다.[93]

이로 인해 I♥NY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시민 곁에 늘 가까이한다는 경험을 만들어주었다. 이것이 도시브랜드가 갖는 힘이고 브랜딩으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46년 만에 리브랜딩한 뉴욕시 로고



ⓒ We Love New York City
※ http://www.brandbrief.co.kr

그림 52. 46년 만에 리브랜딩한 뉴욕시 로고

2023년 3월 뉴욕시는 도시의 상징 슬로건 I♥NY을 46년 만에 WE♥NYC로 리브랜딩했다. 'I(나)'를 'WE(우리)'로 바꾸어 '지역 사회와 함께'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NY(뉴욕)'를 'NYC(뉴욕시)'로 바꿔 뉴욕주에서 뉴욕시로 더욱 초점을 맞췄다. 로고와 하트 모양은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다듬었다(그림 52).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WE♥NYC 캠페인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뉴욕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뉴욕의 에너지와 정신을 보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은 SNS를 통해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가 브랜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존 로고에 비해 상징성이나,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부족하다", "지하철에 게재된 광고 속 로고는 'WE NYC ♥'로 읽힌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도시의 얼굴과도 같은 상징 이미지를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완전히 새로 바꾼 것도 아니고 기존의 디자인 특징을 존중하면서 현대적으로 다듬은 것인데도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는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바꾼다고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I♥NY이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뉴욕의 도시브랜드로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매력적인 디자인과 지속적인 브랜딩이 뒷받침된 결과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도시 리브랜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미래 방향성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분석

이제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미래 방향성을 찾기에 앞서 현재 사용 중인 도시브랜드 디자인(그림 53)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심벌마크로 대표되는 CI 디자인과, 슬로건, 이 두 요소를 함께 놓고 한글의 창제 정신인 정체성, 공감성, 단순성에 대입하여 분석해보겠다.



그림 53.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위는 CI 디자인, 아래는 이전 슬로건과 변경된 슬로건

정체성(Identity)

정체성은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이것이 정체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다. 도시브랜드 디자인에서는 '그 도시다움'을 찾아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은 한글 자음 'ㅅ'을 모티브로 선정한 면에서 일단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슬로건 역시 '세종이 미래다'라는 젊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와 한글 구호를 내세우므로 세종시다운 정체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실제 시각화 작업에서는 디자인의 차별성과 정체성 면에서 별다른 특성을 만들지 못했다.

한글의 조형적 특성이 갖는 간결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ㅅ'을 입체 그래픽으로 구성한 탓에 그 형태적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슬로건도 시각화 과정에서 인상적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정체성 구축에 실패했다.

공감성(Empathy)

공감성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처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되어 보는 '역지사지'의 태도여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를 시각적으로 해석하자면 통합력, 즉 연결성이다.

세종시의 심벌 디자인과 슬로건은 두 요소가 제각각이라 연결성 측면에서 어색하다. 색상도 다르고 글꼴의 형태도 다르다. 심벌디자인은 파란색인데 슬로건 디자인은 짙은 남색과 보라 그리고 회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해 두 요소 간의 연결감이 부족하다.

심벌디자인을 따로 놓고 보더라도 심벌마크는 입체이고 로고는 평면이다. 서체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어 통일감이 부족하다. 연결감과 통일감이 부족하니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 변경한 슬로건은 이전 슬로건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서 둘 간의 연결 고리가 없다. 기존의 캘리그래피 스타일을 버리고 새롭게 산세리프 서체를 사용했으며 색상도 파랑에서 각기 다른 계열의 세 가지 색으로 바꾸었다. 뉴욕의 슬로건이 기존 디자인을 인정하면서 다듬는 방식을 취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연결감이 약하다 보니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성(Simplicity)

단순성은 본질에 가깝게 중요한 것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한글이 기하학적인 구조와 천지인의 단순한 구조를 갖추고도 수만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자음은 다섯 글자를 기본으로 삼아서 확장하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해 '천지인' 세 요소를 기본 자소로 정하고 추가하는 원리이다. 이로써 한글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그림 54.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CI 디자인

이에 반해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은 복잡하고 산만하다. 세종시 CI 디자인의 요소는 두 가지인데, 심벌마크와 로고이다. 이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각기 다르게 디자인했다(그림 54). 심벌마크는 한글 자음 ㅅ을 형상화하여 입체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로고에서 '세종'은 훈민정음체로 '특별자치시'는 TD씨_홍익인간 B 체를 사용해 도시명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보이게 했다. 이 경우 디자인은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은 한글 창제 정신의 핵심인 단순성에서 멀어져 복잡하고 산만한 구조 체계를 취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이런 브랜드 디자인은 도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국내 타 도시브랜드 디자인 비교

CI 디자인

이제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을 타 도시 CI 디자인과 비교하며 살펴보겠다. 비교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그리고 울산이다(그림 55). 세종시에 비해 다른 7개 도시는 심벌마크와 로고가 나란히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심벌마크의 형태도 간결하게 로고와 잘 어우러진다. 세종시의 심벌마크만 유일하게 상단에, 로고는 하단에 놓으며 2층을 이루는 구조이다. 디자인 요소를 심벌마크 1개와 2개의 로고, '세종' '특별자치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누다 보니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읽히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벌마크의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처리하면서 입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위치를 상단에 두다 보니 무겁게 로고를 누르는 모양새가 되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

그림 55. 서울 등 주요 도시 CI 디자인

브랜드 슬로건

다음은 타 도시 슬로건 디자인을 비교해 보자.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그리고 울산이 비교 대상이다(그림 56). 서울시와 부산 등 다섯 광역시의 슬로건은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다. 다만 도시 슬로건을 다시 장식화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세종시 외에는 없다. 그만큼 슬로건은 응집력과 집중력, 간결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왼쪽에 한글 '세종'과 알파벳 'SEJONG'을 사용한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으로 그 효과가 도리어 약해진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

그림 56. 서울 등 주요 도시 CI 디자인

한글 디자인에 담긴 철학

이 장에서는 한글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하자. 한글의 창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키워드를 핵심 철학으로 요약하면 정체성(Identity), 공감성(Empathy), 단순성(Simplicity) 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표 3).

표 3. 한글 디자인에 담긴 창제 철학

한글의 디자인 정신	창제 목적	창제 철학
정체성 Identity	한글 창제 배경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음
공감성 Empathy	한글 창제 이유	하소연할 바가 있어도 뜻을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함
단순성 Simplicity	한글 창제 효과	쉬이 익혀서 날로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함

한글 디자인과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 비교

이제 한글의 창제 정신을 디자인의 원리로 전환하여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과 비교로 보겠다.

한글의 창제 정신이 담고 있는 정체성, 공감성, 단순성 측면을 세종시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세종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한글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인 간결하면서 체계적이고 기하학적인 측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다시 미래 방향성으로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표 4).

표 4. 한글 디자인과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비교

한글의 디자인 정신	세종시 디자인의 문제점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
정체성	정체성 부족	한글의 창제 정신을 반영한 그래픽 정리 필요 정체성을 통한 간결한 디자인 확보
공감성	공감성 부족	CI와 슬로건 연결성 강화로 공감성 높임 세종시와 시민의 공감성 향상
단순성	복잡한 구조	CI 디자인과 슬로건의 단순함 유지로 세종시민과 세계인의 이해력을 높임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을 정리해 보겠다. 세종시는 CI 디자인에서 요소들의 크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집중력을 요구하는 CI 디자인을 세 가지 요소를 각기 달리하면 구심점이 없어진다. 한글의 창제 정신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하나의 통합된 그래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로써 집중력 있고 차별화된 심벌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CI 디자인과 슬로건은 연결감이 약해 도시 이미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태만이 아니고 서체와 색상을 통일하여 시각적 통일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표 5).

표 5. 세종시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성

세종시 디자인 요소	수정 보완할 부분	얻을 수 있는 효과
CI 디자인	디자인 요소 크기, 형태 재조정	도시브랜드 이미지 통합
브랜드 슬로건	CI 디자인과 색상, 서체 통일	도시 이미지 강화
추가적 요소	동영상 등 매체로 소통 강화	시민들과 소통 향상, 참여 활동 증대

세종시는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등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브랜드는 그 자체로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므로 이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 생명력을 불어넣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의례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관계기관에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도시브랜드는 시민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밀턴 글레이저가 9·11 사태 이후 I♥NY 슬로건을 신문 1면에 리디자인해서 발표했듯이 도시에 이슈가 생겼을 때, 브랜드 디자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은 이에 인격성을 부여해 친숙하게 느끼게 된다. 도시브랜드는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어 시민들의 일상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 탐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탐색했다. 먼저 한글의 디자인 철학을 살펴보면서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의 'I♥NY' 디자인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로써 세종시는 두 가지 디자인 방향성을 찾게 되었다. 첫째는 한글의 디자인 원리에서 비롯된 정체성이 명확하고 공감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결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시민 친화적이고 오랜 전통을 지키는 로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필자의 견해에 일리가 있다면, 세종시는 이 두 가지 방향을 유념하여 현재 디자인의 장점은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시민에겐 친근하고 외부인에겐 인상적인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별한 도시,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로 남을 것이다.

예전에는 도시브랜드가 심벌마크와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요소를 의미했다면 지금은 역사와 문화, 경관과 사회적 특성, 행정서비스와 국제적 인지도까지 한 도시를 말해주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도시브랜드 전략은 그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수용해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는 과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완성도 높은 도시브랜드 디자인이 브랜드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도시명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도시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창의적인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방함으로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추고 출발했다. 그런데 정작 도시브랜드 디자인에서는 세종대왕의 '디자인 감각'에 못 미치는 듯하다. 그 이유는 한글 창제 원리의 핵심이 되는 철학을 도시브랜드 디자인에 분명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브랜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I♥NY은 그 출발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서 비롯되었다. 도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펼친 공공 캠페인에서 개발한 슬로건이 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아이콘이 되었다. 뉴욕은 이 로고를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이에 맞추어 시민들도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도시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뉴욕의 사례에서 도시가 지닌 장점을 어떻게 포착해서 도시 브랜딩으로 구축했는지 그 과정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도시가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도시의 브랜드를 구축하는지를 유심히 연구하여 세종시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았으면 한다.

기왕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도시 이름으로 정하고 한글 자음을 심벌마크로 채택했으면 한글 창제 정신의 핵심을 파악해서 적용하는 일은 세종시 브랜드 전략의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한글이 지닌 간결함과 체계성, 기하학적 구조와 한글의 창제 철학인 정체성과 공감성, 단순성을 결합해서 브랜드 디자인에 녹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종 25년 1443년,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당시에는 세종대왕도 한글이 이토록 미래를 내다본 창작물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니 세종시가 이 정신을 그대로 수용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린 도시, 가장 젊은 도시를 표방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종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것이다.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지역 작가 작품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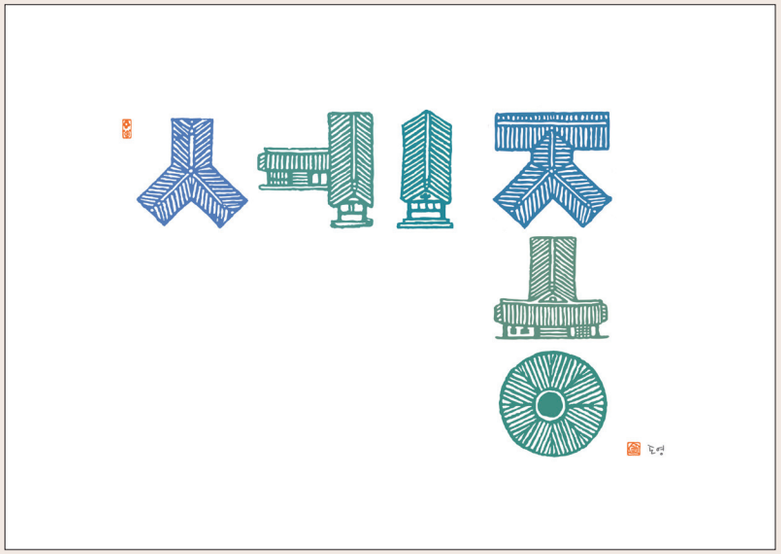
김도영

김도영(b.1972)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한 걸음마다 하나의 풍경-사계〉(북촌한옥청, 서울, 2024), 〈한 걸음마다 하나의 풍경 II〉 (박연문화관, 세종, 2023), 〈한옥에서 한글을 보다 II〉(청암아트홀, 세종) 등 15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한글문화특별기획전〉(조치원1927 아트센터, 세종, 2025), 〈서울로미디어캔버스〉(만리재로 215, 서울, 2023), 〈한옥담닮〉(남산골한옥마을, 서울, 2022), 〈유쾌한, 글〉(한글갤러리, 서울, 2022), 〈문자도 투데이〉(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21)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작품은 청목미술관, 전주지방검찰청, 전북도립미술관,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등에 소장되어있다. 2022년도 〈한글 품은 한옥〉(발견북스)의 그림책을 출간하였고, 22개정 중학미술 교과서 4종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한옥에서 한글을 보다 II〉, 2019

본 작품은 「한옥에서 한글을 보다 II」 시리즈 중 일부 작품(기역, 니은, 디귿)으로 한옥의 구조적 미학을 한글의 자형 속에 섬세하게 담아낸 한국화(전통 채색화) 작품이다. 일부 자형의 한옥은 실재 한옥의 모습을 적용하기도 했으며, 한옥의 구조와 선을 한글의 형태로 민화적인 기법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작품에는 해당 자음으로 시작하는 사물들이 있어 한글 단어를 찾아보는 유희성을 가미하기도 했다. 이로써 한글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옥의 공간미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전통적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한옥한글-세종〉, 2022

'한옥에서 한글을 보다'의 작업을 전각(돌새김) 방식으로 발전시켜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을 완성하였고,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평면과 설치 등 다양한 문자 작업으로 확장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한글을 조형 요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열어주어 한국문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한글 조형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다. 본 작품은 작가 고유의 한글 활자체 '한옥한글'을 바탕으로 구성한 '세종' 문자 디자인 작품이다.

5

한글 문헌을 활용한 세종시 한글 콘텐츠 구현 방안

배준영(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초빙교수)

한글 문헌을 활용한 세종시 한글 콘텐츠 구현 방안

배 준 영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초빙교수

들어가며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글의 독특한 디자인과 그 속에 담긴 철학, 역사적 배경 등이 한글에 대한 매력을 더욱 키우는 듯하다. 한글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세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전략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한글을 활용한 콘텐츠를 '한글문화 콘텐츠'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 '한글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다. '한글문화 콘텐츠'는 한글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로 의미가 제한될 수 있는 반면에 '한글 콘텐츠'라고 하면 한글문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글이 사용된 모든 종류의 콘텐츠라는 확장적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이 활용된 일반 상품을 포함하여 문화상품, 문화 콘텐츠, 교육 콘텐츠 등 각종의 콘텐츠를 '한글 콘텐츠'라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글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를 표현하고 한국의 정체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한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한글 창제 이후 580여 년간 생산된 역사적 한글 자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역사적 한글 자료는 한글문화 자원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한글문화 자원의 보고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다양한 한글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

역사적 한글 자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서 및 고문서류를 흔히

'한글 문헌'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한글 문헌은 종류가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못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들 문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 결과들 중 대중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은 것은 드물다. 그러나 근래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글 문헌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글 콘텐츠 개발의 기반이 되는 한글 문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의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한글 문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한 한글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본론에서는 한글 문헌의 종류 및 개념과 세종시가 보유한 한글 문헌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세종시 한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글 문헌과 한글 콘텐츠

한글 문헌의 개념과 종류

한글 문헌을 활용한 한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 문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을 한글 문헌이라고 하는지, 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한글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양하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문헌에 대한 이해라는 기반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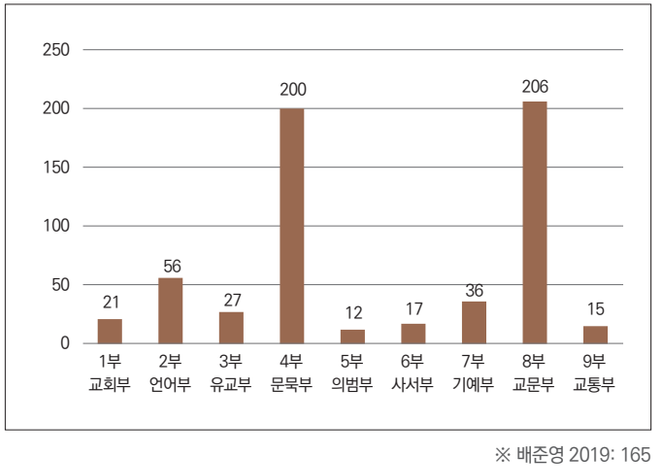
'한글 문헌'은 말 그대로 한글로 기록된 문헌을 의미한다. 문헌에 한 글자라도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글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한글 문헌'이라는 용어를 한글로 된 옛 문헌, 즉 고문헌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 보통은 1910년 이전에 생산된 문헌을 '한글 고문헌'으로 파악하지만, 고문헌의 시간적 하한선은 전통 방식의 장정법(裝幀法)이 사용된 기간을 따라 1945년까지 늦잡기도 한다. 또한 콘텐츠 개발의 관점에서는 꼭 한글 고문헌뿐만 아니라 이후에 생산된 한글 문헌들도 흥미로운 소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글 고문헌을 주요 대상으로 삼되 이후에 생산된 문헌들도 폭넓게 다루고자 한다.

한글 문헌의 종류는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헌의 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고서와 고문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간행 여부를 기준으로 간행본과 필사본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글 문헌의 전모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의 내용에 따른 분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종교서류
2) 전문서류
3) 역사서류
4) 자서 물명류(字書 物名類)
5) 운서류(韻書類)
6) 교화서류
7) 문학류
8) 언간류
9) 한글 고문서류

위의 분류는 백두현(2019)에서 제시한 한글 문헌의 내용적 분류이다. 먼저 종교서류에는 불교, 유교, 도교를 비롯하여 천주교, 개신교, 동학(천도교), 민간신앙 등에 관한 서적들이 포함된다. 종교의 대중적 전파에는 기층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한글로 된 종교서가 많이 간행되었다. 둘째, 전문서에는 의서(醫書), 역학서(譯學書), 병서(兵書), 농서(農書), 법의학서, 음식조리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서이자 기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책은 주로 중인 계층들의 사용이 많다 보니 한글로 언해된 책들이 많이 간행되었다. 셋째, 역사서류에는 각종의 역사서와 전기, 행장, 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자서 및 물명류는 한자를 익히는 데 필요한 책들로, 『훈몽자회』, 『천자문』과 같은 자서(字書)와 『물명고』, 『물명유해』 등과 같은 사물의 이름을 모아 놓은 물명류서(物名書類)가 있다. 다섯째, 운서류는 한자의 소

리[音]를 한글로 표기하여 일정하게 분류해 놓은 책을 말한다. 『동국정운』 또는 『홍무정운역훈』 등이 그 예이다. 여섯째, 교화서류는 민심의 교화를 위해 간행한 책들이다. 『이륜행실도』와 『삼강행실도』, 『정속언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곱째, 문학류에는 한글 시가와 고소설, 기행문, 견문록 등이 포함된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등의 한글 고소설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여덟째, 언간류는 한글을 부르던 옛말인 '언문(諺文)'으로 쓴 편지를 말한다. 조선시대 양반층 남성 간의 편지는 주로 한문으로 이루어진 반면 남성과 여성 사이, 여성과 여성 사이의 소통은 모두 한글 편지로 이루어졌다. 사대부가의 가족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수 남아 있으며, 왕실에서 주고받은 편지, 노비와 주인 간에 주고받은 편지 등 다양한 언간들이 남아 있다. 아홉째, 한글 고문서류는 관청이나 민가에서 작성된 각종 관문서나 사문서, 기록물 등을 말하는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관청에 올리는 소지(所志)나 청원서를 비롯하여, 개인 간의 토지나 노비의 매매문서, 매매를 위임하는 배지[牌旨 또는 牌子], 각종 의례에 사용된 물목(物目)이나 제문(祭文) 등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남아 있다.



※ 배준영 2019: 165

그림 57. 『Bibliographie Coréenne(한국 서지)』에 수록된 한글 문헌의 종류별 수

이러한 한글 문헌들은 종류별로 남아 있는 수량이 다르다. 배준영(2019)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프랑스 학자 모리스 쿠랑이 편찬한 조선 문헌 목록 해제서인 『Bibliographie Coréenne(한국서지)』에서 한글 문헌만 선별하여 문헌의 종류별 양의 차이를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이 책에 목록화된 전체 3,821종의 문헌 중 590여 종이 한글 문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을 보면, 그중 한글 소설이 포함된 4부 문묵부(文墨部)와 천주교서나 개신교서를 포함하고 있는 8부 교문부(教門部)에서 가장 많은 한글 문헌 목록이 수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소설이나 종교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한글 문헌이 생산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94]

한글 문헌은 조선의 역사적 문헌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로 기록된 문헌이며, 한문 문헌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글 문헌의 존재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글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한글 콘텐츠 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95]

세종시의 한글 문헌

그렇다면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글 문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세종시는 2012년 탄생한 신도시이기에 한글 문헌을 확보한 양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세종시에 소재한 몇몇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는 한글 콘텐츠 개발에 활용해 볼 만한 한글 문헌 자료들이 상당수 있다.

아래는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글 문헌을 필자가 조사하여 나열해 본 것이다. 이들은 시립, 국립, 사립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글 문헌 자료들이다. 비록 이 목록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기에 목록에서 누락된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한글 문헌 자료에 대해 조사하여 만든 목록이 없으므로 이 목록을 토대로 삼아 한글 문헌의 목록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6. 세종시 소재 박물관, 도서관 등의 한글 문헌 자료

기관명	유형	소장한 한글 문헌 자료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세종시립박물관	시립	『남평조씨 병자일기』, 개인 기록물, 해방 전후 지역 자료들 등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세종시청)	시립	『훈민정음』(영인본), 『한글첫걸음』, 기타 한글 문법서 등
외딴말 박물관	시립	『중용언해』, 일기 등
대통령기록관	국립	대통령 친필 휘호(한글), 각종 정부 문서
국립조세박물관	국립	보고서 문서(국한문 혼용), 품목(稟目), 치부(置簿) 등 한글 고문서류, 농사직설 등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	사립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조선시대 아동 학습서류, 『한글첫걸음』, 『바둑이와 철수』, 『초등글씨본』, 『국어교본』 등 근현대 교과서류
세종전통장류박물관	사립	『규합총서』(복제본)

[표 6]에 나타난 세종시립민속박물관(함께 기록된 세종시립박물관은 현재 건립 중에 있다)에 소장된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평조씨 병자일기』다. 이 일기는 인조 때 좌의정을 지낸 남이웅(南以雄, 1575-1648)의 처 남평 조씨 조애중(曺愛重, 1574-1645)이 병자호란 때 피난 생활을 하며 작성한 것으로, 한글로 작성된 일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이 일기는 2023년 세종시립민속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96] 『남평조씨 병자일기』는 한글 필사본 자료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세종시청 4층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는 영인본 『훈민정음』과 근대 교과서 『한글첫걸음』을 비롯한 한글 문법서 몇 가지가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한글 고서 원본이 소장되어 있지는 않다. 세종시 조치원에 소재한 자그마한 마을 박물관인 '외딴말 박물관'에는 『중용언해』 1책이 전시되어 있고 일기 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세종시에 소재한 국립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들이 쓴 한글 친필 휘호와 각종 정부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글로 된 현대사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립조세박물관은 세금 징수와 관련된 각종 고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문 자료들이지만 몇몇 자료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시에 소재한 사립 박물관인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은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등 한글 고문헌 자료와 『한글첫걸음』, 『바둑이와 철수』 등 한글로 된 근현대 교과서를 소장한 교과서 전문 박물관이다. 교과서 출판사인 '대한교과서'를 전신으로 하는 기업 '미래엔'에 소속된 이 박물관에는 교과서 자료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사용된 한글 활자, 인쇄 기계 등 의미 있는 한글 관련 사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개인 박물관 '세종전통장류박물관'에는 조선시대 여성 생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규합총서』 복제본이 전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에 소재한 한글 문헌은 아직까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앞으로 수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세종시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박물관단지가 완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박물관은 다양한 주제의 한글 문헌 자료들을 소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종시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이자 국가유산인 한글 문헌들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내외에 존재하는 한글 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종시가 직접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마을이나 문중·개인 단위에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한글 자료들이 무수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한글 자료를 수집·발굴하고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글 문헌을 활용한 한글 콘텐츠 구현 방안과 사례

한글 문헌은 다양한 한글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한글은 디자인부터 스토리텔링, 교육 자료, 문화적 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

용되기 때문이다. 한글 자모의 모양에 기반한 다양한 상품으로부터 한글을 소재로 한 각종 문화 콘텐츠까지, 한글은 지금도 무궁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글 문헌 활용 방안을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 디자인의 활용

먼저 살펴볼 것은 한글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한글 콘텐츠를 구현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한글 콘텐츠 개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한글의 디자인은 각종 문화 상품과 기념품, 패션, 건축물, 조형물, 공공시설물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문헌에 나타난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사례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 문헌 중 디자인에 가장 많이 활용된 사례는 『훈민정음』 언해본일 것이다. '언해본'이라는 명칭은 한문으로 작성된 책(『훈민정음』의 경우, 해례본)의 내용을 한글로 풀이했다는 의미이다.



그림 58.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전면부 장식



그림 59. 세종시청 앞 한글 디자인 평상

세종시에서도 이 『훈민정음』 언해본 내용을 각종 한글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세종시청의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전면부 장식은 『훈민정음』 언해본 도입부를 활용한 것이다. 또한 세종시청 앞 광장에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문장이 새겨진 벤치와 평상이 배치되어 있다.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훈민정음』 도입부는 한글 창제 동기를 밝힌 세종대왕의 어제(御製) 서문으로, 한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은 역사성과 심미성을 갖춘 한글 디자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헌으로 볼 수 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을구름'

그림 60. 훈민정음 언해본을 이용한 머그컵 디자인

위의 [그림 60]은 『훈민정음』 언해본의 모습을 머그컵의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이다. 이 제품 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훈민정음』 언해본의 문장을 활용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 자형을 활용한 디자인 사례도 있다. 세종시 세종동의 '이응다리(세종동 29-111)'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443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사용된 옛한글 자모 '옛이응(ㆁ)'의 모양을 다리 디자인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이응다리'의 둘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된 1446년의 의미를 살려 1446m로 설계하였다. 이 사례 역시 한글 문헌에 나타난 한글 디자인을 현대적 디자인에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세종시청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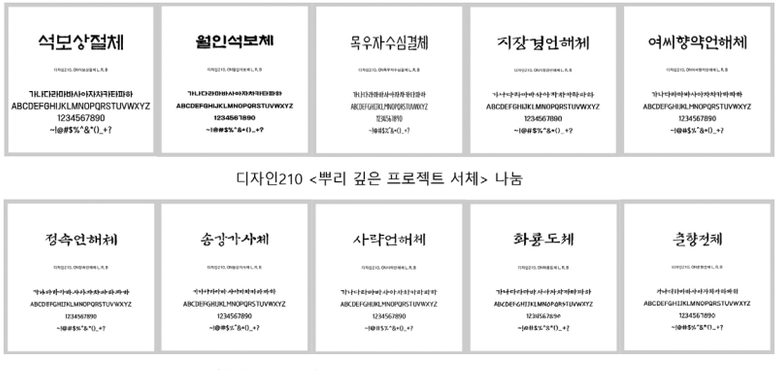
그림 61. 세종시 이응다리



그림 62. 훈민정음 해례본의 옛이응(ㆁ)

한글 문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소로 한글 서체를 빼놓을 수 없다. 한글 서체는 수백 년간 축적되어 온 다양한 모양의 한글 문자 디자인으로 폰트, 타이포그라피, 캘리그래피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한글 서체는 크게 간행본 서체와 필사본 서체로 구분된다. 간행본 서체는 책으로 인쇄된 서체를 말하고, 필사본 서체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필기체를 말한다. 간행본 서체는『훈민정음』창제 이래 간행된 각종 책에서 볼 수 있다. 같은 간행본 서체라도 목판에 새겨 인쇄된 목판본 서체와 활자로 인쇄된 활자본 서체 등 인쇄에 활용된 도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행본 서체는 디자인 요소로서 무궁한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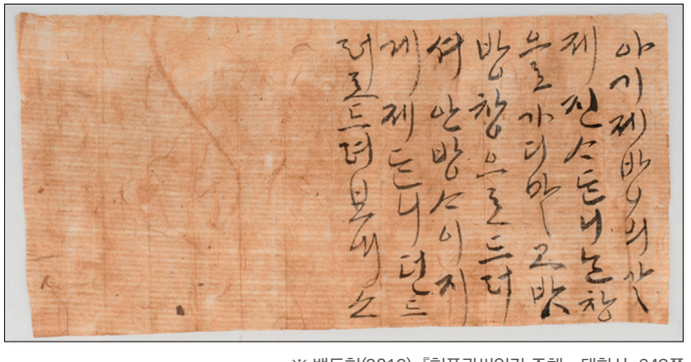
디자인210 <뿌리 깊은 프로젝트 서체> 나눔

그림 63. '디자인210'에서 개발한 한글 옛 문헌의 서체 폰트

[그림 63]은 '디자인210'이라는 업체에서 개발한 한글 문헌 서체 폰트들이다.『석보상절(釋譜詳節)』,『월인석보(月印釋譜)』및『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지장경언해(地藏經諺解)』등 한글 고문헌의 개성 있는 서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폰트로 개발한 것이다. 현재 이 폰트들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한글 폰트는 심미성과 역사성을 특별히 살린 디자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역사적 한글 자료에 기반한 이들 폰트를 간판, 안내문, 홍보물, 포스터 등에 활용함으로써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 및 다른 도시들과 구분되는 세종시만의 개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간행본 서체뿐만 아니라 필사본 서체 또한 디자인적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간행본 서체가 인쇄 도구를 활용했다는 특성상 다소 고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필사본 서체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썼다는 특성상 자유로운 형식을 보이며 회화성도 강하기 때문이다.

[그림 64]는「현풍곽씨언간(玄風郭氏諺簡)」, 곧 17세기 초 현풍 곽씨 일가에 의해 작성된 한글 편지들 중 한 장의 모습이다. 붓으로 흘려 쓴 한글 서체의 모습이 마치 추상화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한글 필사본 서체는 유려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상품에 활용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 백두현(2019),『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643쪽

그림 64.「현풍곽씨언간」의 한글 편지 서체(국립대구박물관 소장)

필사본 서체의 다양한 모습은 조선시대 왕실 인물들이 주고받은 한글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아래의 [그림 65]는 조선 효종(1619-1659)과 그의 딸 숙명공주(1640-1699)가 주고받은 한글 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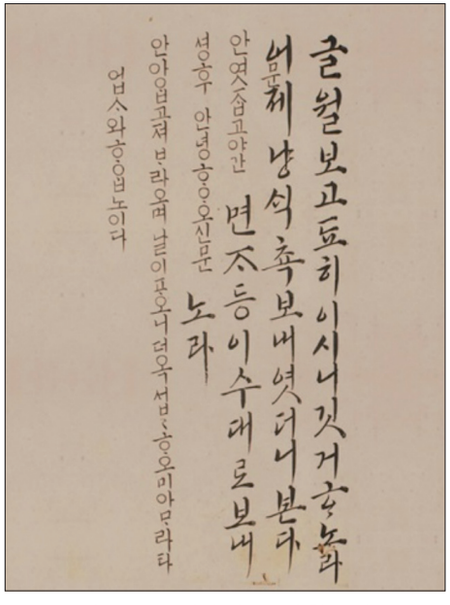


그림 65. 효종과 숙명공주의 한글 편지

이 편지는 숙명공주가 보낸 글(왼쪽 작은 글씨) 옆에 아버지 효종이 답장(오른쪽 큰 글씨)을 쓴 것이다. 숙명공주의 글씨는 이응을 특히 크게 그려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이다. 반면 효종의 글씨는 가로획과 세로획을 쭉쭉 삐쳐 내린 모양을 함으로써 날카롭고 호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문헌 자료의 필사본 한글 서체 디자인을 현대의 문화 상품 디자인에 적절히 활용하면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서체 디자인은 한글의 자모, 단어, 구나 문장, 그 이상의 텍스트 단위로 활용 가능하다. 한글 디자인 상품이나 건축물은 주로 한글 자모의 모양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한글 단어나 문장, 또는 그 이상의 텍스트 단위를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7. 한글문화 상품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한글문양 종류 예시

문양 종류	세부 사항	사례
한글 자음	한 가지 자음을 사용한 문양 (3%)	
	한 가지 이상 자음을 사용한 문양 (97.05%)	
훈민정음	원본 문양 58.6%)	
	변형 문양 (41.37%)	
한글 글귀	글귀만 사용한 문양 (50.6%)	
	글귀+단어를 사용한 문양 (11.39%)	
	글귀+그림을 사용한 문양 (37.97%)	
한글 단어	단어 1개(흘림체만 사용) (50%)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문양 (50%)	

※ 장주상·이동민, 2016, 「한글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160-161쪽

장주상·이동민(2016:160-162)은 시중에 판매되는 한글 디자인 상품을 대상으로, 한글 상품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별 양상을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한글 자음, 훈민정음, 한글 글귀, 한글 단어로 나누어 그것들을 사용한 경우의 대표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위의 [표 7]을 통해 한글 디자인이 자음과 같은 음소나 단어, 글귀(텍스트)의 차원에서 활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재윤·임경호(2017)는 한글을 활용한 국립 뮤지엄숍 문화 상품 디자인의 방향성을 논하는 논문에서, 문화 상품의 디자인에 한글을 적용할 때 특정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음소 단위를 이용한 '패턴 형식', 즉 '패턴화'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한글은 음소 단위의 문자로서 패턴화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화는 위의 [표 7]에서 보이는 한글 자음을 사용한 넥타이 디자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식료품 등의 국산 제품들은 의도적으로 한글을 포장에 활용한다고 한다. 외국인 소비자들이 한글이 들어간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글을 활용한 제품 디자인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세종시에서도 지역 소재 업체들이 브랜드 및 상품의 디자인에 한글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한글 스토리텔링의 활용

한글 콘텐츠 개발의 또 다른 핵심 분야는 '한글 스토리텔링'이다. 이 분야의 과제는 한글과 관련된 내러티브의 소재를 개발 및 가공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글과 관련된 주제의 흥미로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한글 스토리텔링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소재를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콘텐츠에 등장한 한글 관련 이야기의 소재는 주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이 한글을 사용하는 만큼,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 입장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잘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세종 25년(1443) 음력 12월 30일 두 번째 기사 | 세종 28년(1446) 음력 9월 29일 네 번째 기사 일부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누리집

그림 66. 『세종실록』의 한글 창제 관련 기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훈민정음 창제 기록과 『훈민정음 해례본』 등의 한글 문헌을 기반으로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에는 『훈민정음』 창제(1443) 및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1446)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글 창제 이야기를 다루는 극적인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애용되어 왔다.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 창제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낸 첫 작품은 박종화(1901-1981)의 소설 『세종대왕』이다. 그가 1969년부터 1977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던 소설을 갈무리하여 열 권으로 출판한 것이 아래의 [그림 67]에 보이는 대하소설 『세종대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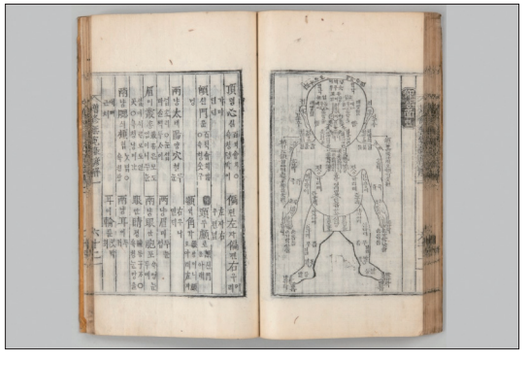
그림 67. 박종화 대하소설 『세종대왕』 초판(1977년/배준영 소장)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작품의 마지막 권인 제10권에서 다루어진다. 박종화의 『세종대왕』은 이후 세종대왕 관련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고[97] 지금까지도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로 재탄생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훈민정음』 이외의 한글 문헌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다.

표 8. 한글 문헌을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한 영화 및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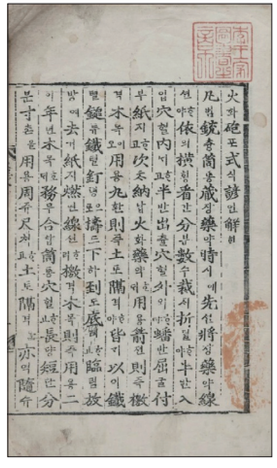
연도	유형	제목	소재가 된 한글 문헌·관련 사건
2007	드라마	〈별순검〉(MBC)	『증수무원록언해』
2008	영화	〈신기전〉	『화포식언해』
2010	영화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이응태 언간(원이 엄마 편지)』
2011	드라마	〈무사 백동수〉(SBS)	『무예도보통지언해』
2019	영화	〈말모이〉	조선어학회의 『조선어큰사전』 편찬



※ 국립한글박물관

그림 68. 『증수무원록언해』

2007년 방영한 MBC 드라마 〈별순검〉은 1792년 간행된 한글 법의학서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를 소재로 하고 있다. 『증수무원록언해』는 사람의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해설한 책 『증수무원록』을 당시의 형률관(刑律官)들이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언해본[98]으로 간행한 것이다.



※ 국립한글박물관

그림 69. 『화포식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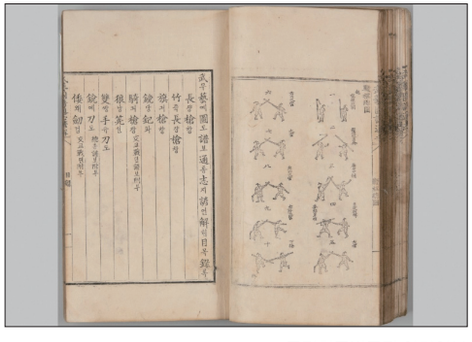
2008년 개봉한 영화 〈신기전〉은 세종대에 진행된 화포 신기전(神機箭) 개발을 영화화한 것이다. 드라마의 직접적인 소재는 물론 실제 무기 신기전이지만, 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한글 문헌 『화포식언해』가 영화 제작의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화에서도 화포 제작 비법이 담긴 책을 비밀리에 전하려 하는 장면들이 연출된다. 『화포식언해』와 같은 기술서들은 주로 한문에 능통하지 않은 중인 계층 기술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언해본으로 간행된 경우가 많다.



※ 국립경국대학교박물관

그림 70. 이응태 묘 출토 언간(원이 엄마 편지) (국립경국대학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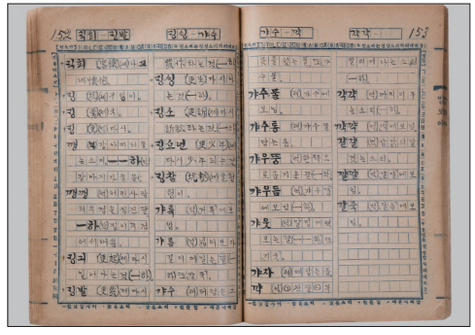
1998년 경북 안동에서 이응태(李應台, 1556-1586)라는 인물의 묘를 이장하던 중 관 안에서 발견된 편지도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편지 발신인의 호칭을 따 일명 '원이 엄마 편지'로 불리는 이 편지는 1586년 31살의 이른 나이에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사망한 남편 이응태에게 그의 아내가 쓴 애절한 내용의 편지이다. 2010년 영화 〈우리 만난 적 있나요〉는 이 편지에 담긴 이응태 아내의 안타까운 사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원이 엄마 편지'는 이 영화 이외에도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안동에 조성된 '원이 엄마 테마 공원(안동시 정하동 236-1)' 등 많은 문화 콘텐츠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 국립한글박물관 아카이브

그림 71.『무예도보통지언해』

2011년 방영된 SBS 드라마 〈무사 백동수〉는 정조대에 활동한 실존인물 백동수(白東脩, 1743-1816)의 생애와 1790년 편찬된『무예도보통지언해(武藝圖譜通志諺解)』를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 책은 같은 해에 간행된『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언해본으로, 군사 훈련에 사용되는 무술을 다루고 있다.



※ 국립한글박물관 아카이브

그림 72. 말모이 원고

2019년 개봉하여 큰 화제가 된 영화 〈말모이〉는 한국사 최초의 한글 사전의 토대가 된 '말모이 원고'를 소재로 하고 있다. '말모이 원고'는 한글학자 주시경(周時經, 1876-1914) 등이 한국어 사전 편찬을 위해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집필한 원고이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한국어의 보존을 위한 사전을 편찬하려 했던 이들의 노력은 주시경의 사망과 일제의 탄압으로 한때 중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작성한 '말모이 원고'는 이후 1929년부터 집필이 시작되어 1947년 완성된『조선말 큰사전』의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심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제시된 사례들에서 나타났듯이, 한글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고문헌을 비롯한 역사적 한글 자료의 제작 배경·내용 및 관련 사건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백두현 2015).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한글 자료들을 다각도로 조사해 봄으로써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발굴해 낼 수 있다.

세종시에 소재한 한글 문헌들도 무수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에서 영인본을 소장한『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99]이다.

1447년 편찬된『월인천강지곡』은 1년 전인 1446년 사망한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대왕이 지은 찬불가 모음집이다. '월인천강(月印千江)'의 의미는 하늘의 달그림자가 천 개의 강에 비치듯 부처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비친다는 것으로, 세종은 이 책의 편찬

을 통해 종교의 힘을 빌려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얽혀 있기에, 이 책은 오페라·뮤지컬 등 각종 공연예술 작품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세종시 차원에서도 이를 소재로 한 공연 등의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해 봄 직하다.



※ 교과서박물관 누리집

그림 73. 교과서박물관 소장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에는 1948년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 또한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만한 소재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국어 교과서와 달리 『바둑이와 철수』의 내용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이 책으로 언어와 읽기를 동시에 가르치기 위해 아동문학 창작 기법을 의도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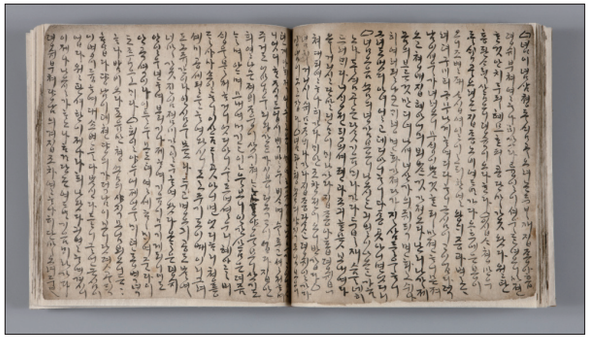


※ 교과서박물관 누리집

그림 74. 『바둑이와 철수』

또한 이 책에 등장하는 개 '바둑이'는 멸종 위기에 놓인 한국 토종견으로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바둑이라는 명칭이 김규환(金圭桓, 1926-2011)의 1980년 동요 '바둑이 방울'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데 비해, 바둑이를 직접 본 사람은 드물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모피용으로 한국의 개들을 도축하면서 바둑이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바둑이 복원에 성공했기 때문에[101] 이러한 바둑이의 사연을 1948년 국어 교과서 편찬과 연결시켜 다양한 각도의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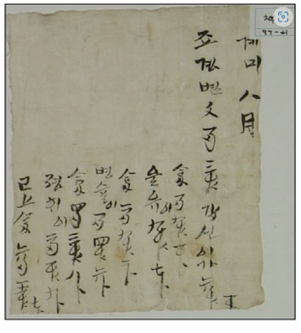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남평조씨 병자일기(南平曺氏丙子日記)』 역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일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일기로, 조선 인조대 좌의정 남이웅(南以雄, 1575-1648)의 아내 남평 조씨 조애중(曺愛重, 1574-1645)이 병자호란으로 피난 생활을 겪는 동안 작성한 것이다. 일기의 내용에는 병자호란이라는 거시사적 사건과 함께 전란기 사람들의 생활상 등의 미시사가 드러나 있다. 또한 조애중 개인의 심정이 드러나 있기에 문학적 내러티브도 충분하다. 『남평조씨 병자일기』는 아직 이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활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차후 이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유산포털 누리집에서 재인용

그림 75. 『남평조씨 병자일기』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 소장된 1883년 치부(置簿)를 통해서는 문서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활용해 상상력이 가미된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수 있다. 치부란 돈의 출납을 기억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된 이 고문서에는 돈을 낸 사람들로 보이는 '각선이', '병슐이', '졍ㅎㅣ이' 등의 한글 이름이 드러나 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을지에 대한 상상력과 개항기였던 문서 작성 당시의 시대상을 결합한다면 이 문서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창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국립조세박물관

그림 76. 1883년 치부(置簿)

세종시에 소재한 이들 문서 외에도 국내외의 수많은 역사적 한글 자료들은 모두 한글 스토리텔링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한글 문헌과 금석문 자료뿐만 아니라 한글이 새겨진 생활용품, 한글 타자기 등 한글과 관련된 모든 문화유산이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세종시가 역사적 한글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발굴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넘치는 한글 스토리텔링의 허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한글 문헌을 활용한 지역 국가유산 활용 사업

다음으로는 국가유산청 주관 〈지역별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한글 문헌을 활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매년 각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2025년 현재 이 사업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① 생생 국가유산 사업
②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③ 국가유산 야행 사업
④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2025년 세종시는 위의 다섯 가지 중 세 건의 사업에 선정되었다. 먼저 생생 국가유산 사업에서는 '생생독락, 정원의 빗장을 열다'라는 이름으로 나성동 소재 독락정(獨樂亭)을 활용한 사업이 선정되었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는 연기향교(燕岐鄕校, 연기면 교촌3길 13)를 활용한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라는 사업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는 영평사(永平寺, 장군면 산학리 444) 소재 목조나한상을 활용한 '장군 영평사 복호나한(伏虎羅漢), 부처를 알리다'라는 사업이 선정되었다.

2025년 한글문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는 차후 관내 소재 한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유산청의 지역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생 국가유산 사업의 일환으로는 연기향교의 존재에 착안하여 외딴말 박물관 소장 『중용언해(中庸諺解)』 등 한글로 된 유교 서적들을 활용한 필사·캘리그래피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그림 77. 세종 홍판서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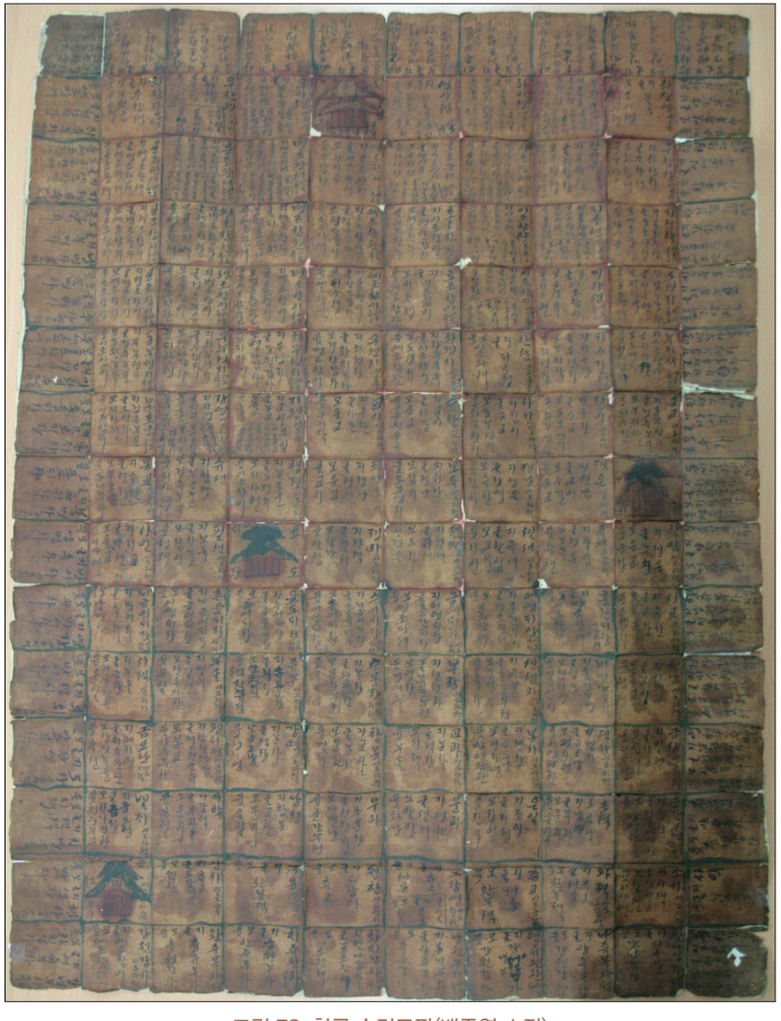


그림 78. 한글 승경도판(배준영 소장)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의 소재로는 세종 홍판서댁(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이 적합하다. 양반가의 고택인 홍판서댁에서는 세종시가 보유한 조선시대 한글 편지와 일기 등을 활용한 붓글씨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글로 된 조선시대 보드게임 '승경도(陞卿圖)'를 체험하는 것도 고택 공간에서 진행 가능한 문화 콘텐츠로 제시할 수 있다.



※ 세종특별시청 누리집

그림 79. 부강초등학교 강당

부강초등학교 강당(부강면 부강로 15) 역시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을 배경으로 한글 문헌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세종시의 장소이다. 1926년 건립된 부강초등학교 강당은 일제강점기의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개념을 적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조선어 교과서들과 광복 이후 제작된『한글 첫걸음(1945)』등의 한글 교재를 비교하면서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던 시기의 비극성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실상을 알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역사적 한글 자료는 다양한 국가유산들과 함께 활용될 수 있다. 세종시 관내 소재 국가유산들과 역사적 한글 자료들을 연관지어 흥미로운 활용 사업들을 기획한다면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풍부한 한글 콘텐츠가 개발될 것이다.

기타 참고할 만한 활용 사례들

다음으로는 역사적 한글 자료를 활용한 세종시 한글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국내외 콘텐츠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키릴문자 벤치 프로젝트

키릴문자는 불가리아를 비롯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몽골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자이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Sofia)시에서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키릴문자의 예술성을 부각하면서 그것으로 작성된 불가리아 시인들의 작품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12개 키릴문자의 형상으로 만든 공공 벤치에 부착된 큐아르(QR) 코드를 통해 불가리아 작가들의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소피아시 곳곳의 조용한 장소에 숨겨진(?) 이들 벤치에서는(후술할 전시의 이름이 'Hidden letters'인 이유다) 각종 시 낭송회와 문학 토론회가 열렸다. 이러한 키릴문자 벤치 프로젝트의 과정들은 사진작가들에 의해 촬영되어 사진집 『문학도시 소피아』가 출간되기도 했다.



그림 80. 키릴문자 벤치 전시 사진



그림 81. 소피아시의 키릴문자 벤치 활용 모습

이 키릴문자 벤치는 2022년 9월 서울 을지로 소재 KF 글로벌센터 전시실에서 진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주한불가리아대사관의 공동기획전시 〈Hidden letters〉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세종시립도서관에서도 이 전시가 진행되었다. 〈Hidden letters〉는 세종시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불가리아의 문자와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Hidden letters' 기획 전시 센터에서는 벤치 제작 및 전시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한다. 하나의 전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파생적인 상품과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의 한글 콘텐츠도 이러한 파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림 82. Hidden letters 기획전시센터의 모습

키릴문자 벤치 프로젝트에서 세종시의 한글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만한 점은 벤치의 디자인이다. 벤치의 전체적 형태는 고딕체 키릴문자의 모양이지만, 그 표면에는 필기체 키릴문자의 모습이 멋스럽게 적용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글에도 필사본 서체가 있는데, 이들의 디자인을 공공예술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이다. 현재는 한글 캘리그래피가 많은 문화상품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문헌에 나타난 필사본 한글 서체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글 편지를 활용한 전통언간 쓰기 교육

필자는 몇 해 전 한국국학진흥원의 한글 편지를 조사하던 중 한글 음식 조리서 『음식디미방』의 저자, 정부인 안동장씨 장계향(張桂香, 1598-1680)과 그의 부군 이시명(李時明, 1590-1674)의 친필 언간(諺簡)[102]을 발견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Bae Junyoung 2023). 이들 편지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집안일, 농사일, 노비들과 관련한 일, 음식을 주고받은 일 등 각종 다양한 미시사적 사건들이 흥미롭게 전개되어 있었다. 이들 편지에 드러난 17세기 한글의 형태와 경북 지역 향촌 사회의 모습은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가치가 상당하다. 또한 명필로 유명했던 장계향의 한글 필체는 각종 문화상품의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필자는 『장계향·이시명 언간』이 인문학적·예술적 한글 교육 콘텐츠로서의 잠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통 언간 쓰기 교육' 콘텐츠로 개발했다. 이 콘텐츠로 대학 학부생들과 평생교육원의 시민 수강생들에게 필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 결과, 수강생들 대부분 잘 알지 못했던 전통을 배우는 데에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수강생들은 옛한글로 된 편지를 해독해 보고, 전통적 작법으로 본인의 편지를 써보면서 한국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83. 필자가 진행한 전통언간 쓰기 수업의 모습

언간이 갖는 교육적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발표된 바 있다.[103] 연구 결과들은 언간이 한국어 교육은 물론 역사·민속·예절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전통 언간 쓰기 수업의 수강생들은 직접 전통 방식의 한글 편지를 작성하면서 언간의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경험한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도 전통 언간 쓰기 수업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한글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한글 '캘리그래피' 수업은 붓으로 한글을 쓴다는 점에서 언간 쓰기 수업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언간 쓰기 수업은 정해진 글귀가 아닌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각을 작품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캘리그래피 수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 캘리그래피 수업이 예술적 효과를 가진 서예 기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언간 쓰기 수업은 [그림 88]처럼 자신의 고유한 필체를 살린다는 점에서 캘리그래피보다 접근하기 쉽다.



※ 디지털한글박물관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그림 84. 조선 정조가 유아기에 작성한 한글 편지

우리는 1443년 이래 582년을 이어 온 한글문화에서 전통을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다. 한글 교육의 기능을 겸한 문화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한국인들은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까지도 고차원적 한글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안동시 브랜드 웹툰 '안동 선비의 레시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창작한 웹툰 '안동 선비의 레시피'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된 이 웹툰은 안동에서 발견된 16세기 음식 조리서 『수운잡방(需雲雜方)』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수운잡방』은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 현존하는 사대부가의 음식 조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고 실제로 이 웹툰에 활용되었다.



※ 카카오페이지

그림 85. 웹툰 '안동 선비의 레시피' 표지

'안동 선비의 레시피'는 시즌1을 넘어 시즌2까지 출시되고, 카카오페이지 일일 조회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104]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어 역사에 기반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심지어 이 웹툰에 기반한 단편 드라마까지 제작되어 2023년 KBS2TV에서 방영되기도 했다.[105]

앞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제작에서도 '안동 선비의 레시피' 성공에서 드러난 웹툰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웹툰은 상상력을 시각화·작품화하기 쉬우며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대중적 인기를 얻은 웹툰을 2차 창작물로 발전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상 면에서도 웹툰은 문화콘텐츠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 소재 한글 문헌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대중성을 갖춘 웹툰 콘텐츠를 기획한다면 한글 콘텐츠의 대중화와 한글 문화유산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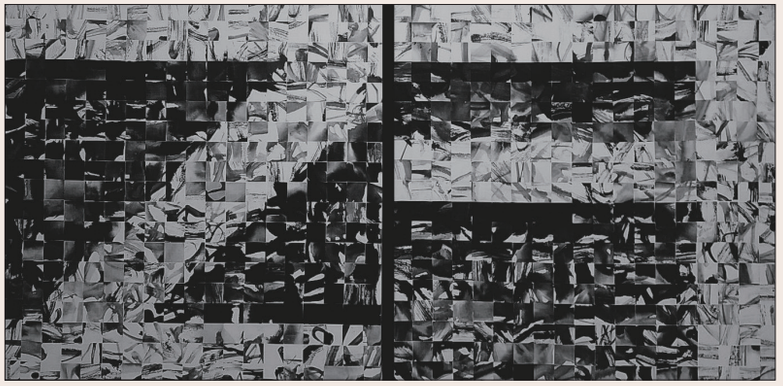
맺음말

지금까지 세종시의 한글 문헌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현 방안과 참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글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K-POP을 위시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미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한글문화에 기반한 흥미로운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문화 현상을 일으킬 조건은 충분히 주어진 것이다. 세종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했으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한글문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글 콘텐츠 개발을 주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이 세종시의 한글 콘텐츠 개발에 있어 부족하나마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지역 작가 작품⑤

이 채 론

인천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서울)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대학 영상대학원에서 콘텐츠 기획으로 문화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첫 개인전('오늘 저녁 뭐하지?', 2017)을 세종에서 열었고 7번째 개인전('음차구역', 2025)에서는 소리글자인 한글의 해학적인 특성에 집중해 재치 있는 작업을 선보였다. 이채론의 작업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 그 중에서도 일상을 품는 언어에 집중한다. '보통'이 가진 힘을 믿는 작가는 오늘도 일상의 언어, 우리 일상을 지키는 문화와 예술에 집중하며 '보급형 예술가'를 지향한다. 2025 한글문화특별기획전(조치원1927아트센터) 참여, 2023 한글특화기획 공모 선정 등 다수의 전시기획, 2025 고등학교 개정 미술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토글드 레터스 no.1〉, 2025

컴퓨터가 등장하고 우리는 키보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는 '언어 기록 기술 보편화의 정점'이고 '일상 언어의 발원지'다. ㅋ과 z는 토글드 레터스로 키보드에서 페어링(pairing) 된 문자다. 각각 웃음(ㅋ)과 졸음(z)을 상징하고 있고, 이를 병치하여 Sleeping ㅋ, Laughing Z로 개별작품이 되기도 한다. 키보드의 페어링 레터스를 시리즈로 작업 중이다.



〈우리사랑 민초단〉, 2023

보통의 인간, 소시민으로서 백성을 상징하는 '민초'와 현대인의 '민트초코'문화의 신조어이자 줄임말인 '민초'가 같은 음차로 표기되는 것에 흥미를 가졌고 그렇게 우리가 향유하는 비주류의 목소리를 시각예술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재미가 생기는 중이다.

참고문헌

Ⅰ. 훈민정음과 세종의 시대(이규철)

단행본·번역서·논문

강만길. (1977). 한글 창제의 역사적 의미. 창작과 비평, (44), 창작과비평사.

김주필. (2014). 최만리 등 집현전 학사들이 올린 甲子上疏文의 내용과 의미. 진단학보 122. 진단학회.

노마 히데키. (2010). ハングルの誕生 音から文字を創る. 김진아 외(역) (2011).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 돌베개.

문중양. (2006). 세종대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 역사학보, 189. 역사학회.

이규철. (2022). 정벌과 사대: 15세기 조선의 대외정벌과 대명의식. 역사비평사.

이기문. (1995). 2. 훈민정음의 창제. 한국사, 26. 국사편찬위원회.

이숭녕. (1958). 世宗의 言語政策에 關한 硏究. 亞細亞硏究, 1(2).

이숭녕. (1964). 최만리 연구.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장지연. (2023). 한문이 말하지 못한 한국사. 금요일엔 역사책 1, 한국역사연구회역사선, 푸른역사.

정다함. (2009). 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朝鮮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정다함. (2013). "中國(듕귁)"과 "國之語音(나랏말싸미)"의 사이: 鮮初 漢文·漢吏文·漢語와 訓民正音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60. 한국비교문학회.

정다함. (2023). 세종의 훈민정음 제정에 대한 국어사 연구의 서사와 그 문제점들: 이기문의 학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42. 역사문제연구소.

정다함. (2023). 최만리 등의 諺文 반대 상소와 세종의 訓民正音 제정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재해석. 한국사학보, 90. 고려사학회.

Ⅱ. 한글의 추상, 추상도시 세종(한상헌)

단행본·논문·번역서

고충환. (2019). 신상용-욕망도시, 추상도시에서 꿈을 꾸다. 서울아트가이드, 2019-05.

김시덕. (2022).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포레스트북스.

김영민. (2022). 작은 생활, 작은 철학, 낮은 공부. 늘봄.

김찬호. (2002).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노마 히데키. (2010). ハングルの誕生 音から文字を創る (김진아·김기연·박수진 역, 2011, 한글의 탄생). 돌베개.

렘 콜하스. (2013). Junkspace (임경규 역, 2020, 정크스페이스/미래도시). 문학과지성사.

로버트 파우저. (2019). 로버트 파우저의 도시탐구기. 혜화.

롤랑 바르트. (1953). Le degré zéro de l'écriture (김웅권 역, 2007, 글쓰기의 영도). 동문선.

르 코르뷔지에. (1922). Vers une Architecture (이관석 역, 2007, 건축을 향하여). 동녘.

리처드 세넷. (2018). Building and Dwelling (김병화 역, 2020, 짓기와 거주하기). 김영사.

모리 히로시. (2013). 人間はいろいろな問題についてどう考えていけば良いのか (박재현 역, 2018, 생각의 보폭). 마인드빌딩.

박해천. (2011),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에런 베츠키(2017). Architecture Matters (조순익 역, 2021, 건축이 중요하다). 이유출판.

앙리 르페브르. (2009). Le droit à la ville (곽나연 역, 2024, 도시에 대한 권리). 이숲.

에드워드 글레이저. (2011). Triumph of the City (이진원 역, 2011, 도시의 승리). 해냄.

에릭 클라이넨버그. (2018). Palaces for the People (서종민 역, 201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웅진지식하우스.

유지원. (2019). 글자풍경. 을유문화사.

장하석. (2004). Inventing Temperature: Measurement and Scientific Progress (오철우 역, 2013, 온도계의 철학). 동아시아.

제인 제이콥스. (1993).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필립 리브. (2001). Mortal Engines (김희정 역, 2010, 모털엔진). 부키.

최민아. (2019). 도시는 만남과 시간으로 태어난다. 샘터사.

최정우. (2021). 세종시의 생성과 형성과정. 2021 세종학포럼 자료집.

웹페이지

경기에코뮤지엄. (n.d.). 에코뮤지엄 소개. https://ecomuseum.kr/usr/wap/detail.do?app=10333&seq=10425

느티나무재단. (n.d.). 재단 소개. https://www.neutinamu.org/page/s3/s1.php

온라인 어원 사전. (n.d.). Abstract. https://www.etymonline.com/kr/word/abstract

위키백과. (n.d.). 게슈탈트. https://ko.wikipedia.org/wiki/%EA%B2%8C%EC%8A%88%ED%83%88%ED%8A%B8

위키백과. (n.d.). 추상. https://ko.wikipedia.org/wiki/%EC%B6%94%EC%83%81

Ⅲ. '한글'이라는 옷을 입은 세종시(이재민)

단행본·논문

김민형, & 김현주. (2015). 사물인터넷과 초연결사회: 개념적 토대 및 기술인문학의 가능성. 영상문화, 27, 215-238.

김순배, & 김영훈. (2010).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45(2), 201-220.

김이경, & 유미숙. (2019). 맘충 호명에 대한 담론 분석: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1), 43-63.

도수희.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명 제정에 관한 제 문제. 지명학, 12, 69-89.

박승현. (2017).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9(1), 158-183.

이재민, & 김진희. (2015). 지역문화 주제공원으로서 유교랜드 특성. 글로벌문화콘텐츠 20, 169-187.

이재민. (2019).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본 지역문화콘텐츠의 창출과정과 의미: 칠곡군 영오리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 7(1), 1-26.

이재민. (2020). '할머니 연극단'의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구현전략. 인문사회21, 11(2), 1679-1690.

이재민 외. (2021).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한글사랑거리 조성·운영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

태지호. (2014). 공간형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웹페이지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n.d.). 세종의 인문 정신을 구현한 한글 문화 도시. https://sejong.grandculture.net/sejong/toc/GC07701443

세종포스트. (2020, June 30). 왜 '세종시'인가? 그 이름 속에 무엇이 있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71

Ⅳ.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 탐구(유정미)

단행본·논문

강신항. (1996). 증보판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슬옹. (2013). 세종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창비.

박종국. (1989).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창원. (202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박현모. (2014). 세종처럼. 미다스북스.

석금호. (2002).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미진사.

안병학. (2007). 한글 창제 철학에 담긴 공공정보디자인적 특성. 한국디자인학회지, 20(4).

안상수, 한재준, & 이용제. (2009). 한글 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원경인. (1990). 한글 글자꼴에 따른 판독성과 가독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유정미. (1999). 타이포그래피의 한국성 연구: 단순 미학, 그 고유성의 근거에 대하여. 한국디자인학회지, 12(1).

유정미. (2010). 훈민정음에 담긴 디자인 철학의 현대성: 20세기 모더니즘 철학에 비추어. 글자씨, 2(1).

유정미. (2015). 그래픽 디자이너들. 홍디자인.

윤영기. (1999). 윤영기의 한글 디자인. 정글.

한재준. (1996).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지, 17, 17호.

웹페이지

블로그. (n.d.). https://blog.naver.com/mofakr/222897328233

블로그. (n.d.). https://blog.naver.com/04-pd/221888412880
블로그. (n.d.). https://blog.naver.com/bucks1092/220192177593
브랜드브리프. (n.d.). https://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8
초이스뉴스. (n.d.). https://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61

Ⅴ. 한글 문헌을 활용한 세종시 한글 콘텐츠 구현 방안(배준영)

단행본·논문·학위논문

국립한글박물관. (2016). 근현대 한글문화자원 조사 연구. 국립한글박물관.
김미성. (2018). 낙서에서 거리예술로 - 파리의 그라피티. (남덕현 외(편), 문자, 매체, 도시 (pp. 66-97)). 한국문화사.
김수영. (2014). 문화콘텐츠 유형분류의 전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7, 27-54.
김영순 외. (2010).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김영애. (2003).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획. 인문콘텐츠, 1.
김일관. (2014). 한글을 활용한 국가상징 기념상품 디자인 연구. 조형미디어학, 17(4), 65-70.
김평수 외. (2012). 문화콘텐츠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평수. (2014).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남덕현 외. (2018). 문자, 매체, 도시. 한국문화사.
류정아. (2006).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축제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8, 39-57.
박경철. (2009). 문화콘텐츠 캐릭터의 네이밍 개발을 위한 방법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5, 193-206.
박상환. (2008). 문화콘텐츠와 인문학의 소통과 가능성. 인문과학, 41, 217-235.
박연미. (2022). 한글 글꼴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박장순. (2006). 문화콘텐츠학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배준영. (2019).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에 수록된 한글문헌 목록과 그 가치. 국어사연구, 29, 157-204.
배준영. (2024).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전략과 사업 방안 연구. 콘텐츠문화연구, 7, 39-64.
백낙천. (2012). 언간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모색. 인문논총, 29, 16-26.
백낙천. (2023). 언간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방안. 국제언어문학, 54, 203-223.
백두현. (2015). 한글문헌학. 태학사.

백두현, & 배준영. (2014).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방법 서설. 정신문화연구, 37(3), 225-258.
서곡숙. (2008). 경북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육성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송재민. (2016). 한글과 세계문화유산 한국 건축물을 융합한 패션문화상품 개발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신승일. (2009). 문화산업으로서의 한글디자인 전망과 과제. 한국어정보학회 국제학술대회, 352-382.
안상수. (2004). 한글 디자인과 '어울림'. 디자인학연구, 17(3), 383-392.
안장혁. (2007). 전통문화예술을 통한 한국의 문화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 한글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2, 463-494.
유제상. (2017). 문화콘텐츠학, 어디로 가는가: 인문학 중심의 문화콘텐츠학에 관하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5-8.
윤을요, & 박선경. (2009). 한글 패턴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3), 164-174.
이승희. (2011).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 정신문화연구, 34(2), 219-246.
인문콘텐츠학회. (2006). 문화콘텐츠 입문. 북코리아.
장주상, & 이동민. (2016). 한글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예술·디자인학연구, 19(1), 155-164.
장창영. (2008). 한국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활용방안. 한국학논집, 44, 263-291.
정창권. (2022).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제2판). 북코리아.
조용림, & 백낙천. (2014). 언간을 활용한 국어 생활사 교육 방안. 국제언어문학, 30, 165-186.
조용림, & 백낙천. (2015). 언간의 국어교육적 활용 방안. 한어문교육, 33, 139-160.
조재승. (2008). 한글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및 문화상품 디자인 활용 방안 연구. 과학과 문화, 5(4), 51-62.
조재윤, & 임경호. (2017). 국립 뮤지엄 숍의 한글 문화상품 디자인 방향성. 한국디자인포럼, 57, 195-2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국립한글박물관 콘텐츠 활용을 통한 박물관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Bae Junyoung. (2023). A study on the content and value of the Hangeul letters (eongan) … Classical Korean Studies, 5, 241-269.

웹페이지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n.d.). 세종한글고전. http://db.sejongkorea.org

2023 한글 원천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 (n.d.).
https://www.spectory.net/korean/hangeul2023

교과서박물관. (n.d.). https://www.textbookmuseum.co.kr

구찌. (n.d.). https://www.gucci.com

듀코몰/자딕앤볼테르. (n.d.). https://dukomall.com/zadig/products/117823175

드라마 스페셜『수운잡방』(2023, KBS2) 소개 페이지:
https://program.kbs.co.kr/2tv/drama/dramaspecial2023/pc/board.
html?smenu=1664aa&bbs_loc=T2023-0162-01-512540,read,,10,840217

디지털한글박물관. (n.d.). 한글 100대 문화유산.
https://archives.hangeul.go.kr/koreanHeritage

디지털한글박물관. (n.d.). 정조어필한글편지첩.
https://archives.hangeul.go.kr/collection/bibliography/1471

리딩소피아재단. (n.d.). Hidden Letters Bulgaria. http://hiddenlettersbulgaria.com

리딩소피아재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8945987827549
7&set=pcb.1089460821608736

세종특별자치시. (n.d.). 이응다리.
https://www.sejong.go.kr/prog/tursmCn/tour/sub01_19/view.do?cntno=27

카카오페이지. (n.d.). 웹툰 '안동 선비의 레시피'.
https://page.kakao.com/content/60660714

한국국제교류재단. (n.d.). KF글로벌센터 온라인 전시실.
https://premium.360vrmuseum.com

한국학자료포털. (n.d.).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

한국학중앙연구원. (n.d.). 한글고문헌관. https://dh.aks.ac.kr/Encyves/wiki/한글고문헌관_
개관

이미지 출처

Ⅱ. 한글의 추상, 추상도시 세종(한상헌)

최정우, "세종시의 생성과 형성과정", 〈2021세종학포럼〉 자료집

https://www.flickr.com/photos/appelogen/5179792842

https://www.flickr.com/photos/dalbera/19234235433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nsulae_buildings_in_ancient_Rome.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oswaewon_1.jpg

https://www.flickr.com/photos/harry_nl/2732553951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allingwater_-_by_Frank_Lloyd_Wright.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osettaStone.png

https://www.flickr.com/photos/crcedinburgh/10154435823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0/UCB_Phags-pa.png

https://www.deviantart.com/kaek/art/Traktionstadtsgesellschaft-352591503

https://www.flickr.com/photos/chriswaits/7285246358

https://www.flickr.com/photos/116153022@N02/15513625249

Ⅳ.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 탐구(유정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7600&cid=58840&category
Id=58856

V. 한글 문헌을 활용한 세종시 한글 콘텐츠 구현 방안(배준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52495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www.gucci.com
https://dukomall.com/zadig/products/117823175
https://archives.hangeul.go.kr/ko/M000000594/heritage/view?heritageNo=90&pageIndex=1
https://archives.hangeul.go.kr/ko/M000000594/heritage/view?heritageNo=27&pageIndex=1
https://www.textbookmuseum.co.kr/data/specialView.mrn?cmIdx=5009
https://www.textbookmuseum.co.kr/data/specialView.mrn?cmIdx=5013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796840&ccbaKdcd=21&ccbaAsno=0000040000000&ccbaCtcd=45
https://www.nts.go.kr/museum/na/ntt/selectNttInfo.do
http://hiddenlettersbulgaria.com/

미주

1) 한국사학계에서는 의외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이나 의미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다. 국문학계에서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된 것에 비해 한국사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제한되었다. 다만 한국사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연구들은 모두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성과들이었다. 관련 대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만길, 1977「한글 창제의 역사적 의미」『창작과 비평』 통권 44호, 창작과 비평사
정다함, 2009「麗末鮮初의 동아시아 질서와 朝鮮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韓國史學報』 36, 高麗史學會
정다함, 2013「"中國(듕귁)"과 "國之語音(나랏말ᄊᆞᆷ)"의 사이 – 鮮初 漢文·漢吏文·漢語와 訓民正音의 관계성을 중심으로」『比較文學』 60, 한국비교문학회
정다함, 2023「세종의 훈민정음 제정에 대한 국어사 연구의 서사와 그 문제점들 – 이기문의 학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역사비평』 142, 역사문제연구소
정다함, 2023「최만리 등의 諺文 반대 상소와 세종의 訓民正音 제정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재해석」『韓國史學報』 90, 高麗史學會
장지연, 2023『한문이 말하지 못한 한국사』 금요일엔 역사책 1 – 한국역사연구회역사선, 푸른역사
2) 이상 명·타타르·오이라트에 관련된 국제정세는 다음 글에 바탕을 두고 서술했다. 김구진, 2001「세종 시대 대외 정책」『세종문화사대계』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839~840쪽 참조.
3) 박원호, 2002「宣德年間 明과 朝鮮間의 建州女眞」『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03~204쪽.
4) 박원호, 2002「15세기 東아시아의 정세」『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41~242쪽 참조.
5)『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4월 27일 정유
6) 세종의 철저한 사대론에 대해서는 한명기, 2001「세종 시대 대명관계와 사절의 왕래」『세종문화사대계』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856~858쪽 참조.
7) 이규철, 2022『정벌과 사대』, 역사비평사, 113~114쪽.
8)『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7일 기미

9)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13일 을축
10)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11)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2월 17일 신축
12) 이규철, 2022 『정벌과 사대』, 역사비평사, 126쪽.
13)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2월 30일 경술
14)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16일 병신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356) '고금운회거요 권27~30'
16)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17)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18) 위와 같음.
19)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20) 위와 같음.
21)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2월 16일 신묘;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2월 12일 임오
22)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6일 갑신
23)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7월 23일 기유
24)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8월 7일 임술
25)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29일 경신
26) 『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1월 29일 갑신;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1월 6일 을유; 『세종실록』 권66, 세종 16년 10월 24일 정묘
27)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세종실록』 권72, 세종 18년 4월 9일 을사
28) 『세종실록』 권82, 세종 20년 7월 30일 임자
29)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6월 29일 을사
30) 『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7월 2일 임인
31)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9월 17일 무오
32)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 7월 11일 갑술
33) 이 글은 〈2023 세종학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전면 재서술하였음을 밝힘
34) 온라인 어원 사전 https://www.etymonline.com/kr/word/abstract
35)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B6%94%EC%83%81)
36) 김영민(2022), 『작은 생활, 작은 철학, 낮은 공부』 100~101쪽
37) "추상(abstraction)을 어떤 대상에 관한 설명에서 특정 속성들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인다.…(중략)…이론 개념은 다른 이론 개념들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추상적인 성격이 규정된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하나의 추상적인 체계를 구성한다.…(중략)…우리는 행위들을 추상적인 용어로 사유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판단하기는 고사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장하석(2013), 『온도계의 철학』 378~450쪽). 물론 장하석의 과학사 서술 내용에서 사용된 추상의 개념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 글에서는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추상도시의 물리적 구현"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용한다.
38) 모리 히로시(2018), 『생각의 보폭』 35~37쪽
39) 모리 히로시(2018), 『생각의 보폭』 37~53쪽
40) 르 코르뷔지에(2007), 『건축을 향하여』
41) 국내에서도 1970년대와 80년대 과천과 대전(도룡동 타운하우스) 혁신적 주거환경을 실험하였지만 아쉽게도 잊힌 지 오래다.
42) 유지원(2019), 『글자 풍경』
43) '에크리튀르(écriture)'는 직역하면 '문자언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행위, 글쓰는 방법, 문자나 표기법 등 폭넓은 의미로도 쓰인다. 에크리튀르는 기호학에서 롤랑 바르트에 의해 언어의 층위를 구분하고 집단 특유의 언어 습관으로 개념으로 확장된다. 바르트는 에크리튀르가 개인적 언어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사회적으로 선택되어 집단별로 언어나 글쓰기의 형태를 이룬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이나 텍스트 분석, 기호학적 해독의 영역을 개척한다(롤랑 바르트, 『글쓰기의 영도』, 2007).
44) 심리학, 철학 등에서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를 가리킨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2%8C%EC%8A%88%ED%83%88%ED%8A%B8)
45) 훈민정음은 특히 중국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를 굉장히 많이 참조했다고 알려져 있다. 파스파 문자도 티벳 언어를 활용한 혁신적이고 야심찬 비운의 문자였다고 평가되지만, 한글은 이를 창조적으로 변용하여 가장 우수한 정보 전달 체계로 승화한 것이다.
46) 특히 세종시와 창원시는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1976년 수립했던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에서 수도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였던 공통점이 있다(김시덕, 2022, 112~117쪽). 필자는 세종시와 창원시의 이러한 도시 성격은 다른 광역시·도의 지역학 연구에 비해 세종학과 창원학이 지니는 차별성과 맞닿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논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47)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특화가 가능하므로 오늘날 한글 도시 세종이라고 할 때 한국어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다. 한글날 행사나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종종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데, 문자 체계인 한글과 우리말인 한국어를 혼동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세계 각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소통하는 음성 언어는 서로 위계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적합한 언어 체계로 정착된 음성 언어 체계인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우수하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다.
48) '도시재생'이나 '도시 정체성'도 추상적으로 표현된 구상으로, 실제 도시의 현실적 특성과는 간

극이 있는 경우가 많다. 로버트 파우저는 대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도시 정체성이나 도시재생의 개념을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전은 도시의 역사가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 만들어졌고 각각의 개인들이 오늘을 사는 도시로, '도시재생'보다는 '도시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로버트 파우저(2019), 『로버트 파우저의 도시탐구기』). 이처럼 현실의 구체성에 기반한 추상화는 미래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더 적용될 여지가 있다.

49) '수직도시'와 청년세대 진입이 어려운 세종시의 현실은 대전학연구센터 김지영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빌려왔다.

50) 박해천(2011), 『콘크리트 유토피아』

51) 고충환(2019), "신상용-욕망도시, 추상도시에서 꿈을 꾸다", 〈서울아트가이드〉 2019-05 ; 에런 베츠키(2017), 『건축이 중요하다』

52) 렘 콜하스(2020), 『정크스페이스/미래도시』, 33쪽

53) 최정우, "세종시의 생성과 형성과정", 〈2021세종학포럼〉 자료집

54) 에릭 클라이넨버그(201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55)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는 곳으로 '예시바'라 불린다.

56) "단일 공간을 넘어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생활유산을 보전&활용하는 대안적, 실천적 박물관 활동을 의미하며, 기능에 따라 지역박물관, 지역 공동체 박물관, 생태박물관, 환경박물관, 민속박물관, 에코뮈제(Ecomusée) 등으로 불림"
(경기에코뮤지엄, https://ecomuseum.kr/usr/wap/detail.do?app=10333&seq=10425)

57) 김찬호(2002), 『도시는 미디어다』,

58) 최민아(2019), 『도시는 만남과 시간으로 태어난다』

59) 제인 제이콥스(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60) 에드워드 글레이저(2011), 『도시의 승리』

61) 앙리 르페브르(2024), 『도시에 대한 권리』

62) 리처드 세넷(2020), 『짓기와 거주하기』

63) 이재민·김진희, 〈지역문화 주제공원으로서 유교랜드 특성〉,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0호, 2015, pp. 170 참조.

64) 김민형·김현주, 〈사물인터넷과 초연결사회: 개념적 토대 및 기술인문학의 가능성〉, 《영상문화》 27집, 2016, pp. 216 참조.

65)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재후(災後)'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제16호, 2017, pp. 159 참조.

66)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태지호는 그의 저서 《공간형콘텐츠》에서 개념을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로 파악하였다. (※ 태지호, 《공간형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p. 2.)

67) 이재민, 〈'할머니 연극단'의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구현전략〉, 《인문사회 21》 제11권 2호, 2020, pp. 1680.

68) 김순배·김영훈, 〈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2호, 2010, pp. 202.

69) 김이경·유미숙, 〈맘충 호명에 대한 담론 분석: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제9호, 2019, pp. 46.

70) 도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명 제정에 관한 제 문제〉, 《지명학》 12호, 2006, pp. 72.

71) 세종의 소리 2020년 6월 30일자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71

72) 디지털세종시문화대전, 세종의 인문 정신을 구현한 한글 문화 도시,
세종시 http://sejong.grandculture.net/sejong/search/GC07701443?keyword=%EA%B8%88%EA%B0%95%20%ED%95%9C%EC%9A%B8&page=1

73) 왜 '세종시'인가? 그 이름 속에 무엇이 있나, 세종포스트 2020년 6월 30일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71(9월 7일 검색)

74)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4일 신해 2번째 기사

75) 태지호, 공간형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5쪽 참조.

76) 이재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유형으로서 자연융합형 공간의 개념 및 특성: 공간생산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0호, 2019, pp. 66.

77) 이재민 외,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한글사랑거리 조성·운영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 2021.

78) 본 연구에서는 훈민정음의 문자적인 측면보다는 디자인적인 측면을 조명하고자 하므로 이를 '한글'이라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79) 유정미, 「훈민정음에 담긴 디자인 철학의 현대성-20세기 모더니즘 철학에 비추어」 한국 타이포그라피학회, 글자씨, 제2권 제1호, 2010, pp.331.

80) 책 이름이 한글 글자인 훈민정음과 같은 '훈민정음'이다. 정인지, 신숙주 등 집현전 학자들이 쓴 해설서로서 훈민정음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을 담아 간행되었다.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하고 『훈민정음 원본』으로도 부른다.

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675), 정인지 서문 중

82)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 pp.79.

83) 안병학, 「한글 창제 철학에 담긴 공공정보디자인적 특성」, 한국디자인학회지, Vol.20, No.4, 2007, pp.287.

84) 유정미, 「훈민정음에 담긴 디자인 철학의 현대성-20세기 모더니즘 철학에 비추어」 한국 타이포그라피학회, 글자씨, 제2권 제1호, 2010, pp. 333~334.

85) 위의 글, pp. 334.

86) 앞의 글, pp. 335.

87) 앞의 글, pp. 337.
88)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한글 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2009, pp. 70.
89)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실린 도시 소개 항목 안에 도시브랜드 설명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90) 유정미, 『그래픽 디자이너들』, 홍디자인, 2015, pp. 198.
91) http://www.choicenews.co.kr
92) 위의 글
93) 유정미, 『그래픽 디자이너들』, 홍디자인, 2015, pp. 200
94) 1890년 주한 프랑스공사관의 통역관으로 조선에 들어와 한국학의 선구자가 된 모리스 쿠랑은 당시 수집한 조선의 책들을 9부 54종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이 목록을 살펴보는 것도 한글 문헌의 내용적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부 교회부(敎誨部)에는 한글이나 한자로 된 교육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부 언어부(言語部)에는 외국어 학습서가 포함된다. 3부 유교부(儒敎部)는 유교 경전이나 유가의 교리를 보여주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4부 문묵류(文墨部)는 시가나 문집, 전설, 잡서류들이 포함된다. 5부 의범부(儀範部)는 의례나 치리에 관한 책들이 포함되고, 6부 사서부(史書部)는 역사서들, 7부 기예부(技藝部)에는 산법, 천문, 술수, 병기, 의가, 농잠, 악보, 예술 등에 관한 책들이 포함된다. 8부 교문부(敎門部)에는 종교서류가 포함되고 9부 교통부(交通部)는 외교나 무역, 신문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그림 1〉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글 문헌과 그 종류별 비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95) 한글 문헌의 목록과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각종 웹사이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한글박물관의 '한글 100대 문화유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글고문헌관',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세종고전데이터베이스' 등이다. 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을 참조.
96)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립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다.
97) 1996년 KBS1 드라마 '용의 눈물'의 원작으로 활용되었다.
98) 한자로 된 책에 한자의 한글 음을 달거나 한글로 한문 문장의 내용을 해설하여 병기해 두는 책을 '언해본(諺解本)'이라고 한다. 언문(諺文/한글의 옛말)으로 풀이하였다는 뜻이다.
99)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위탁 소장되어 있다.
100) 교과서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상세정보
https://www.textbookmuseum.co.kr/data/specialView.mrn?cmIdx=5013
101) "진짜 '바둑이' 이렇게 생겼구나"…멸종된 토종견 복원. 2023.6.8. 세계일보 기사.
102) '언문(한글의 옛말)으로 된 편지'라는 뜻으로, 한글 편지를 예전에 이르던 말.
103) 백낙천(2012), 이승희(2011), 조용림·백낙천(2014), 백낙천(2023) 등 참고문헌 참조.
104) "안동 선비의 레시피' 카카오페이지 일일 조회수 1위", 데일리웹툰, 2022.12.1.
105) 드라마 스페셜 『수운잡방』 (2023, KBS2) 1회 단막.
https://program.kbs.co.kr/2tv/drama/dramaspecial2023/pc/board.html?smenu=1664aa&bbs_loc=T2023-0162-01-512540,read,,10,840217

세종지역학 기획총서 제3권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발행인 권영걸 (세종연구원)

기 획 이재민 (세종연구원)

편 집 이재민 (세종연구원), 이채론 (컬쳐랩C)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처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소담동 322)
전화: 044-550-3535, 팩스: 044-555-3599
홈페이지: https://www.sri.re.kr

인 쇄 삼성디자인기획 TEL 042-221-3111

ISBN 979-11-24215-09-8 03300